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장)
부모가 화내면
아이는 그것을 삼켜버린다
8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금주의 법구-〈불유교경〉
참회하는 마음은 쇠갈고리 같아서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을 잊지말라.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5월 1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050호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교법사 '인성교육 시대' 선봉장

70돌 맞는 조계종 교법사단

광복 후 교법사 6명으로 시작
불교 교육 일념으로 발전 거듭
포교 자료집 · 교재 연구 추진
현재 29개 학교서 31명 활동

오는 9~10월 70주년 법회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 박차
청소년 명상일기 발간 계획



2005년 열린 조계종 교법사단 60주년 법회 모습. 해방 이후 불교교육을 책임져 왔다.

교육 일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교육 · 포교하는 교법사들의 모임인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이학주, 이하 교법사단)이 올해로 창단 70주년을 맞았다. 이에 맞춰 교법사단은 70주년 기념법회와 청소년 포교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법사단의 효시는 1945년 해방 이후 각 불교 종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법사 제도를 두고 학생들에게 교학수업을 실시한 때로 본다. 해방 전에도 불교종립학교가 있었지만 해방 이후 불교교본을 발행하고 본격적인 불교 교육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2년 8월 10일 불교교육연합회 전신인 불교종립학원연합회가 발족되고 1968년 2월 20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주관 제1기 교법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제도화 됐다.

창단 당시는 교법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6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13개 법인 29개 학교서 31명 교법사가 활동 중이다.

교법사단의 시작이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최초 6명의 교법사 출범 당시 유일한 여자 교법사였던 박명순 법사(前 동대부여고 교장)는 교법사단 60주년 창간호 〈선지식(善知識)〉에서 "첫 해 교법사 위치는 부스럼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아침 직원조회마다 교법사는 자리를 비워달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으며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환영받지 못하던 그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회상했다.

학교 자체적으로 활동하던 교법사들의 연합활동이 본격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9년 1월 제1회 불교종립학교 교법사 연수회서 전국교법사단 전신인 전국교법사회(초대회장 김윤주)가 창립되면서 부터다. 이후 1991년 3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교법사 자격인정서를 받고 전국교법사회 명칭을 전국교법사단으로 바꾸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학주 단장은 창단70주년을 맞아 "교법사라는 이름이 탄생한지 70년, 한 사람 인생을 비춰 봐도 원숙해지는 시간이다. 그에 걸맞은 역량과 비전을 갖춰야겠다는 무게감이 느껴진다"며 "교법사단은 앞으로 불교 교학을 더욱 연마해 청소년 포교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교법사단의 주요 활동은 불교종립학교서 종교(불교) 교과 지도 및 생활 지도이다. 그러나 70년 간 창단기념세미나를 비롯한 연구 저술활동, 교학 연구논문 발표 등 교육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전법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매년 불교종립학교 불교학생회 간부수련회, 청소년심성수련회 등을 개최해 청소년 불자 역량 강화 및 각 학교 간 연대감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 교법사단은 청소년 포교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과연구회에 '서울초중등행복인성교육연구회'를 지난 4월 등록했으며, 불교 사상을 핵심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백미나 전국교법사단 사무총장은 "최근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인성교육콘텐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부처님 행복방법론을 인성교육에 접목해 학생들에게 더불어 행복한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가 드러나면 교육청 인가를 받아 일반 학교 교사 및 교법사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법사단은 70주년 기념에 맞춰 조계종포교원 지원 청소년 포교자료집 〈행복일기〉를 7월 1일 공식 발간한다. 〈행복일기〉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일기다. 백 사무총장은 "교법사단은 자기주도 학습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수행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불교명상이 종교를 넘어 건강과 힐링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수행일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당초 6월 26~27일 예정돼 있던 교법사단 70주년 창설 기념법회는 메르스 연파로 연기돼 9~10월경 진행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은 6월 12일 전국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에 공문을 발송하고 위로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시달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 설치된 메르스 극복을 위한 현수막. **사진=노덕현 기자**

메르스 극복, 불교계도 나섰다

조계종, 입장문 발표… 주요 사찰 위로 현수막

관음종 16일 참회기도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극복을 위해 불교계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12일 대변인 일감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메르스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인내하고 있다"면서 "보조국사 지눌스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을 피하지 말고 부딪혀 이겨내라' 고 하셨듯,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나 함께하는 지혜와 의지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은 사회를 껴안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에 진력하고, 여기서 오는 맑은 기운으로 현재에 처한 사회적 아픔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12일 전국 교구본사 및 주요 사찰에 △의료진 및 의료기관, 담당 공무원 격려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 △격려와 위로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설치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협력 의지는 6월 17일 총무원을 예방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환담에서도 나타난다.

17일 예방에서 박 시장은 조계종과 불교계가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신경쓸 것을 사찰에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자승 스님은 "종단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음종(총무원장 홍파)도 메르스 극복을 위한 참회 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관음종은 6월 16일 '메르스 극복을 위한 특별 참회기도'를 입재하고 메르스 사태에 대한 조속한 극복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15일 종단 사찰에 공문을 보내 16일 초하루 법회에서는 메르스 극복을 위한 특별 참회 기도를 병행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의현 스님 '멸빈' 사실상 해제

재심서 공권정지 3년 받아… 판결 21년만에 뒤집혀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당시 멸빈됐던 조계종 前 총무원장 의현 스님이 재심호계원 판결을 통해 공권정지 3년 판결을 받았다. 승려 지위를 박탈한 멸빈 징계를 받은 지 21년만에 사실상 사면을 받은 것이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자광)은 6월 1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96차 심판부를 열고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이전 판결을 뒤집고 공권정지 3년을 결정했다.

호계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현 스님은 지난 5월 21일 재심 청구를 제출했다. 이유는 1994년 초심호계원이 멸빈의 징계를 내렸으나 이를 통보받지 못해 재심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호계원은 외부 로펌과 종단 법률전문위원 등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고, 징계의결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초심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며, 재심을 다룰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현 스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를 개시한 재심호계원은 1시간여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 자리에는 의현 스님 본인이 직접 참여해 손수 적은 참회문을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현 스님은 종단 승려로서 마지막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이후 재심호계원은 의현 스님이 1994년 당시 총무원장으로서 종단을 혼란케 한 점은 죄가 크나 과거에 대한 참회가 이뤄졌고, △20년 이상 환속하지 않고 스님으로 살아온 점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공권정지 3년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심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의현 스님은 완전히 복권된다.

진제 스님 "일불제자 섭수토록"

재심 심리에 앞서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도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진제 스님은 6월 발표로 명시된 교시에서 "종단 개혁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엇는 종단사의 장엄한 광명의 빛이요, 거스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었다"면서 "정화 이후 1994, 98년에 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속퇴하지 아니하고 참회 정진하는 이들에게 출가사문으로 회향하도록 섭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 당시 제바달다도 대중 앞에서 참회하니 용서하고 화합승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불은(佛恩)을 베풀었다"며 "화합은 시대정신이요 사부대중에게 부여된 성스런 소명과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학원 권리제한 연장 안한다

정상화추진위, 18일 회의서 결의

선학원 등 조계종 미등록 법인에 대한 권리제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게 됐다. 현재는 7월 31일까지 만료 시한을 앞두고 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6월 18일 제3차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7월 31일 만료를 앞둔 미등록 법인 권리 제한 유예 조치 연장은 없음을 결정했다.

위원장 법등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간 여러 활동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진정성을 갖고 다녀봤지만 선학원과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종단 내 논란과 반발에도 5개 항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02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미등록법인 권리제한 유예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요청을 할지를 두고 장시간 논의한 끝에 요청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선학원과 대화를 위해 전국선원수좌회에 선원장 스님들과 선학원 이사진의 만남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해보세요.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 도자기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 차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낱개 5,000원 • 2개 SET 9,000원 • 3SET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진흥원 이사 배척 신의 저버린 행위”

진흥원 16일 이례적 성명 발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이하 진흥원)이 지난 6월 11일 열린 제91회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진흥원이 추천한 구상진 前 이사의 임원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신의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흥원이 불교방송 이사회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진흥원은 6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11일 방송사 설립 이후의 오랜 관례와 상호 존중의 신의마저 저버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기존 이사정수 범위 내 이사추천 시 추천기관의사 존중’의 오랜 관례를 깨고, 이사회의장에서 일부 원로 스님 이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격제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은 진흥원 추천 이사를 배척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이사들이 사장 연임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정관 변경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흥원은 “불교방송 재단의 공식요청에 의해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공모와 선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후보 추천과 직결된 정관의 기조를 뒤흔드는 것은 그 자체가 공모와 선출과정을 크게 방해하는 처사”이라면서 “사회적 지탄과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국내 14위 아시아 77위 ‘약진’

순위 집계 역대 최고 순위

동국대가 최근 영국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2015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국내 14위, 아시아 7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아시아 대학 순위 96위로 Top100에 진입한 동국대는 올해 19계단을 끌어올려 아시아 17개국 507개 대학 중 77위를 기록했으며, 국내 대학 순위도 4계단 상승한 1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대학평가는 연구 영역 60%와 교육 여건 20%, 졸업생 평판도 10%, 국제화 영역 10% 등 4개 영역의 9개 지표를 기준으로 각 대학에 순위를 매긴다.

동국대는 “이번 평가에서 학계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교원당 학생 수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국내 대학 순위도 2012년 26위에서 매년 꾸준히 순위를 상승시키며 올해 14위를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등산객 쉼터·굿당 된 ‘6.25 폐사지’ 대책 없나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폐사지 현황 살펴보니

북한산 자락의 부황사는 숙종 당시 북한산성 내 승병 양성과 약방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진 사찰로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곳이다. 주춧돌만 남은 이 곳은 현재 작은 콘테이너에 한 스님이 주석하며 중창불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님의 노력에 조금씩 사찰의 모습을 찾아 가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이처럼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폐사지에 대한 보존과 복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문화부가 2014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한국의 사지〉에서 한국전쟁으로 폐사된 사지 목록을 살펴보니 전국에 40여 곳이 넘는 폐사지가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한정되 추린 리스트로 이들 지역에만 22곳의 폐사지가 있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이외 지역까지 포함하면 40여 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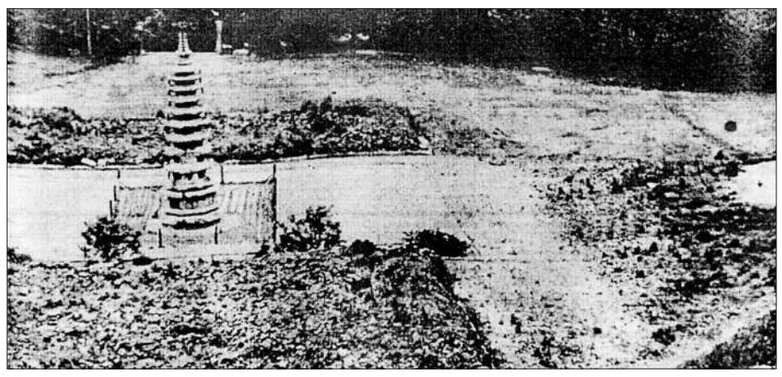
고성 건봉사와 연천 심원사 같이 유서 깊은 사찰들은 이미 중창불사가 진행됐지만 암자가 대부분인 이들 폐사지는 방치상태였다. 인적이 드문 산중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토지소유권이 민간에 있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점이 컸다.

한욱빈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은 “유구 등이 대량 출토된 남원 피근사와 같은 경우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폐사지 조사 내용을 보면 의왕 모락산에 위치한 경일암지의 경우에는 등산객 편의시설로 인해 사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초석과 기단 등이 엄연히 남아 있고 근대까지 운영된 점이 확인되지만 등산로와 약수터가 있어 그나마 남아있는 유구(출토유물)의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불교문화재硏 조사 40여 곳 추산
관리 주체 불분명해 사실상 방치
“근대까지 사찰역할… 관리 필요”

포천 신흥사도 고려 고찰이고 한국전쟁 전까지 운영됐지만 컨테이너와 산신당이 있는 굿당으로 변한 상태다. 컨테이너 주변에는 팔각연화대좌와 탑신석 등이 방치돼 있으며 특히 여래좌상은 인근 펜션 뒷마당에서 조형물로 쓰이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확인됨에 따라 매장된 유구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다.







한국전쟁 당시 전소된 월정사의 모습(사진 위). 현재는 복원돼 사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격이 작은 암자들은 복원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산 부황사지(사진 아래 왼쪽)는 훼손이 우려됐으나 원상 스님이 수년째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왕 경일암지(사진 아래 오른쪽)는 등산객 쉼터로 변했다.

그동안 조계종은 이 같은 폐사지 파악에 힘을 쏟아왔다. 조계종 총무원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를 보면 한국전쟁 당시 몽땅 불탔거나 부분적으로 불탄 사찰이 당시 38선 이남지역 사찰의 20%에 달하는 180개나 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39곳이 소실됐으며 파주 봉암사와 용인 금수암 등 6개 사찰은 복구되지 못하고 폐사로 남아 있다. 강원도 지역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 피해사찰 25곳이 소실됐으며, 이 중 14곳이 폐사로 남아있다. 호남지역은 14개 사찰이 복구되지 못하고 폐사로 남아 있으며, 영남지역도 8개 사찰이 폐사로 있다. 제주지역도 35개 중 10개 사찰은 복구되지 못하고 폐사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폐사지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장용철 안양대 교수는 2012년 국회에서 열린 '전통문화 계승' 세미나에서 “복원 가능한 폐사지의 경우 주변 사찰을 관리 사찰로 지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폐사지 사찰음악회 등 홍보를 진행해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은 동성애 차별치 않으셨다”

조계종 노동위, 6월 17일 성소수자 초청법회

종교계에선 이례적인 초청 행사
“성소수자 권리보장 위해 노력”

6월 28일 성소수자 축제 퀴어문화 퍼레이드를 앞두고 불교계가 성소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는 6월 17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부처님 오신 날 퀴어문화축제 기념 성소수자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불교계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는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집행위원을 비롯한 성소수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불교, 성소수자를 말하다’ 법문에 나선 노동위 효룍 스님〈사진〉은 “성소수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을 때는 ‘모르는 세계’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며 “나름대로 책과 연구 자료를 통해 공부한 후로 두려움을 극복했다. 앞으로 성소수자를 알리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도 ‘모르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조계종 노동위원 효룍 스님이 6월 17일 성소수자 초청 법회에서 설법을 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너, 나,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춘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라며 “인간은 어떤 것에도 차별받을 수 없다. 윤회 사상에 따라 언제든 이성애자로, 동성애자로, 양성애자로 태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성소수자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재가자 성 생활 관련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 뿐 동성애를 차별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 도덕적·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성생활을 요구하셨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효룍 스님은 사회적 차별로 억압받는 성소수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효룍 스님은 “세상 모두가 외면할 지라도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돌봐줘야 한다”며 “말 못할 고통으로 화가 끊임없이 올라오더라도 자기 돌봄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자비와 자애심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일찍이 계급과 신분을 넘어 존재의 평등과 고귀함을 가르치고 있다”며 “한국 내에는 아직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지만 앞으로 종단은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참가한 성소수자 이 모씨(남·28)는 “무종교인이지만 불교의 자비 사상을 보여주는 이 자리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며 “정치권에서는 소수와 약자 집단을 위해 자신 입장을 피력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종교계는 보다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선대 法恩 보답위해 정진하겠다”

조계종, 17일 종조 도의국사 추모다례재 봉행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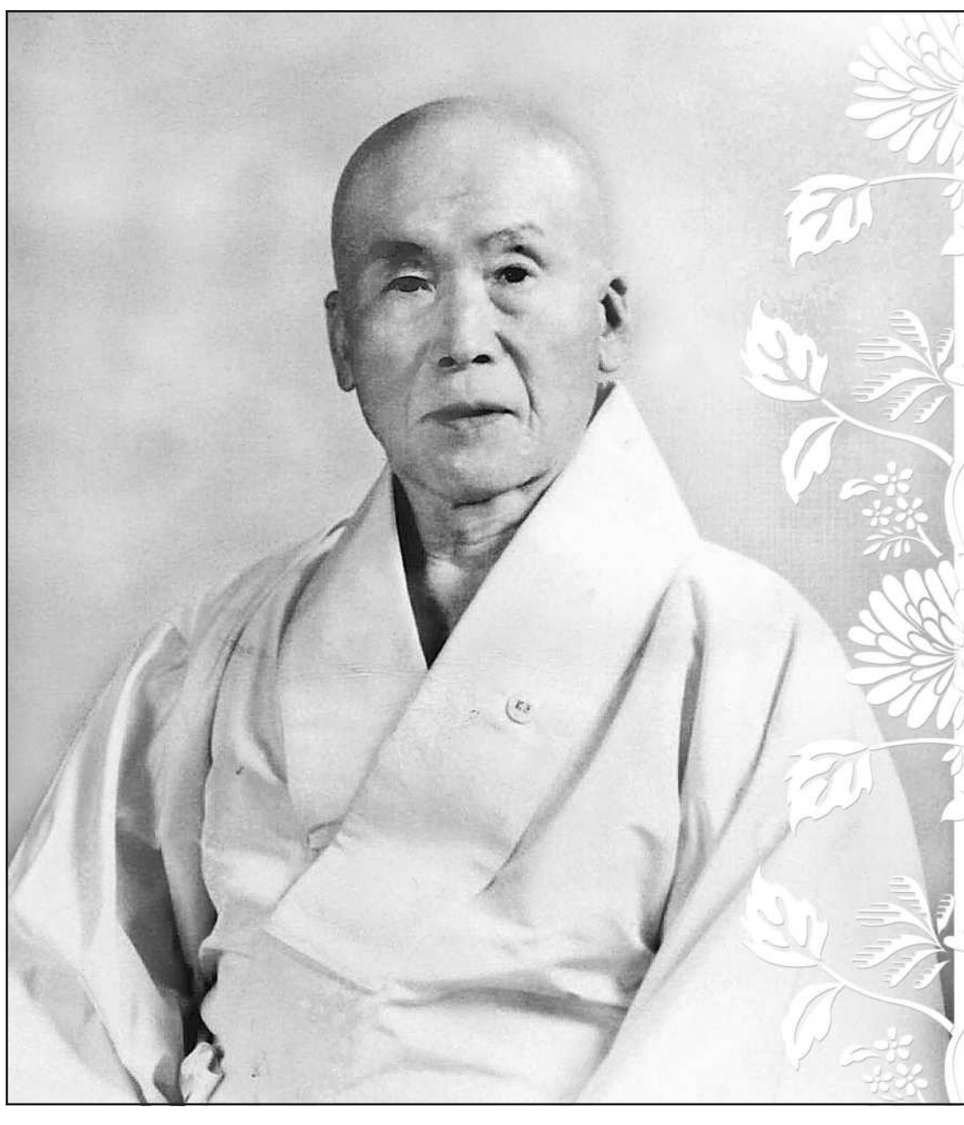
이날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인환·세민·원경 스님,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총장 보광 스님,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다례재에서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조사께서 가져오신 불조의 명주가 작금의 조계에 서광을 발하니 사해오호의 만중생들로 하여금 동서도 없고 남북도 없으며 생사도 없는 진리의 낙을 영득(永得)케 하여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추모사에서 종조 도의국사의 발원과 인욕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자승 스님은 “도의국사의 간절한 발원과 인욕행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등(傳燈)의 역사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선대의 공덕위에서 후학들은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의 정토를 이루는 일에 쉼없이 매진할 것을 서원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6월 17일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원로의원 세민, 원경 스님이 헌화를 하고 있는 모습.



세계불교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존자
탄신 101주년 다례제 및 원적 19주기 추모제

귀의삼보하옵고!
근대 인류의 스승이신 일붕서경보존자님의 추모제를 봉행합니다.
종단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일붕문도 스님들 께서는 동참하시어 일붕존자님의 유훈을 깊이 새기는 법석이 되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우리의 염원인 남북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실현 될 수 있도록 추모제의 법석에 초대합니다.

◆ 장 소 : 울산광역시 청량면 개곡리 295-11번지 화엄정사
◆ 일 시 : 2015년 6월 24일(음 5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 문의전화 : 052)268-5565, 010-3875-5562

증명 : 법운 용암 명종
봉행위원장 : 화엄 집행위원장 : 삼주 추진위원장 : 광명심
추진위원 : 각 교구원장 및 임직원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

‘돈황학 대사전’ 韓 번역판 출간된다

금강대 불문연 · 고려대 민족연, 3년 작업… 10월 발간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돈황학은 세계에 있다.(敦煌在中國, 敦煌學在世界)”

중국의 인도학과 문화사 연구의 대가 지센린(季羨林)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그 역사 · 문화적 연구 가치는 세계적이다. 특히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돈황지역은 막고굴 등을 비롯해 고대 불교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곳도 돈황 막고굴 제17굴 장경동에서다.

‘불교 문화의 보고’ 이자 ‘동서문화의 십자로(十字路)’ 였던 돈황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돈황학 대사전〉의 한국어 번역판이 오는 10월 출판된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조성택)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준)이 두 연구기관의 인문한국(HK)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2년 3월 공동 번역을 합의한 두 기관은 그해 8월에 정식 협정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번역과 교정을 진행해 왔으며, 이후 감수와 수정을 거쳐 오는 10월에 정식으로 〈돈황학 대사전〉을 출판할 계획이다.

번역은 철학, 역사, 종교, 문학, 미술, 건축 등 각 분야 전문 연구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역자로는 류준형(영남대), 정병윤(한국외대), 최병학(금강대), 한지연(금강대) 교수 등이다.

또한 두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경전, 불교 벽화, 전적, 미술 등 불교 관련 분야를 맡았으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역사, 어문학, 도상, 복식, 관련 저작, 연구자 등의 분야를 번역했다.

漢子 200만자, 표제어 6925개

불교미술 · 건축부터 민속 · 문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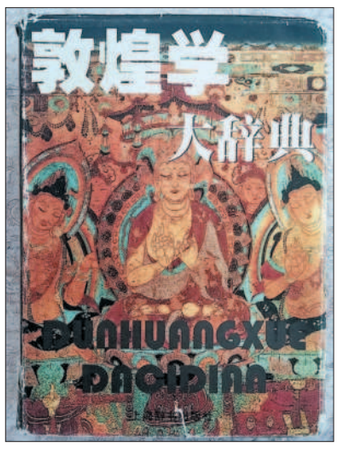
돈황학 ‘A to Z’ 담아낸 대사전

中서 13년 집필 거쳐 1998년 발간

종교 · 문학 등 전문가 번역 참여

“불교교류사 중요한 자료 될 것”

〈돈황학 대사전〉은 중국돈황투르판학회, 돈황연구원, 상해사서출판사의 합작으로 13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집필을 거쳐 1998년에 출판됐다. 이 작업에는 원로부터 중견, 청년학자까지 중국 · 대만 · 러시아 등 돈황학 연구자 120여 명이 참여했다. 당시 집필에 참여했던 신진학자 롱신장(榮新江), 왕산칭(王三慶), 정아차이(鄭阿財) 등은 중국과 대만의 돈황학을 이끌고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 1998년 발간된 〈돈황학 대사전〉 표지. 표제어가 6900여 개에 달하는 〈돈황학 대사전〉은 돈황학 연구를 총망라하고 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의 노력으로 오는 10월 한국어판이 정식 발간된다.

〈돈황학 대사전〉은 사실상 돈황학 연구 성과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240만자의 한자가 사용됐고, 표제어만 6925개에 달한다. 표제어를 살펴보면 석굴 · 설법도 · 경변도 · 불교 전적 · 사경 등 불교 관련 분야부터 정치 · 법률 · 경제 · 복식 · 음악 · 천문학 · 민속 · 종교(도교, 경교, 마니교 등)까지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채색 그림 123폭과 텍스트에 딸린 삽도 626폭 등 수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들을 첨부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벽화나 유물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답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연구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돈황학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돈황학 대사전〉은 한국 불교와 문화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 발간 의미에 대해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는 “돈황 석굴은 건축이면서도 조각과 회화 등이 담긴 종합적 예술품이자 문화유산이다. 또한 북위부터 청대까지 적지 않은 불교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면서 “이 같은 문화유산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불교 문화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황의 방대한 문화에 대한 전문 연구를 한 권으로 망라한 것은 〈돈황학 대사전〉이 유일하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은 그 의미가 깊다”면서 “인도 · 중국 · 실크로드의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 연구에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번역 책임을 맡고 있는 전광훈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역시 “불교 문화의 교류는 고대 한국인의 발자취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돈황학 대사전〉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문화 교류사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주)현대불교신문(대표 혜월 스님, 박개성)과 BTN불교TV(대표 구본일)는 6월 15일 상호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언론 발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은 본사 서춘건 관리부장(사진 왼쪽)과 변대용 BTN 문화포교국 총괄국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 불교TV 업무협약 체결

6월 15일 협약식… 불법홍포위해 사업 추진

(주)현대불교신문(대표 혜월 스님, 박개성)과 BTN불교TV(대표 구본일)이 불교언론 발전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현대불교신문과 BTN불교TV 측 대표는 6월 15일 서울 종로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신문 회의실에서 상호 홍보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상호 매체를 통한 교환광고를 진행하며, 향후 각사 주최 행사나 사업에 홍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향후 공동기획 등에 있어 양사 콘텐츠를 상호 교환해 영향력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BTN불교TV에는 현대불교신문 홍보영상이 매일 3회 방영되며, 현대불교신문에는 BTN광고가 매주 1회 게재된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에는 BTN의 주요 프로그램과 편성 내용이 격주 기면 기사로 실릴 예정이다.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현대불교신문이 지면을 통해 BTN의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소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대용 BTN 문화포교국 총괄국장은 “불교언론의 발전을 위해 신문과 방송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에 불교계 매체들의 협력관계가 구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대화문화 선도 ‘함께하는 경청’ 출범

화쟁문화아카데미 등 참여

정념 스님 명예 이사장으로

‘공공대화’ 등 사업 추진


화쟁문화아카데미 · 한국리서치 · 중앙일보는 공동 주체로 6월 17일 서울 안국빌딩 신관 4층 W스테이지서 새로운 대화 문화 만들기 위한 ‘함께하는 경청’ 출범식을 열었다.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 속 상대방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루 몇 분이나 할애하고 있을까? 타인과 소통 부재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경청’의 중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 이하 화쟁아카데미) · 한국리서치 · 중앙일보는 공동 주체로 6월 17일 서울 안국빌딩 신관 4층 W스테이지서 새로운 대화 문화 만들기 위한 ‘함께하는 경청(이사장 정성헌, 이하 경청)’ 출범식을 열었다. 정념 월정사 주지스님과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참여한 이날 행사는 김명자 前 환경부장관, 김진현 前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경청시민단 30여명이 참석했다.

경청은 우리 사회 진정한 대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시민의 지혜를 함양하기 위해 창설됐다.

경청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또 정치이념 · 세대 · 성별 · 계층 간 갈등과 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적 제도나 법적 기구는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상생의 화쟁 정신이 필요하다. 화쟁은 시민의 지혜를 만들어가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명예 이사장 정념 스님은 “나와 남, 자연의 소리를 모두 귀담아 들을 때 완성된 경청”이라며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많아지는 시대에 ‘함께하는 경청’이 올바른 대화 문화를 선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청은 향후 주요 사업으로 △공공대화 주최 △한국형 대화모델 개발 및 교재 출판 △경청시민단 및 시민교육 △대화 진행자와 전문가 양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핵심사업인 ‘공공대화’는 공적주제에 대해 일반 당사자들이 대화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참가자들은 스토리텔링(쉽고 재밌게 이야기 하는 형태)과 경청을 통해 상호이해 및 공감을 형성한다. 경청은 패널 대화 후 매스컴을 통해 대화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유해 올바른 대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015년 공공대화 주제로 ‘세대 간 갈등과 대화’를 선정했다. △7월 18일 남북문제와 통일에 대한 ‘45살 아들과 45년생 아버지’ 대화 △9월 12일 복지와 일자리에 대한 ‘좌절하는 청년들, 불안한 중년들, 성난 노인들’ 삼각 대화 △11월 14일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할 것,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2030과 40대 이후’ 대화 등 진행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상설 공직자 종교편향 감시 기구 결성”

연석회의, 18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통과 직후 밝혀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월 1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반대 시위를 펼쳤던 범종교인 연석회의가 공직자 종교편향을 상설 감시할 기구를 결성할 뜻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후보자들보다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던 황교안 후보자는 그간의 의혹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모르쇠로 일관하여 검증을 회피했고, 메르스 비상사태로 국민 여론이 느슨해진 틈으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았다”면서 “황 후보자는 종교인들의 우려를 올바로 읽고, 철저한 정교분리와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들은 이번 국무총리의 임명과정에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는 국민들의 항시적인 철저한 감시에 의해서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가칭)공직자 종교편향 감시 범종교인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향후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공직자의 편향적 종교적 가치관이 공직 수행에 있어서 현실화되는 것을 막고,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키는 자만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저지 범종교인 연석회의는 6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 시위를 열고 황 총리 후보자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연석회의는 그동안 편향적 종교관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임명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5일에는 황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삭발식과 기자회견 가졌으며, 이에 앞서 성명서 발표,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국회 앞 1인 시위 등 황 후보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신성민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전시리즈 ⑫

뭇 생명의 어머니이신 관세음보살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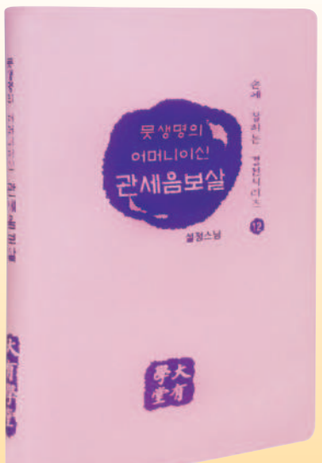
‘천수경’과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보살행’성불의 세 단계를 차례로 담은 글입니다.

먼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수행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공부하며 수양하면서도 세상을 구제하심에 몸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초지보살 시절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천수경’을 독송하시다가, 그분들의 영험하신 보살행에 감동하시고, 나도 그분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밝게 살펴 구제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자, 순식간에 8지보살의 단계로 초월하셨고 몸에서는 천 개의 손이 나왔는데, 각 손바닥에 눈이 하나씩 달려서 ‘천수 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눈과 두 손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을 다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문을 ‘천수경’ 또는 ‘천수천안 대다라니’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 ‘42수 진언’은 관세음보살님의 보살행이 담겨있습니다. 42개의 손 모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서원한 진언이 ‘42수 진언’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어려움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줄탁동시가 효과적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될 때, 안에서 어미닭을 보고 “엄마! 나 나갈께요.”하고 알의 안쪽을 톡톡치면, 어미닭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밖에서 알의 껍질을 콕콕하고 쪼아주어야 예쁜 병아리가 쉽게 세상에 나옵니다. 어미가 성급하게 쪼으면 부화될 준비가 덜된 병아리가 다치기 쉽고, 너무 느리면 알 안에서 지쳐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병아리와 어미닭이 동시에 톡톡 · 콕콕하고 쪼아야 새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정성스럽게 참회하며 기도하면서 깨우치고자 하면, 부처님보살님께서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어루만지고 눈으로 살피시며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님의 성불이 담겨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은 관자재보살입니다. 중생을 관찰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살행을 할 때, 언제 어디든 찾아가 구제한다고 해서 자유자재한 보살 즉 관자재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반야심경’을 읽고 성불해서 피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 경전의 글은 모두 관세음보살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에서 깨어나 피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 길을 이 세 개의 경문이 어미닭이 되어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천수경, 42수진언,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 가르침의 정수이다.
주머니 속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움을
느끼고 또 느껴보자!

세 경문 앞에 예불경문을 실은 이유는, 이 세 경문의 영험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있다가 이 세 경전을 음송(소리내서 읽음)하는 영역에 잘못 들어오면 빠져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영역 안에 들어온 작은 신 또는 생명체가 세 경문의 힘에 눌려서 당황하고, 또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원망을 만들어 새로운 악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경문을 독송하기 전에 예불경문을 먼저 독송함으로써, 스스로 선택하고 빠져나갈 시간을 주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특히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그림을 넣어서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오색금실로 글과 그림을 수놓아서 남긴 이 ‘천수경’과 ‘42수 진언’은 정말 귀중한 자료이고, 또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구해보기 힘든 자료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한 송이 연꽃으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천수경’과 ‘42수 진언’을 보면, 과연 부처님의 참 진리는 만고에 빛나는 생명수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감동하신 ‘천수경’과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만든 ‘42수 진언’, 그리고 ‘반야심경’을 지성으로 음송하시고 다른 중생께도 전파하시어서, 그 공덕으로 더욱더 많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담아 이 세 경문을 음송하십시오. 한 번을 음송하면 한 번 돌아보시고, 열 번을 음송하면 열 번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천 번 만 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음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변 분들께 그 힘을 나누어 주시고, 이 책도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염원을 담아 열 번을 독송했다면 둘이 하면 스무 번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세상을 살다가, 모두가 염원하는 극락정토로 가서 사시기를 바라며!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수 덕 사 덕숭총림 방장 송원 설정

대유학당 | 설정스님 | 값 10,000원 |
192쪽 | 가로 9.5㎝ × 세로 15.5㎝

주문처 02)2249-5630 법보시 주문받습니다.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일 주 문



군종교구 신임군승 임관식

정우 조계종 군종교구장 스님은 6월 26일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2015년 신임군승 임관식을 개최한다.



백범 김구 66주기 추모재

원경 마곡사 주지 스님은 6월 26일 마곡사 연화당서 백범 김구선생 서거 66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승가학원 법인사무처장 임명

원경 심곡암 주지 스님은 6월 17일 승가학원 법인사무처장으로 임명받았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혜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스님은 6월 27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5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다.



삼보승려회 네팔성금 전달

혜각 삼보승려회 회장 스님(총화종 총무원장)은 6월 18일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네팔대사관에 네팔지진피해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연기와 우주 인드라망〉 출판기념 강연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6월 26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2층에서 〈연기와 우주인드라망〉출판기념 강연을 개최한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제1회 회원의날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6월 27일 오후 4시 제1회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아름다운동행 축구 클리닉

홍욱헌 위덕대 총장은 6월 13일 포항 바이오파크 지적장애인축구단 FC포항 바이오파크 축구선수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동행 축구클리닉' 을 진행했다.

조계종 사서국장 현담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5일 사서국장 현담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담 스님은 법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대승사에서 법달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2년 범어사에서 석주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서울 불국사 주지, 총무원 총무국장, 사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위안부 문제, 참회의 마음 담아…"

日 '동지회' 회원, 14일 군산 평화의 소녀상 기금 100만엔 기탁



이치노헤 스님(왼쪽 네번째)과 동지회 회원들이 6월 14일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에 성금을 전달했다.

일본 조동종 아오모리현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스님이 이끌고 있는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이하 동지회)' 회원들이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성금을 기탁했다.

동지회 회원들은 6월 14일 군산 동국사를 방문해 김부영 군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장에게 100만엔(한화 약 980만원)을 보시했다.

일본인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성금을 기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이 과거 위안부 문제로 한국에 저지른 잘못을 우리라도 갚아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다" 며 "동국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았다" 고 말했다.

스님은 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동지회는 물론 가해자인 다른 일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협

소녀상 건립에 일본인 동참 최초

"역사적 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력해야 한다." 강조했다.

이 날 전달된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금은 이치노헤스님을 비롯한 동지회 회원들이 광복 70년과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아 군산 동국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원들의 성금으로 마련됐다.

이치노헤스님은 2012년 동국사에 참사문비 건립을 주도하고 2013년에는 독도를 방문해 '독도는 한국 땅이다' 고 선언하기도 했다.

광화문 평화의 소녀상을 여러차례 방문하기도 했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을 찾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의 잘못을 사과하고 참회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학 스님 전시전 개막전에는 500여 대중이 참가했다.

"예술과 종교는 하나입니다"

남종화 대가 원학 스님 서화전 개막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의 서화전이 6월 17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전시실에서 개막됐다. 원학 스님의 이번 전시전은 6년만에 여는 개인전으로 그동안 스님이 틈틈이 정성을 기울여 그린 산수화와 사군자, 서예 등 72점이 선보였다. 원학 스님은 20대 때부터 남종화를 그리기 시작해 남종화의 맥을 잇는 대표적인 문인 화가로 꼽히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해 선서화의 세계에 빠졌다.

이날 원학 스님은 "종교와 예술의 세계는 둘이 아닌 하나"라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는 마음과 그리는 대상이 하나가 될 때가 수행의 경지와 같다"고 말했다. 서화전은 6월 23일까지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생활불교, 현세정화의 창교이념 실천"

진각종 제69회 창교절 기념불사 봉행



6월 14일 진각종 제69회 창교절 기념불사에는 진각종 종도들이 모여 창종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각종의 창교이념은 불교흥왕, 밀교중흥, 현세정화, 심인현현이다. 진각종이 추구하는 근원적인 진리가 심인진리이기에 이 네가지의 이념은 결국 심인의 현현으로 모아진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6월 14일 서울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을 비롯한 진각성존 회당종조 탄생성지인 울릉도 금강원 내 총지심인당, 미국 LA 불광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 기념불사를 일제히 봉행하고 창종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주석처인 탑주심인당에서 봉행된 창교절 기념불사에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께서 창교라고 하신 뜻은 전동적인 한 교법을 중심으로 종파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라니불교, 재가불교, 심인불교보살회라는 특수한 새 교법으로 정체성을 확립한 불교라는 특장을 명확히 하신 것"이라며 "이 점에서 우리들 신행의 정체성이 있고 지향해 나아갈 정확한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이제 우리들의 신행을 보다 밝고 건강하게 하면서 포교를 위한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수불 스님 동국대에 10억원 '쾌척'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부산불교방송 사장)이 동국대에 발전기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수불 스님은 6월 18일 조계종 총무원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에 동국대 발전기금 기탁금으로 10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총장 보광 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 총장 자공 스님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나눔의 米(미)학' 행사



동국대는 6월 18일 서울캠퍼스 팔정도 광장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쌀 1200포를 나누는 '나눔의 米(미)학' 행사를 개최했다. '나눔의 米(미)학' 은 동국대가 6월 11일 개최한 제38대 이사장 및 제18대 총장 취임식 당시 화환 대신 받은 공양미를 외국인 유학생과 새터민, 자취생 등 재학생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한태식 동국대 총장과 신재호 경영부총장, 양영진 학술부총장, 동국대 홍보대사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4kg의 쌀을 1인당 1포씩 배부했다.

노덕현 기자

'2015 몽골 푸른마을만들기사업'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18~2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2015년 몽골 푸른마을만들기 사업(KOICA 지원)' 을 전개했다. 울란바토르시 외곽의 비어(Bio), 울지트(Ulzit), 엠엘트(Emeelt) 3개 마을 저소득층162가구에 총 3,240그루의 과일나무 묘목을 지원했다. 또한 묘목지원과 동시에 식재 시범 및 관리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❷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❸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❹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5년 7월 15일까지 수시전형

❺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걱정하지마세요. 당신 마음에 부처님 계시니까요”

한국군 · 미군 군종병과 최초
한미 군종 야외기동훈련(FTX) 현장

항공작전사령부 군종참모 지용 법사가 FTX 훈련 중 이동간 피습당해 총상을 입은 것으로 가정된 부사관의 곁을 지키며 응급처치 후 안심시키고 있다.

“아군 수송차량이 적군에게 피습당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 간이수술센터로 수송하도록 하겠다.”

폭탄이 터지는 위급한 전시상황, 피탄된 군 수송차량 안에서 사경을 헤메는 장병의 손을 꼭잡아주는 이가 있었다. 바로 군승법사였다. 고통에 빠져있는 것도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금경경의 말씀 한 구절에 이 장병의 표정은 편안해졌다.

국방부는 6월 16일 특수전사령부에서 군 사상 최초로 한미연합 군종 야외기동훈련(이하 FTX)을 개최했다.

보통 군종장교는 군에서 종교활동을 이끌고, 장병들의 인격지도 교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직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신분도 지니고 있다.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하며 이들의 정신유지에 도움을 주고, 사후에는 천도의식까지 치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장병들이 실전상황에서 심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이 군종장교이기에 전세계서 실전을 겪는 미군은 걸프전 이후 군종장교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이날 FTX는 이런 미군의 군종 운영능력을 배우고, 한국군의 군종운영능력 배양과 연합작전 능력을 다지는 자리였다. 한미 군종장교와 부사관들은 전시에 대량환자 발생을 가정하고 진지한 자세로 훈련에 임했다.

2박 3일간 열리는 이번 FTX에는 한국군 군종장교와 부사관, 미 육군 의무학교 교관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CH-47, UH-60 등 군용헬기를 비롯해 험비차량 등이 동원돼 폭음과 공포탄이 오가는 실제 전투현장과 유사한 상황이 펼쳐졌다. 대항군으로 특전사 요원이 투입되고 실전에서 군종복무 경험이 있는 미 군종교관이 교육관으로 나서 노하우를 전수했다.

첫째날에는 대항군의 피습을 받은 위급상황에서의 역할과, 야전병원에서의 군종장교의 역할을 습득하는 자리가 마련된 이후 전사자를 헬기로 호송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군종장교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없기에 전시상황에서는 더욱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전우애와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종교인으로서의 사명감이 함께 했다. 수송차량에 탑승한 법사는 부상당한 전우를 차량에 실은 뒤 응급처치 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피습된 차량은 신속히 이동 후 특전사 연병장에 마련된 간이수술센터에 도착했다. 센터 앞에는

100여 한미 군종장교 참가
실전상황서 심신치료 병행
소생 불가능 환자에겐 기도
병사들 심적 의지에 확대 추세

M(minimal), D(delay), I(immediately), E(expected)의 표지판이 있었다. 경미한 환자부터 즉시 수술이 필요한 환자, 또 수술로는 소생이 힘든 환자까지를 구분한 표지판이었다.

교육관으로 나선 미군 밀러 중사는 각 단계별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수술로 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E등급 환자에게는 의료진 대신 군종장교의 역할이 중요했다.

병원 내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사경을 헤메는 병사의 손을 정성스럽게 잡은 군법사는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숨을 멈추는 순간에도 군법사는 계속 기도로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다른 한쪽 병동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해 호송을 준비하는 팀이 있었다. 여기에도 군의관과 함께 군종장교가 동행했다. 미군의 경우 군종장교(채플린)가 보조의무관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며 호송 등에 동행한다는 설명이 진행됐다.

첫째날 훈련은 수송헬기에 다친 장병을 싣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날 훈련은 다종교인 한국 상황에 맞게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으로 나눠져 진행됐다. 대대별로 군종장교가 배치된 미군에도 불교 군종장교 3명, 이슬람 군종장교 6명, 유대교 군종장교 1명이 포함돼 있어 장병들의 종교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TX는 둘째날 각 종교시설에서의 전사자 추모의식과 교전상황에서 군종요원이 전·사상자를 보호하고 돕는 방법을 숙달하는 자리와 셋째날 총평회 등이 마련된다.

훈련에 참가한 상적 이상무 법사(육군 2사단 군종참모)는 “전시상황에서 군종활동은 다친 병사 당사자의 안정감과 희망을 주는 것과 동시에 같은 부대원들의 정신적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역할이 크다”며 “무형전력을 간과하기 쉬운데 오히려 더욱 중요하기에 최근 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 김창모 법사(특수전사령부 군종참모)도 “미군은 군종병과를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실전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계기”라며 “전장상황에서 군종장교의 역할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훈련”이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위트리 미 8군 군종참모(군목)는 “미군 군종 병과 사상 외국군과 함께하는 첫 연합훈련으로 향후 한미 군종병과의 교류 확대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수전사령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긴박했던 야외기동훈련 하루의 재구성

*시간대별 구성은 팀별 진행으로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00 미군과 공동으로 교육훈련 후 팀별 상황 돌입

13:00 훈련장을 내려보는 참관인석에서는 미군 군종장교의 설명이 진행됐다.



13:20 대항군의 공격이 진행되고 각종 훈련용 수류탄과 포탄이 터지는 가운데 수송차량은 멈추지 않고 이동했다.



13:35 연병장에 마련된 간이수술센터에서 의료진이 소생불가로 밝힌 병사의 손을 군법사가 잡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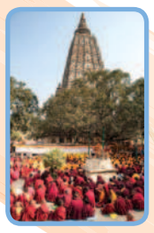
13:45 큰 수술이 필요한 병사를 후송전 의료진과 군종장교가 안심시키고 있다.



14:00 수송헬기가 도착하고 다친 병사를 의료진과 군종장교가 이송하고 있다. 첫째날 훈련은 수송헬기로 이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 5일
양곤/바간/헤호 5일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BEST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씨-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방콕/부탄 7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출발확정 상품 [호텔-일정-포함내용-식사 : 타사비교 필수]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 7월 11일, 8월 29일, 9월 2일	1,490,000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 6월 24일, 7월 17일	1,390,000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30일	1,290,000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 7월 10일, 8월 22일	1,290,000
[문수도량] 오대산/용강석굴	5일	출발일 : 7월 17일	1,390,000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5일	출발일 : 7월 25일, 8월 18일	1,090,000
중남미 7개국	20일	출발일 : 7월 29일	11,590,000
미동부/캐나다	10일	출발일 : 9월 12일	2,610,000

라오스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중국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 화동훼리, 위동훼리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신행 · 포교 소식

‘반야’ 이모티콘 받고 템플스테이 ‘GO’!

조계종 포교원 ‘반야의 야단법석’ 출시기념 이벤트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 출시 이벤트를 연다.

포교원은 “오는 6월 18~24일까지 1주일 간 반야의 야단법석을 구매하거나 선물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증정한다”고 6월 16일 밝혔다.

‘반야의 야단법석’ 이모티콘은 이벤트 기간 동안 카카오톡 아이템 스토어 ‘에디터의 추천’ 코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이후 아이템 스토어 우측 상단의 검색창 돋보기 모양을 눌러 ‘반야’라고 검색하여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포교원은 지난 5월 25일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을 출시했다. 불교 최초 이모티콘으로 사랑스러운 24종의 동자승 캐릭터와 절냥이를 담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소년 마음거울 108 영문 동영상 제작

조계종 포교원, 청소년 법회 운영사찰 등에 배포

오는 7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됐던 ‘청소년 마음거울 108’의 영문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

‘청소년 마음거울 108’은 청소년의 인성과 심성교육을 위해 개발된 포교콘텐츠로, 부모님과 선생님이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108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화 같은 일러스트로 절수행에도 활용할 수 있다.

포교원은 “이번 영문 동영상으로 해외의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적 가치를 전하는 것은 물론, 국내 청소년들에게는 인성교육과 외국어 학습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게 됐다”고 밝혔다.

동영상은 청소년 법회 운영 사찰과 인성 · 심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청소년문예작품 최우수 한유경·윤소연 양

선학원 12일 수상자 발표… 만해 스님 문예 정신 기려

29일 추모다례재서 시상식

만해 스님의 독립 사상과 문예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선학원이 처음 실시한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전’ 수상자와 수상작이 결정됐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12일 한유경 양(풍문여고 2)의 시 ‘꽃 밟는 길’과 윤소연 양(덕성여고 2)의 산문 ‘만해 한용운, 그의 삶’을 ‘2015년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 각각 시와 산문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시 부문 우수상은 이민정 양(덕성여고 3)의 ‘건망증’과 민유빈 양(풍문여고 1)의 ‘그대들이여, 일어나라!’를, 산문 부문 우수상은 진시형 양(덕성여고 1)의 ‘아, 만해! 오, 우당!’과 박지현 양(덕성여고 1)의 ‘나라라는 이름의 도화지에 역사라는 물감을 뿌리다’를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6월 29일 오후 4시 서울 A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 열리는 ‘만해추모다례재’에서 있을 예정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단은 “공모기간이 짧고 주제를 한용운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활동으로 제한해 출품 수가 적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애국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만해학술문화제’의 일환으로 ‘청소년문예공모’를 실시했다.

신성민 기자

여름방학과 휴가는 산사로 떠나보자!

전국 사찰,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대상 ‘여름 캠프’ 실시

여름 무더위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전국 사찰이 여름 캠프 준비에 한창이다.

과거 ‘숲속 체험’ ‘교리 공부’에 집중돼 있던 어린이 · 청소년 불교학교는 프로그램이 한층 다채로워 졌으며 일부 사찰은 명상 학교, 효행 학교 등 특화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도심 무더위를 피해 산사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성인 및 가족 단위 대상으로 한 산사체험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돼 눈길을 끈다.

‘업그레이드’ 어린이 불교 학교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는 7월 24일~26일 ‘원어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마음 그리기 Mind Sketching, 영어 일기 쓰기 등 수행 프로그램에 영어를 접목시킨 것이 눈에 띈다. 이밖에도 광릉수목원 야생초체험, 황토 머드팩 놀이, 감자 · 옥수수 수확체험, 바디 슬라이딩 등 체험활동을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선착순 30명만 참가할 수 있다.

경기 고양시 흥국사(주지 대오)는 7월 31일~8월 2일 ‘아준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명상 템플스테이’를 계획하고 있다. 어린이 명상은 아이들 인성 교육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흥국사는 소금 만다라 명상, 자애 명상, 다도 명상 등 대표 명상 프로그램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 준비했다. 특히 자애 명상은 장애체험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다.

경기 남양주 동원정사(주지 송묵)는 7월 25일~27일 ‘어린이 효행불교학교’를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포교사단과 함께 ‘생명실천캠프’를 진행해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의식을 고취시켰던 동원정사는 올해 ‘효행’을 테마로 부모은중경 강의, 부모님께 감사편지, 부모님 자화상 그리기 등을 진행한다. 주지 송묵 스님은 “요즘 효(孝)가 바닥에 떨어진 사례를 종종 나타난다.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효행의 근본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인성을 갖출 수 있다. 이번 효행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효 의식을 함양코자 한다”고 전했다.

친구 · 가족과 함께 산사체험

‘힐링 열풍’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산사로 이끌었다. 사찰 음식 · 명상이 유행하면서 템플스테이가 활성화 돼 친구, 가족과 함께 사찰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이에 각 사찰은 기존 어린이 · 청소년 중심의 여름 산사체험을 성인 및 가족 단위로 확대했다.

전남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2015 두륜산 여름 숲속마을 템플스테이’를 연다. 대상은 어린이 · 청소년 뿐 아니라 가족 단위도 함께할 수 있다. 가족 숲속마을은 총 4차에 걸쳐 실시되며 108배 통해 ‘나’ 살펴보기, 하늘 보며 오감 깨우기, 일지암 · 북미륵암 · 두륜산 디디기 등 자연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방학기간 맞아 어린이불교캠프 활성
영어 · 명상 등 프로그램 ‘다채’
가족과 함께 즐기는 캠프도 마련

동국대 서울캠퍼스 국제선센터는 일반인 전 대상으로 6월 27일~28일 강원도 일대 여름선찰답사를 떠난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과 깊은 계곡에 위치한 수행도량 천년고찰서 불교 정신유산을 체험하고자 기획된 이번 답사는 오대산 성지 월정사, 한국 선종역사 초기사찰 굴산사, 1400년 역사 삼화사를 찾아간다.

서울 길상사는 8월 3일~6일과 7일~10일 2차례 ‘여름 선 수련회’를 기획했다. 특히 수련 시작 후 휴대폰은 반납하며 기간 중에는 묵언 수행한다. 길상사는 “법정 스님께서 발족하신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마음수행 활동 중 묵언과 참선을 통해 스스로를 가만히 지켜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는 7월 24일~26일 ‘원어민과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목동 국제선센터 청소년 영어 템플스테이 모습.

2015 여름불교 템플스테이 일정

사 찰	날 짜	프로그램	내 용
〈어린이 · 청소년 대상〉			
범어사	8/1~3	친구들과 함께 부처님을 만나요	박물관 견학, 암자 순례/어린이 대상
비로자나 국제선원	8/1~4	영어담마캠프 ‘We are One!’	친구되기, 마음청소 콘테스트 ‘Three poisons’, 영어일기 등
봉선사	7/27~29	제42회 어린이숲속학교	반딧불 찾기 명상, 수영장, 보물 찾기
동원정사	7/25~27	효행불교학교	걷기 명상, 숲속 체험 등
육지장사	8/8~9	스카우트불교연맹 인성교육여름불교학교	리더십교육, 응급처치, 캠프파이어, 땅굴 및 도라산 견학
흥국사	7/31~8/2	아준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명상템플스테이	소금 만다라 명상, 자애 명상, 내 안의 부처님 명상, 다도 명상
목동 제선센터	7/24~26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	마음 그리기, 영어일기쓰기, 황국토 머드팩 놀이, 수확 체험(감자캐기, 옥수수 따기), 바디슬라이딩
	8/15~16	청소년 템플스테이 ‘친구들 여기 모여라!’	우도 퍼즐게임, 희노애락: 마인드스케칭, 심계초심학인문, 천연염색체험
〈가족 대상〉			
대흥사	8/1~2	어린이 숲속마을	108배 통해 ‘나’ 살펴보기, 하늘보며 오감 깨우기, 일지암 북미륵암 · 두륜산 디디기 등
	8/5~7	청소년 숲속마을	
	8/11~13	가족 숲속마을 1차	
	8/14~16	가족 숲속마을 2차	
	8/19~21	가족 숲속마을 3차	
	8/22~24	가족 숲속마을 4차	
송광사	8/1~5	선 수련(성인)	좌선의 강의, 선 강의, 좌선, 철야 정진, 108참회
	8/8~12		
	8/15~17	선 수련(초등3~6년)	
동국대 국제선센터	6/27~28	여름선찰답사	월정사 · 굴산사지 · 삼화사 답사 김호귀 교수 〈간화선과 묵조선 비교〉
길상사	7/7~28	여름 선 수련회(초등 저학년)	미정(7월 1일 이후 홈페이지 공고)
	7/28~30	여름 선 수련회(초등 고학년)	
	7/30~8/1	여름 선 수련회(청소년)	
	8/3~6	여름 선 수련회(성인)	
	8/7~10		
직지사	7/17~20	하계단기출가 산사체험	3보 1배, 108배, 사찰예절습의 마음나누기-당신은 부처님,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스님과 차담
	7/24~27		
	7/31~8/3		
	8/7~8/10		

‘붓다 대화법’으로 사회 문제 극복한다

인드라망, 부처님 사상 현대인 대화법에 접목 ‘눈길’

지난해 세월호에 이어 올해 메르스로 대한민국 사회에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이 난관을 헤칠 방법으로 ‘부처님 대화법’이 제기돼 주목된다.

불교계 생명운동단체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7월 11일~26일 서울 양천구 인드라망 교육도량 3층 법당서 ‘부처님의 대화법 집중 워크숍’을 개최한다. 일상생활서 사무량심 · 팔정도 등 말과 관련된 부처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교육 내용은 △대화란 무엇인가? △자비가 깃든 경청 Ⅰ-다른 사람 △자비가 깃든 경청 Ⅱ-자기 △거절 · 용서하기 등 어려운 대화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인드라망은 ‘부처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일상 소통방식을 들여다보고 단절과 소외를 가져오는 불통의 대화를 멈춘다.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자비로 소통하고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과 SNS가 대중화되며 온라인상 대화 상대는 넘쳐나지만 우울증과 외로움은 현대의 흔한 질병이 되었다. 긴장과 불안으로 냉랭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따뜻하고 자비로운 관계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대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워크숍은 매주 토 · 일 오전 10시~오후 7시 정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김점란 붓다의 대화 연구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문의 (02)576-1886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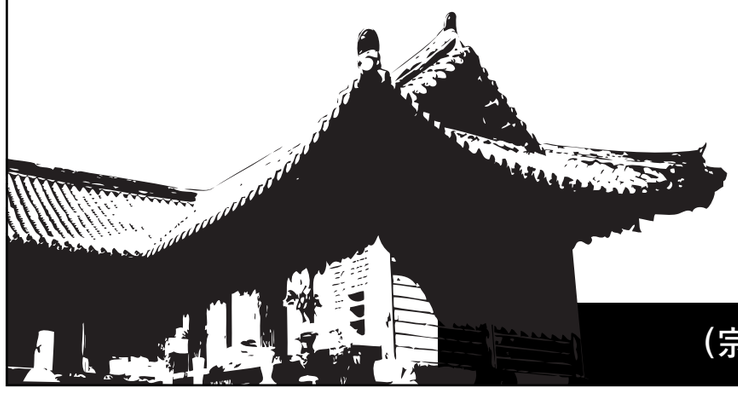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울산 노인 복지의 산실… 사각지대 찾아가는 사업 '눈길'

개소 10주년 맞은 원각선원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회복지법인 원각선원(이사장 보연)에서 운영하는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소장 이명희 · 이하 연화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자비정신으로 노인복지를 담당하며 포교 활동을 펼쳐온 연화지원센터는 차상위 계층과 소외 계층 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내 도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울산 지역 내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만 해도 현재 900여명에 이른다.

2005년 5월 문을 연 연화지원센터는 2007년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을 시작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연화지원센터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아울러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사업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발굴해 결연을 맺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돌봄 바우처 사업도 폭 넓게 펼치고 있어 복지지원을 적재적소로 알맞게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연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사업은 하루 8시간 이상 센터 자체 내에서 어르신들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프로그램은 오전에는 당뇨와 지병 상태를 매일 체크해 제철 과일과 누룽지탕 등 어르신들에 맞는 건강식과 간식을 제공한다. 오후에는 심리 치료 및 인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간보호사업은 보호자들의 경제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육명신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보호자들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을 짐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 가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난 5월 30일 울산 연화홀에서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개소식 후 기념 사진.

2007년 저소득층 식사배달로 출발
현재 900여 명 어르신 보호관리
주간보호사업 특화… 1일 8시간 이상
5월 30일 개소 10주년 기념식 개최

정불화의 단초가 된다"며 현실을 설명한다. 이어 육 씨는 "이런 가정의 어르신들을 낮 시간 동안이라도 보호하고 도와드림으로써 보호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어르신들도 좋은 서비스로 행복해 한다. 현재는 22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간보호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결연 사업 중 하나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한, 매주 1회 어르신들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용 이동 욕조 또한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해 하루 종일 누워있는 와상 환우 어르신들의 목욕을 도와 혈액순환을 돕고 욕창을 방지하고 있다.

연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차량용 이동 욕조는 평소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목욕을 손쉽게 도울 수 있어 어르신 뿐 아니라 보호자들도 감사해한다"며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화 및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평소 여행을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었던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있다. 연화지원센터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차량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또한 시골인지라 위급한 상황에 도움 요청이 와도 기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아울러 부탁했다.

한편, 연화지원센터는 지난 5월 30일 울산 연화홀에서 이사장 보연 스님을 비롯해 법인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명희 소장은 "그동안 도움주신 후원자님, 봉사자님, 힘든 일도 묵묵히 잘 따라 와준 센터 직원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며 "지나온 10년이 성장의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성숙한 모습의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재난위험경감사업 추진

미얀마 '이와라디' 지역 등 5개 마을에서 실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미얀마 '이와라디' 지역에서 '미얀마 주민조직에 기반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6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국경을 뛰어넘는 긴급재난구호 활동을 펼쳐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재난 상황이 발생한 후 구호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지원 하고자 한다"며 사업 취지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사업을 추진 중인 이와라디지역 5개 마을(총 약 600가구, 3000명) 은 지난 2008년 태풍 나르기스의 피해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으로, 미얀마에서 가장 큰 강줄기 옆에 위치한 마을의 특성상 매년 큰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입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재난 대비 취약성을 살피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난 감지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미얀마 '이와라디' 지역에서 '미얀마 주민조직에 기반한 재난위험경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주민들이 마을 도로공사를 하고있는 모습.

집과 집,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만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상 재난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이동에 어려운 대상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5개 마을에 재난 대피용 도로를 신설하고, 다리를 건축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손쉽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정수시설을 만들고, 마을도로를 정비하고, 다리를 건설하며 환경개선 및 대피로를 구축하는 이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이루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해 재난위험경감조직을 결성하여 지속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국제개발협력담당자를 현장에 파견, 현지 단체 'BEDAR'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오는 6월 말 현장 점검을 통해 우기를 맞이한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지난 6월 9일~10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밝은 마음 명상캠프'를 실시했다.

한국문화연수원의 박희승 교수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명상 이론, 걷기 명상, 좌식 명상, 선체조, 숲길 명상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명상법을 익혔다. 정혜숙 기자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이동세탁 서비스 실시

6월 15일 20여 어르신 대상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15일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지역 내 수급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이동세탁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동세탁서비스는 복지관 앞 주차장에서 대형세탁차량을 통해 평소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2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탁서비스를 통해 평소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침구류 및 의류 등의 세탁과 살균건조가 함께 이루어져 보다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15일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이동세탁서비스를 실시했다.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8월과 9월에도 대한적십자사 및 서울시남부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세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문해 교육생 모집

기초한글교육 및 핸드폰 교육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성인 문해 교육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비문해 ·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서울시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적인 한글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2학기부터는 핸드폰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발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컴퓨터와 한글 수업을 접목시킨 기능문해반의 경우, 문서작성 및 인터넷, 이메일 등의 활용방법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수준 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문해교육 뿐만 아니라 배움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시화전 · 백일장 및 체험활동이 함께 진행 되고 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비문해 · 저학력 성인의 생애능력 향상 지원으로 교육안전망 구축 및 사회통합 증진과 제 2의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02)817-8052 정혜숙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6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6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부모가 화내면 아이는 그것을 삼켜버린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초하루 법회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장)

아이들의 인성은 성장기 가정환경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화를 많이 내는 부모에게서 받은 아이들은 그 화(火)를 그대로 삼켜버리며 그것은 곧 아이에게 내재된다. 자우 스님은 5월 18일 비로자나국제선원 초하루기도 법회서 〈자녀에게 성냄과 수행의 의미〉를 주제로 법문했다. 자우 스님은 "부모인 당신은 아이에게 썩은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까?"라고 물은 뒤 "아이에게 화내는 것은 썩은 음식을 먹이는 것과 같다. 부모가 한 말과 행동에 따라 아이는 육근을 통해 거르지 않고 모두 흡수해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화를 참는 것이 어려울 때마다 부모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자각해 성냄을 다스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리=박아름 기자

아이에게 화냄은 썩은 음식과 같다

올해도 비로자나국제선원은 조계사 앞 전통문화마당에서 3개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참선 부스 〈도전! 3분 삼매!〉에서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목탁을 치면 3분 동안 앉아서 목탁소리를 집중하여 듣는 체험이었지요. 일종의 소리명상입니다. 고요히 앉아 몇 번의 목탁소리를 들었는지 그 숫자를 맞춰보고, 맞춘 사람에게는 선물과 함께 스님에게 무엇이든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받은 질문 중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3학년 어린이의 질문인데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고 심각해 저는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아이들의 질문은 같았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었지요.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하는 질문을 하였을 텐데 그만큼 공부 문제가 아이들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가 오늘 이곳에서 잘 집중했기에 숫자를 맞춘 것처럼, 공부에서도 집중이 가장 중요하지. 반듯하게 자세를 잘 잡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너의 호흡을 관찰하면서 호흡의 숫자를 헤아려봐라.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3시간할 공부를 1시간만 해도 될 거야. 그럼 같은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지"고 했더니 아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들에게서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 질문을 하는 것을 꺼려하시더니 "지금 당신에게 무척 소중하고 중요한 기회"라면서 권유를 했더니 질문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스님 제가 아이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면 곧바로 화가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하여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모인 당신은 아이에게 마음이 항상 건강하도록 좋은 마음의 음식을 줍니까, 아니면 항상 배탈이 날 썩은 음식을 줍니까. 아이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썩은 음식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썩은 음식을 먹여놓고 아이에게 잘하라고 건강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올바르게 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썩은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주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이의 육근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아이에게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한번 흡수되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음식은 먹으면 배출되어 밖으로 나와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마음은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적으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빠지려면 토해버려야 합니다.

썩은 음식 줬다면 토하게 하라

일단은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난 아이에게 어떤 마음의 음식을 주었는지 본인 스스로 잘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안 좋은 음식을 준 것 같다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아이가 토해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내가 그때 너에게 이렇게 한 행동들이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라고 말하면 아이는 "엄마, 나 그때 속상했어.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토해냈을 때 대부분의 엄마들은 "야, 그거가지고 뭐가 속상하냐. 다 너 잘되라고 한거야"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더 썩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삶의 지혜를 잘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아직 수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라면 화를 안 내고 잘 기르실 수 있겠지만 인간은 완벽히 해탈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참는 것이 어렵지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면 내 실수를 돌아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미안하다'는 말을 아이에게 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부스에서 질문하셨던 아이의 아빠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버님이 회사를 다니는 것이 누굴 위한 겁니까? 결국 다 자식을 위해 하는 일인데 정작 본인은 왜 아이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아버님이 화를 내실 때마다 본인이 아이에게 나쁜 마음음식을 먹이고 있고 결국 그것이 아이를 병들게 할 것임을 알아차린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때 그 아버님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108배하세요. 하고 안하고는 당신 몫이지만 매일 하다보면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의 마음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부모 말과 행동 따라 성품 달라져
> 부모라는 존재 항상 자각해야
>
> 무엇 먹느냐 따라 마음 건강 결정
> 나쁜 음식 줬다면 토하게 하라
>
> 내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게 하면
> 나쁜 것도 좋게 변화시킬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야단법석이고 무차법회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며 화두를 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름도,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행의 지혜를 나누는 일은 참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전통문화마당에 참여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스님들은 두루마기를 여법하게 입고 거리를 감독하고 구경하러 다니시는 것을 보며 다음부터는 나도 폼 잡는 일을 좀 해야겠다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할수록 보람을 느끼고 내가 행복해지니 '아이고, 힘들더라도 계속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행은 내 마음을 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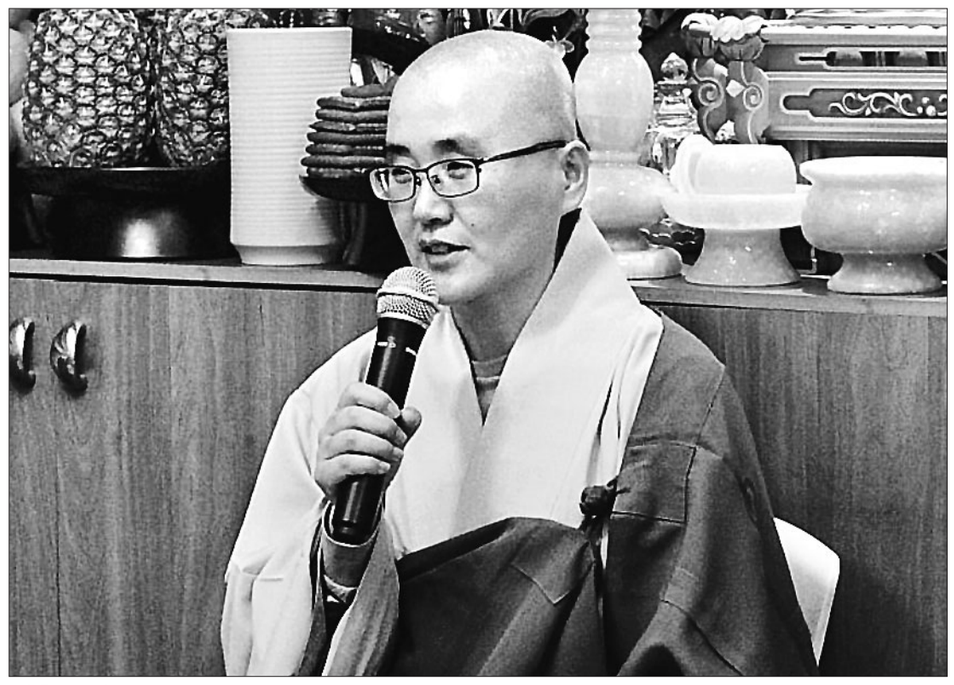
우리는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줘야하듯이 마음으로도 좋은 음식을 줘야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행동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내 수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부스에 참석했는데 한 외국인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스님들은 항상 법문을 들으면 수행하라, 수행하라 하시는데 도대체 수행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수행입니까?"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당신의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아 지금 이 마음은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면 당장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기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똑같이 실천하셔야 합니다. 항상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화가 올라오면 첫째단계로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합니다. 화에는 대부분 독이 있습니다. 이것을 탐 · 진 · 치 삼독이라고 합니다. 독을 품으면 해롭습니다.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약간의 독은 약으로 쓰이지만 독이 많아지면 사람을 죽입니다. 삼독 중 진(嗔), 화의 독을 만약 내 아이에게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조금뿌리는 것은 약이 되지 상관없지만 너무 많이 뿌려버리면 아이가 독에 오염되어 시름시름 앓고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엄마는 지혜의 눈이 없으니 아이가 얼마나 앓고 있는지, 부모가 뿌린 성냄의 독에 의해서 어떻게 중독이 되고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각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에게 계속 독을 먹이며 "살아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바로 치(痴)입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이 많고 화가 많으면 남들에게 비춰져 옆에서 조언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어리석음은 사실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초하루에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떤 염원을 가지고 기도 하러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 탐 · 진 · 치 독을 빼고, 독 없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 가족과 내 친구, 내 부모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백날 천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기도의 가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내 마음의 탐 · 진 · 치를 잘 없애서 내 마음을 싱싱하고 맑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서 철철 넘쳐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당신을 보면 마음이 행복해져요"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없는 듯 해도 남에게 주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자 진정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기회가 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 가족이 아프지 않게, 내 뿌린 독으로 오염되지 않게, 내 친구가 오염되지 않게, 내 부모가 가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 또 명심하는 마음을 초하루 올 때마다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우 스님은 … 1992년 영운 스님을 은사로 백흥암에서 출가 1999년 동학사승가대를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2003년 스리랑카 캘라니아대학에서 불교학 석사를 받았고 파라마담마사 영어담마스쿨 교사로 활동했다. 2003~2005년 인도네시아 해인사포교원 주지를 맡았으며 2006년 비로자나국제선원을 개원 국제포교를 펼치고 있다. 현재 LMB싱어즈 지도법사, 조계사 청년회와 7051전차부대 백호대대 법사로도 활동중이며 동학사승가대 불교영어 강사를 맡고 있다. 2013년 제 25회 조계종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능인 로즈마리 / 능인 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 인 라 벤 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단, 98만원에 법당의 앰프 + 대출력 스피커 + 구즈넥 탁상 마이크 등 최고급 신형 장비로 교체해 드립니다.

■ 기간 : 선착순 30개 사찰
■ 신청방법 : 계약금 30% 입금 후 휴대전화로 희망일자 및 주소, 사찰명을 정확히 문자로 보내주시면 예약 순서대로 설치 일자 및 방문 시간은 스님과 협의해 결정 합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만해 스님에겐 감옥이 곧 선방이었다"

선학원, 6월 15일 정법사서 '만해와 민족독립운동' 학술문화제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15일 서울 정법사에서 만해 스님 열반 71주년 기념 만해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문화제에서는 '만해와 민족 독립운동'을 주제로 만해 스님의 종교활동과 독립운동, 문학 및 저술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6월 15일 세미나서 강은애 연구원의 발표에 고영섭 동국대교수가 논평하고 있다.

먼저 강은애 서울대 연구원은 '만해 한용운의 행적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을 통해 "만해 스님은 진속불이의 대승불교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성속을 넘나든 종교인"이라고 평가했다.

강 연구원은 "그동안 독립운동과 문학적 소양으로 승려로서의 모습이 부각되지 못했지만 그 정체성은 철저한 불교 수행자"라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만해 스님이 사경을 헤매는 극한 상황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한 체험은 궁극적 실재와의 합일 체험"이라며 "종교의 절정을 경험한 만해 스님은 사회에서 자신의 내적 체험을 현실화하는데 분투했다"고 했다.

강 연구원은 "만해 스님이 감옥에서 출감하며 '고통이 곧 쾌락이었다'는 역설적 술회에서 종교수행가의 진면목을 읽을 수 있다. 그에게는 감방이 바로 선방이었던 것이다. 세상의 영리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모습에 순교자의 위엄마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는 만해 스님이 1927년 설립된 범민족적 단일독립당 '신간회'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된 항일운동을 조명했다.

만해 스님 수행자 면모 부각
민족 방향제시로 문학 활용
불교대전 통해 사상 계승도 되짚어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은 경성지회장 사임 후 불교청년운동에 집중해 조선불교 정체성 정립에 앞장 섰다"며 "불교가 먼저 개혁해야만 조선인의 정신과 생활을 개척할 수 있다는 시대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은 불교운동의 연장선으로 사찰령과 그 시행령으로 생겨난 사법 폐지인 식민불교 철폐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만해 스님의 민족독립에 대한 상상력이 매개로 문학으로 표현됐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만해 스님의 독립사상의 특징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었다. 자유와 평등 민족자존성의 회복이란 과제에도 3·1운동이 실패하자 만해 스님은 방향제시의 의도로서 문학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양은용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는 만해 스님의 저서 〈불교대전〉과 현공 스님의 저서 〈불교대성전〉을 대조하며 현공 스님이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불교대성전〉은 〈불교대전〉에 비해 인용횟수가 300회 가량 늘었으나 그 구성과 경향이 같다.

양 교수는 "두 저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불전은 〈화엄경〉, 〈열반경〉, 〈법구경〉 순"이라며 "〈대전〉과 〈성전〉은 현재적 불교성전으로서의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학원은 만해 스님의 기일인 6월 29일 만해문학상 시상과 추모 다례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제2회 총지학술상에 박재은·김다현·이영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는 6월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성북구 삼선동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교육장에서 제2회 총지학술상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총지학술상에 선정된 논문은 모두 3편으로, 불교 수행 이론 논문 1편과 명상상담 기법을 사용한 사례연구 2편이다. 먼저 불교수행 이론 논문은 사선정의 핵심 요소인 우뻬카가 선정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이 연구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박사논문을 준비중인 박재은 선생이 연구했다.

2편의 사례연구 논문은 가족갈등 때문에 우울을 겪고 있는 청년기 자매를 대상으로 명상상담기법을 토대로 한 가족치료적 접근을 시도한 사례연구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에 대한 내러티브연구이다. 전자는 이영순 박사가 후자는 김다현 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자가 각각 연구하였다.

이영순 박사는 직장생활과 대학재학 중인 자매가 겪는 우울정서를 가족상담을 통한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가족치료인데, 기존의 가족치료와 차별화 되는 것은 명상상담 기법 가운데 고집멸도 명상상담모델을 적용한 점이다. 20회기의 상담을 통해 자매의 우울정서의 개선과 가족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논문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연구자는 명상상담의 영역확장이란 의미를 부여하며, 이후 가족치료와의 통합적 명상상담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다현 선생은 현상학적 연구방법론 가운데 하나인 내러티브 방법론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뢰를 받고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는 참여자의 삶에 대한 상세한 생활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텍스트를 쓰고 해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이것에 명상상담기법 가운데 영상관법을 활용하여,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고, 직면하면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내러티브 방법이 명상상담기법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내담자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02)2232-5364 노덕현 기자

진흥원, 제13회 대원상 후보 공모

출 · 재가 2개분야 접수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2015년 제1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에 대하여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및 단체 3인(곳) 이내를 시상한다.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텍스트 · 이미지 콘텐츠 분야와 오디오 · 영상 콘텐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한편, 대원상(大圓賞)은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포교대상 · 콘텐츠 대상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02)719-2606

정혜숙 기자

갑사 소조삼세불상 복장서 고려 성보 출토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6월 10일 공주 갑사(주지 화봉) 대웅전의 소조관음보살입상 복장을 정밀조사한 결과 복장 내에서 후령통, 발원문 및 많은 경전과 다라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후령통은 납입 당시의 경전을 원형으로 감싼 형태로 후령통 주변에는 여러 경전과 다라니가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전 중에서는 1387년에 필사한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1352년에 개판된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8-10, 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3(고려후기) 등 고려시대 주요 경전이 발견됐다.

특히 보살상 목부분에는 묘법연화경 권1-3 1책이 둥글게 말린 상태로 나왔다. 이처럼 갑사 보살상 복장 조사는 기존 복장 조사에서 볼 수 없는 복장물이 납입상태와 위치 등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있다.

한편, 불교문화재연구소는 6월 17일 보성 개흥사지 2차 시 · 발굴조사 현장보고회를 개최했다. 개흥사지는 지난 2013년 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청동소탑과 '개흥사(開興寺)'銘 기와와 소조불상 등의 유물과 용이 조각된 계단 소매돌과 층단식 대형 석축 등으로 이루어진 산지가람임이 확인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 〈대승기신론〉 논쟁 살핀다

금강대 · 런민대 · 도요대 공동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아시아 불교사 속에서의 대승기신론관의 수용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學)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 및 일본 도요대학(東洋大學)과 공동으로 6월 19~20일 부여 백제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제4회 한중일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승기신론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끼친 대승기신론관에 대한 다양한 조명이 이뤄진다. 대승기신론은 성립된 이래 담연 · 혜원 · 원효 · 법장 스님 등 수많은 논사들이 관련 주석서를 저술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 19일 오전 10시에는 한광수 금강대 총장의 환영사와 권탄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술대회가 시작된다.

학술대회서는 △장원량 런민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에 대한 종밀의 관점-종밀의 교판설을 중심으로' △석길암 금강대 교수의 '기신론과 기신론 주석서의 아리야식관' △아부키 아쓰시 도요대 교수의 '초기

6월 19~20일, 부여 백제역사관에서
'대승기신론관' 전개 및 수용과정 조명

선종과 대승기신론' △장쉬에송 런민대 교수의 '하서담광과 당역 대승기신론' △진케이도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의 '장병린의 대승기신론 진위에 대하여' △리우청요우 중양민쭈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에 대한 인순의 관점-기신론과 부남불교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논평은 이케다 마사노리 금강대 교수, 간노 히로시 소카대 교수, 박재현 동명대 교수, 박보람 동국대 교수, 최연식 동국대 교수, 김영진 동국대 박사가 맡는다.

둘째 날은 차상엽 금강대 교수의 사회하에 △이시이 고세이 고마자와대 교수의 '대승기신론과 진제삼장을 연결하는 불성론' △리쯔지에 고마자와대 교수의 '대승기신론의 진여설 일고찰'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대승기신론 연기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 △오다 아키히로 오오타니대 교수의 '인중설과와 인중유과의 차이-기신론 이해의 중심점' 등 논문이 발표된다. 논평자로 김성철 금강대 교수, 이상민 고려대 교수, 장진영 금강대 교수, 박창환 금강대 박사가 각각 맡는다.

권탄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은 "국내외 관련 전문 학자들의 성과를 함께 나누면서 대승기신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41)731-3611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화엄사서 여름워크숍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7월 10~11일 구례 화엄사에서 여름워크숍을 개최한다. '소통과 화합에 대한 불교적 모색-화엄사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리송재 불교문화재연구소 팀장의 '화엄사 석경의 문화적 가치'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조선후기 화엄사의 불교적 위상'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와 화엄사 승가대학장 종곡 스님의 '화엄사상과 소통' 발제 후 토론이 이어진다.

최종남 불교학연구회장은 "워크숍에서 소통과 화합에 대한 불교적 대안이 도출되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1일에는 지리산 연곡사와 쌍계사 답사가 이어진다. (031)980-7796

노덕현 기자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광주유니버시아드서 불교문화 만끽을…

광주불교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중 불교관 운영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증심사 주지)는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불교종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 대표단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과 행사홍보를 위해 광주시내 사찰 100여 곳에 현수막을 걸고, 대회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수촌 내에 들어설 불교종교관은 전체 20여 평으로 선수와 임원들이 편하게 종교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촌식이 시작되는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22일간 운영된다.

운영은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과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자비신행회, 전통등만등회, 빛고을나눔나무와 공동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선수와 임원들을 위한 명상과 체험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예불의식과 방문자를 위한 사찰 예절 안내와 명상프로그램, 다도 및 다식, 지화연꽃 만들기, 전통한지등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단주만들기 등이다.

행사를 진행하는 광주불교연합회 문영배 기획팀장은 "조직위원회측의 요청으로 대규모의 행사는 개최할 수 없고, 순수하게 선수와 임원들이 편안히 종교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어, 소규모의 한국체험 프로그램과 참배와 명상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주지역 중요사찰과 지점에 행사홍보 현수막을 걸어, 대회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수촌 내 위치, 22일간 운영
선수 명상 · 심리치료 프로 진행
전통지등 · 연등만들기 등도 마련



지난 2009년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광주시청에서 개최한 유치기원대법회 모습.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불교계는 적극 동참해 불법홍포에도 나선다.

종교관은 불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등 4곳이 운영된다. 7월중에 개최되는 각 나라 대표단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도 눈길을 끈다. 증심사와 빛고을자연음식체험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증심사 마당에 사찰음식으로 외국 대표단에게 만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은 6월 16일 종합예행연습을 통해 숙소 배정, 등록, 부대시설 이용 등 선수촌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6월 23일 미디어를 통해 선수촌 내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선수촌은 7월 17일까지 20개동, 2185채가 운영되며, 이곳에는 선수와 임원 1만2000여 명이 묵는다.

한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종합 스포츠 대회로서 올림픽에 이어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전체 132개국에서 21개 종목, 선수 8천여 명과 임원 4천여 명 등 총 1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가장 많은 큰 규모로 진행된다.

개최 종목은 기계체조와 농구, 다이빙, 리듬체조, 배구, 수구, 수영, 유도, 육상, 축구, 탁구, 테니스, 펜싱의 13개 기본 종목에 개최도시 선택 종목 8개를 더해 총 21개이다. 광주는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온 배드민턴, 사격, 야구, 양궁, 조정, 태권도, 핸드볼, 골프를 선택했다. 특히 손연재가 출전하는 리듬체조와 불자 선수로 알려진 양학선이 출전하는 기계체조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제 1회 박물관학교 수료식 개최

"전통사찰에서 전통옷 만드는 과정을 배우게 되어 너무 행복했어요."

화엄사(주지 영관)에서 운영한 '제1회 화엄사 박물관학교 수료식' 이 지난 10일 범음료에서 수강생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강좌는 6월 10일 개강을 해 전체 12주 과정으로 기초(바느질가방, 수납바구니, 핀쿠션, 두건, 천영염식), 연구반(허리치마, 디자인치마, 동군목둘레 저고리, 고무줄바지, 깃저고리), 심화1반(사목바지, 천연염색, 긴저고리), 심화2반(겹사폭바지, 겹저고리, 디자인두루마기)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엄사는 6월 14일 선재어린이법회와 문수학생회 창립 2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논산 금강대, '2020 금강 AGENDA' 선포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6월 17일 장기적인 대학발전과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2020 금강 AGENDA'를 선포했다. 이날 발표된 비전에 따르면 금강대는 학제개편으로 현 2개 학부 6개 학과 모집정원 145명에서, 4개 학부 10개 전공 모집정원 145명으로 개편했다. △불교문화학부는 불교학전공, 응용불교학전공 △사회과학부는 경영학전공, 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국제통상학부는 FTA시장전공, 중국통상전공, 미국통상전공, 일본통상전공 △정보과학부는 컴퓨터과학전공 등이다.

또한 '2020 금강 AGENDA'는 금강대가 세계적인 글로벌 문화 협력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전원 해외유학(해외 학점 취득), 자율과 융합(자율전공제), 질문과 창조(질문중심강의), 영어와 컴퓨터(졸업인증제), 독서와 체력(기숙사몰입교육), 장학과 인재발굴(전원장학제) 등으로 구성됐다.

한 총장은 "이번 학제개편과 2020 금강 AGENDA를 통해 질문중심 교육으로 미래창조형 인재를 배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롭게 변화하는 금강대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제주 불교 구심점 될 서귀포불교회관 건립 된다

6월 8일 서귀포불교문화원 창립 8주년 법회서 논의… 동문회원 1500만원 모연도

제주 서귀포 지역 신행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서귀포불교회관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귀포불교문화원(이사장 도종)은 6월 8일 서귀포시 노블컨벤션에서 8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불교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윤봉택 서귀포시예총 회장은 "서귀포불교문화원의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 서귀포불교회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회관 내에 불교대학을 비롯해 각종 불교단체가 상주하면 불법홍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산남지역 사찰 주지들의 동참과 더불어 서귀포불교대학이 배출한 1850명의 동문들에게 건립부지 구입을 위한 땅한평 보시운동과 우리절 대웅전 불사라는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일 열린 서귀포불교대학 총동문회 제10회 한마음단합대회에서는 동문회원들이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1500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1000여 명은 모두 동참의사를 밝혔다.



6월 8일 서귀포시 노블컨벤션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제공=제주불교

한용운 서귀포불교문화원 원장은 "서귀포 불교대학 졸업생 증가 및 문화원 산하 동아리 활동공간 부족에 이어 연꽃 합창단까지 문화원 산하로 가입하며 신행공간이 더욱 필요하진 상황"이라며 불교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장은 이어 "불교회관은 서귀포 지역의 상징이자,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불교메카로 꾸려야 한다"며 대중들의 협조와 동참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리산 선교사 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근대문화재 지정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리산권시민단체협의회는 6월 15일 구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근대 문화재 지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김동필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김란기 문화유산대표, 이배근 국립생태원 박사, 윤여창 서울대 교수, 천득염 전남대 교수, 함한희 전북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지정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간담회 결과는 문화재청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리산 화엄사 등 지역 사찰들은 구례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등재 시도는 일부 개신교 단체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의 결과라며 민족성지이자 자연보존구역인 지리산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을 즉각 철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착한벗들, 마음담은 생활문화요리강좌 개설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착한벗들(대표 회일)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요리강좌 '2015 마음담은 생활문화요리'를 개최했다. 6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요리강좌는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다각화와 시민들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역 내 다문화가정을 위해 요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으나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가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날 요리강좌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의 요리를 활용해 강좌의 강사로 나서거나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진행됐다.

착한벗들 관계자는 "2013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이해와 가사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이번 요리강좌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사과정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활동 무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요리학원,(사)자연음식문화원과 함께 오는 8월부터 교육청과 지역 내 요리 관련 단체나 동호회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요리체험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착한벗들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중도입국자녀(재혼을 통해 이주한 결혼이주여성이 데려온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및 사회문화 이해교실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6월 20일부터는 청소년들의 다문화감수성 제고 전문 프로그램인 '꿈을찾아떠나는 마음여행'을 시작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아픈 상처 인정하는 순간이 치유의 시작”

일미 스님, 미타선원서 힐링 토크 콘서트 현장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6월 13일 일미 스님을 초청해 ‘희망과 사랑’ 만들기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성장을 위해 고통의 기억을 보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6월 13일 일미 스님(듀크대 종교학과 부교수 · 아래사진)을 초청해 ‘희망과 사랑’ 만들기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 주지 하림 스님, 불국정사 범천 스님 외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일미 스님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 콘서트는 마음나누기 힐링 레크레이션, 일미 스님 소개 및 청법, 법문에 이어 참가자들과 질문 나누기 및 소감나누기 등이 이어졌다.

주지 하림 스님은 “1991년 동국대에서 처음 만난 일미 스님은 꿈을 갖고 있었다. 열심히 노력해 하버드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듀크대 종교학 교수로 재임 중”이라며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일미 스님의 법문은 청소년진로와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미 스님은 법문을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스님은 “현재 나를 이끌고 만들어온 대부분의 원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정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며 “괴로운 기억을 넘어 아픔을 인정 할 때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미 스님은 또한 “평생 지고 가야하는 상처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상처가 있는 자신을 밀쳐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듬어 안기 위해서는 직면하고 객관화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처 있는 자신 밀쳐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듬기 위해선 객관화 위한 용기가 필요”

이어 대중들의 질의 시간에는 진로에 대한 청소년의 고민, 자녀와의 의사소통, 청소년 불교 포교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김희승(19) 학생은 “꿈이 있는데 가끔 자신감이 없어지고 갈림길에서 방황을 하는 자신을 보며 슬럼프에 빠진다”고 고민을 털어났다. 이에 대해 일미 스님은 “슬럼프가 없을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0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상상해 봤을 때 그것이 뗏뗏하다면 지금의 결정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중들은 미타선원 1층 차실 ‘좋은 인연’에서 소감나누기를 진행했다. 홍순하(49)씨는 “초여름 저녁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며 “일미 스님의 현재 모습은 도반 스님들이 준 용기와 칭찬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주변 도반들의 칭찬에 더 감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눈 김희승(19) 학생은 “평소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하고 보람을 느껴서 경찰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거 같고 마음의 고민을 덜 수 있는 시간이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미타선원에서는 주최한 ‘희망과 사랑’ 만들기 힐링콘서트는 6월 13일을 첫 시작으로 6월 20일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희망 만들기’로 진행됐다. 마지막 일정은 6월 27일 오후 7시, 수미 런던 법사님과 함께하는 ‘사랑 만들기’ ‘가정에서 시작하는 불자의 길-부처님 법 따라 사는 가족’으로 마무리된다.

일미 스님은 19세 출가, 2002년 미국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신학대학원)에서 ‘불교와 사회학과 종교 이론’으로 석사학위를, 2007년 하버드대에서 한일 불교 관계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듀크대 종교학과 부교수로 재임 중이다.

하성미 기자

“전통 · 현대 아우른 사찰 문화공간 만들겠다”

영배 스님, 통도사 제29대 주지 취임법회서 밝혀

“지역에 불교 특유의 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국지대찰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29대 주지 영배 스님의 취임 진산 · 고불식이 6월 17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신임 주지 취임 진산식에는 메르스 여파에도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월파 스님을 비롯해 율주 혜남 스님, 유나 천진 스님 등 사부대중 150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영배 스님은 종단의 소임을 역임한 경륜을 바탕으로 불지종가의 가풍을 계승하고 국지대찰의 면모를 일신 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스님은 “자장율사의 계율과 청규를 본사 총림의 기본 이념으로 이행하며 금강계단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종단의 수계 산림을 항시 수용, 유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며 “권위를 내려놓고 대중과 의논하며 소통하고 화합 승가 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사회에 치유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국지대찰의 면모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통도사 신임 주지 영배 스님 취임사 장면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의원 월파 스님은 축사를 통해 “방장 스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대중들을 대신해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며 “자장율사가 개찰한 이후 덕망 있는 훌륭한 스님들께서 주석하며 통도사를 이끌어 온 그 정신을 이어 본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1965년 통도사로 출가, 1971년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1995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을 수료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규정국장, 재무국장, 박물관장, 도서관장 및 11~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16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흥덕사를 창건하고 동국대학교 이사장, 미국 LA 동국 로얄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흥덕사 주지, 약사사 회주를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등 민속문화재로

부산시는 지난 6월 11일 문화재위원회(무형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長安寺 冥府殿 三幡床)’을 부산광역시지정 민속문화재 제10호,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長安寺 應眞殿 法臺經床)’을 부산광역시지정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하고 6월 17일 부산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고시했다.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은 예불이나 불교의식을 할 때 경전 또는 목탁과 요령 등을 놓아두는 것으로 천판 하부 바닥에 묵서된 명문에 의해 경상의 이름 및 1748년 제작연대 및 조선의 제작자를 알 수 있는 보기 드문 불교 목공예품이다. 특히, 18세기에 제작된 경상의 조각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은 불경을 독경하거나 예불 등의 의식을 집전할 때 사용하는 서안(書案)의 일종이다. 1706년에 제작된 불교 목공예품으로 조선 후기에 제작됐던 일반적인 경상 양식에 비해 앞선 양식을 지니고 있는 귀중한 불교 목공예품으로 평가받았다.

하성미 기자

부산 · 경남, 행사 메르스 여파로 연기

대원사 사찰음식 축제 7월 초로

메르스의 영향으로 부산 경남 각 사찰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이 대거 연기됐다. 지리산 대원사(주지 묘명)는 6월 13일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내 조산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축제’를 다음 달인 7월 초로 잠정 연기했다.

문화교류와 화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각국 음식과 사찰 음식이 함께 전시되어 소통을 꾀하며 건강한 음식 먹거리를 널리 알리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대원사 템플스테이 담당 혜성스님은 “이번 축제는 대중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먼저 다가가는 마음으로 준비해 더욱 뜻이 깊다”며 “메르스 때문에 연기되긴 했지만 처음으로 사찰이 아닌 대중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니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개최하는 호국영령위령제 및 보훈가족위안행사도 6월 12일에서 6월 29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17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부산 화명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개최되며 보훈단체 및 유가족과 내 · 외빈을 초청 한 가운데 호국영령의 위령제를 시작으로 추모식이 진행된다. 또 행사를 준비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보훈유가족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 등도 열린다. 이날의 행사는 부산북구청과 부산지방보훈청, 부산불교연합회와 53사단이 후원하며, 53사단의 군악대연주와 조총발사 등으로 엄숙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은 매년마다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개최하는 ‘제 14회 혜원음악회’와 ‘제 18회 혜원 청소년 백일장’도 6월 13일에서 잠정 연기 됐다. 지역 사회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은 혜원 음악회는 인기 가수 출연과 격조 높은 문화 콘텐츠가 마련되며 백일장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 및 장학금도 전달한다.

하성미 기자

“소통과 화합으로 포교에 새바람 일으킬 터”

연제구불교연합회장 진효 스님 선출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 회장에 마하사 주지 진효 스님(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부산연제구불교연합회는 지난 6월 9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진효 스님〈사진〉을 선임했다.



이에 진효 스님은 앞으로 ‘지역적 성격 및 특징 파악’ 및 ‘연제구불교연합회의 소통과 화합’에 매진할 것을 밝혔다. 진효 스님은 “부산에 온지 3년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소임을 맡게 된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 일 것”이라며 “지역 정서를 뿌리 깊게 아는 연합회 스님들과 화합해 지역민들을 위한 행사와 발전 그리고 포교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나누고 함께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연제구는 시청과 경찰청 등이 자리 잡은 행정중심지역으로 중요도가 남다르다”며 “이 지역에서 불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스님들과 의논하고 계획을 나눌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보련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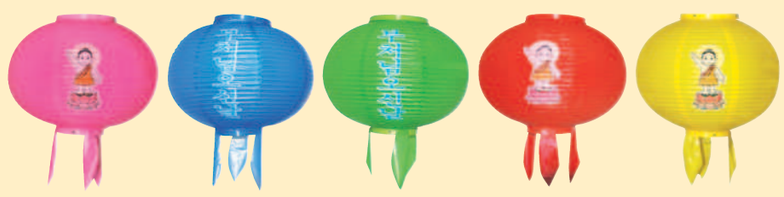
| 인등시공 |







만 월 등



극락왕생등



공 단 등



황 금 등



영 가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귀신 잡는 해병 마음공부 하는 자비 도량

호국보훈의달… 군법당을 찾아서
② 해병대 2사단 김포 호국 청룡사


예전 기무사 자리에 세워진 호국 청룡사. 다른 군법당과 달리 2층 높이에 사무건물과 같은 이색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청룡사 법당 내의 모습. 외부와 달리 비좁다



청룡사는 무위도 병원과 주차장이 맞닿아 있다.

'귀신잡는 해병' 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해병대 2사단 청룡부대로 인해 나온 말이다.

1965년 9월 파월 특수교육훈련을 거친 2해병연대를 기간으로 제2해병여단 청룡부대가 편성됐으며 이들은 베트남에서 맹위를 떨쳤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귀국한 이들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강화와 김포의 방어임무를 맡게 되고 상륙사단을 증편됐다. 이런 용맹한 해병전사들이 신행생활을 영위하는 특별한 군법당이 있다. 바로 김포 청룡사다.

강화도와 맞닿은 김포 통진읍에 자리한 청룡사는 2층 건물 높이의 대웅전과 요사채, 공양간 종각 등 4채의 건물로 이뤄져 있다. 청룡사가 사실 현재 김포 통진읍에 자리한 것은 사연이 있다. 청룡사가 위치한 자리는 당초 해병대 기무사가 있던 곳이었다. 1983년 2사단이 이전하며 이 터가 영외지로 남게 됐지만 어떤 관련 시설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기가 너무 쎄고, 안좋은 기운이 있다는 말이 돌면서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법당을 짓자는 것이었다. 1984년 불사가 시작됐고, 기무사 건물을 활용해 현재의 법당이 생겨났다.

그래서 일까. 지금의 청룡사는 사찰이라기 보다는 다소 높은 사무실 건물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다. 내부의 삼존불이 모셔진 대웅전도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다소 비좁다. 하지만 청룡사는 해병들과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실 이 지역에는 30년이 넘은 고찰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청룡사에서 신행생활을 영위한다. 매번 법회마다 장병 300명 가량에 일반 신자도 100명 가량 찾고 있다. 최근에는 김포신도시가 들어서며 더욱 신자들이 늘었다. 또 육군 17사단과 포병대대의 장병들도 청룡사를 찾고 있다. 현재 주지법사를 맡고 있는 혜운 이경일 법사도 "해병대 법당이지만 민간인 불자가 많다"며 "일요일의 경우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 법회를 하고 있으며 수요일에도 법회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청룡사는 10년전인 2005년까지만 해도 인근에 위치한 애기봉에서 봉축법회를 열기도 했다. 병자호란 때 평양감사와 기생 애기와의 슬픈 일화가 서려 있다는 애기봉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에 솟아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남북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154고지로도 유명하다. 1971년 등탑이 세워지며 청룡사는 이 곳에서 봉축법회를 열었지만 6·15남북선언 이후 법회는 보지 않고 통일염원의 등만 밝히고 있다.

청룡사는 다른 군법당보다 더욱 많은 장병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병대의 특징은 경비작전이 많다는 것이다.

수도 서울에 인접한 해안지역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비근무는 야간에 이뤄진다. 청룡사에서는 수요일과 일요일 장병들이 편히 쉴수 있고,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청룡부대, 베트남전서 맹위 떨쳐
1984년 예전 기무사터에 법당 세워져
매 법회 때마다 장병 포함 4백여 명 참여
2005년까지 애기봉서 봉축법회 열기도

이와 함께 위문도 수시로 이뤄진다. 혜운 이경일 법사는 "사실 이 지역은 도서지역이 함께 있어 1개 사단으로 막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넓은 지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장병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운 법사는 "그렇기 때문에 법회와 함께 장병들이 편히 쉬게 하도록 하고 있다. 지대방을 만들어 병사들끼리 놀수 있도록 구성하고, 장병들이 법당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 보다 법사들이 장병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병 2사단 내 총기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13년부터는 전등사와 함께 장병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다. 일요일 2~3시간의 법회만으로는 신세대 병사들을 순화시키는데 한계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 지휘관들도 지역과 연계해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여건상 매회 30명 안팎의 장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달 한차례 진행된다. 주차장이 맞닿아 있을 정도로 가까운 무위도 한방병원, 통진두레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천도기도사찰과 문화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김포지역 화재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건 당시 천도재가 진행된 곳도 바로 청룡사다.

이와 함께 지역 자체가 워낙 범위가 넓기에 청룡부대 군종장교들은 찾아가는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2사단 내에는 군목사 3명, 군신부 1명, 법사 2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종교를 넘어 유기적인 협동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혜운 법사는 "1주일에 2~3번 씩 위문을 가는데 계획표에 따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불교를 넘어 보다 많은 장병들이 종교를 접하고 군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포=노덕현 기자

안보관광 볼거리


▲애기봉 전망대

애기봉은 높이 155m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에 솟아 있다.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평안감사가 애첩 '애기'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다가 청군에게 끌려가고, 애기만 홀로 남아 매일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병들어 죽어 묻힌 곳이라고 전해진다.

▲문수산성

청룡사 인근 문수산에는 조선 숙종 때 쌓은 석성인 문수산성이 있는데 둘레가 15리에 달한다. 산성 안에 문수사가 있으며 흥룡사(興龍寺)도 문수산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사적 제139호인 문수산성은 1866년(고종 3년) 병인양요(丙寅洋擾) 때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여기서부터 애기봉, 청룡부대까지는 평화누리길이 이어져 있다.

▲김포함상공원



김포함상공원은 김포 대곶면 대명리 대명항 부두에 있는 공원으로 퇴역한 상륙함으로 조성한 수도권 유일의 함상공원이다. 과거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으로 활동했다가 2006년 퇴역한 'LST 671 운봉함' 을 개조하여 해군본부가 김포시에 기증하게 되었고 현재는 김포시에서 관리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공원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공원에는 해상초계기, 수륙양용차, 단정 등이 전시돼 있다.

"장병 위한 거점법당 불사에 관심을"

신축불사 진행하는 혜운 이경일 법사


청룡사는 현재 신축법당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사단 내 거점법당인 호국 화랑사가 노후화로 인해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포지역은 영외인 청룡사와 민통선 내의 호국 화랑사로 이뤄져 있다. 화랑사는 1979년 지어진 이 지역 최초 법당이지만 도저히 법회를 볼 수 없어 현재 군종교구와 지역사암연합회 차원에서 불사모연에 들어간 상태다. 청룡사는 그 불사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혜운 이경일 법사는 불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혜운 법사는 "당초 민통선 내 호국 화랑사로 인해 야간근무를 선 장병들이 법회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불사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지치고 피로한 병사들은 법당에 찾아올 힘조차 없습니다. 민통선 내에서는 대부분 야간 근무를 서는데 영외에 위치한 법당에 오기엔 힘들죠. 찾아가는 법회로 조금이나마 많은 장병들이 부처님 말씀을 접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념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회장 석도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혜광사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3개 층 신라인들의 돈독한 불심 상징

탑의 진화

㊳ 13층 불탑

이번 호에는 13층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양문화에서 13이라는 숫자는 불행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13을 기피하였고, 건축물에서도 13층은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불교에서 13이라는 숫자는 시간과 공간을 어우르는 위대한 포용의 숫자이다. 평면적 상징의 8방에다 하늘과 땅을 더하면 10방 세계로 온 우주를 상징한다.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세상인 삼세(三世)를 더하면 13이란 숫자가 나온다. 즉 13이란 시방삼세(十方三世)를 의미한다. 또한 〈대방광불화엄경변상도 제39 – 십지품〉에서는

법운지에서는 백만아승지삼매를 이루고, 삼매 가운데 문득 보배연꽃이 나오니… 〈중략〉… 꽃 가운데 연실(蓮實)이 있고, 보배 그물과 십삼천대천세계 미진수 연꽃으로 권속을 삼아서, 꽃 위에서는 보살들이 앉아, 대보살을 향해 일심으로 우러러보고 있다.

라고 하여 우주를 13천세계라 하고, 밀교에서는 13대원(十三大院) 또는 십삼대회(十三大會)라 하여 온갖 중생이 갖추어 있는 본덕(本德)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 변지원(遍知院) · 석가원(釋迦院) · 문수원(文殊院) · 지명원(持明院) · 허공장원(虛空藏院) · 소실지원(蘇悉地院) · 연화부원(連華部院) · 지장원(地藏院) · 금강수원(金剛手院) · 제개장원(除蓋障院) · 외금강부원(外金剛部院) · 사대호원(四大護院)을 말하는바 이것이 바로 태장계만다라이다. 이 외에도 〈인왕반야바라밀경〉에는 13관문과 능엄결단13종, 〈관무량수경〉의 13관, 13불, 13력, 13사법, 13종생여래신, 아미타불13명호 등이 13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둔다. 이처럼 13이란 숫자의 의미는 불교에서는 우주의 상징 외에도 매우 중요한 법수(法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탑의 층수에도 당연히 적용되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13층 불탑을 오랜 시대에 걸쳐 꾸준히 조성해 왔다. 우리나라의 국보에 해당하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유물로 지정된 13층탑의 예를 들면, 북경의 자수사탑(慈壽寺塔)**〈사진1〉**과 천녕사탑, 감숙성의 탑아만조상탑(塔兒灣造像塔), 길림성의 농안요탑(農安遼塔)**〈사진2〉**, 사천성의 무량보탑(無量寶塔)**〈사진3〉**과 구주탑, 성덕사탑, 중경의 대족다보탑(大足多寶塔)**〈사진4〉** 등등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기가 현존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13층탑은 중국전역에 걸쳐 조성되어 왔지만 사천성의 보광사 13층탑 등 몇 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송나라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역사적 의미가 심중한 정혜사지13층탑**〈사진5〉**이 현존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정혜사(淨惠寺) 터에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흔적은 13층의 석탑 한 기뿐이다. 하지만 이 탑은 정혜사의 옛 모습을 홀로 대표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존재감을 자랑한다. 또,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62년에 국보 제 40호로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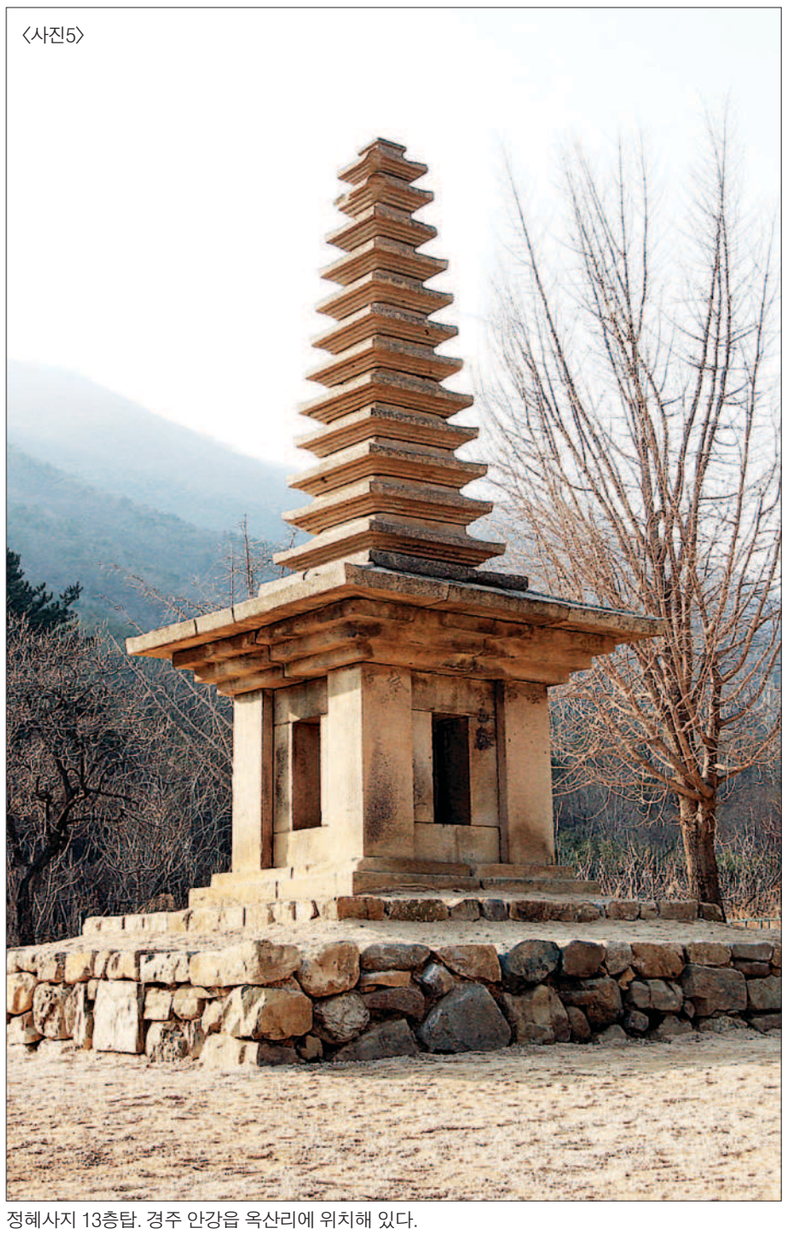
정혜사지를 찾는 참배객의 이목을 가장 먼저 끄는 것은 바로 이 13층석탑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외관일 것이다. 높이 5.9m로, 탑의 층수가 13층이나 되지만 다른 지역에 남아있는 다층탑에 비해 높이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 이유는 1층 기단의 높이가 매우 높은 데 비해, 탑신부에 들어서

13천 시방삼세를 의미해
13 대원의 중생대원도 내포

서는 그 높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하여 표현하면, 몸돌이 거의 보이지 않고 지붕돌만 차곡차곡 쌓여 탑신부를 이루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이 탑은 당나라 백우경이 창건하였다는 정혜사와 그 역사를 함께 한다. 정혜사와 13층석탑에 관한 기록은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1933년에 최준(崔浚)이 〈동경잡기(東京雜記)〉를 수정, 보완하여 펴낸 동경통지 (東京通志)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경통지는 경주의 역사를 기록한 지지(地誌)인데,


〈사진5〉
정혜사지 13층탑. 경주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해 있다.

정혜사의 정확한 창건연대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신라 선덕왕 때의 기록을 통해 그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제7권 불사편(佛寺篇)에 보면 『淨惠寺惠址 在紫玉 山下 新羅 宣德王庚申 唐朝僉議事白宇經 被讒來寓干紫玉山下 建迎月堂萬歲庵 宣德王幸行改庵爲淨惠寺爲景春 云云』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백우경은 자옥산(紫玉山) 아래에 자리를 잡고 경치가 뛰어난 터를 골라 영월당(迎月堂)과 만세암(萬歲庵)을 세웠다. 그러자 소식을 들은 선덕왕(宣德王)이 친히 찾아오기도 하였는데, 후에는 암자를 '정혜사' 라 고치고 당은 '경춘' (景春)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가 자옥산 아래 영월당과 만세암을 지우니 선덕왕이 몸소 찾아와 만세암을 정혜사(淨惠寺)라는 이름으로 고쳤다." 라는 내용이다.

백우경은 중국 黃帝軒轅(황제헌원)의 후

통일신라 정혜사 탑 대표적
현재 10층만 남아 복원 시급

손으로 당나라 詩聖(시성) 白樂天(백낙천)과 사촌간이며, 우리나라 수원 백씨의 시조이다. 그는 중국 소주(蘇州) 사람으로 당나라에서 첨의사 좌복야 사공 대사도 등을 지내다가 간신들의 참소를 받아 780년 (선덕왕 1)에 신라에 귀화하여 계림의 자옥산 아래 (지금의 월성군 안강읍 옥산동)에 살면서 신라에 벼슬하여 대상에 이르렀다. 백우경과는 이러한 인연이 있는 정혜사는 세월이 흘러 모든 전각은 없어지고 현재는 13층석탑만이 남아 보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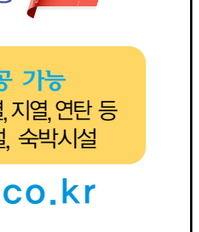
기록을 통해 정혜사는 8세기 후반에 창건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고, 이곳에 남아있는 13층석탑 역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혜사지 석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탑의 양식이다. 당시 신라의 석탑에서 유행하던 이층기단이 아닌 하나의 단층기단으로 이루어졌으며 1층의 탑 몸돌이 매우 거대한 데 비해 2층부터는 지붕돌이 촘촘히 쌓아져, 전탑에서 나타나는 밀첨식 양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밀첨식으로 탑을 조성하는 방식은 중국의 다층 밀첨식 목탑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정혜사지 13층석탑에서 이러한 양식이 나타나는 것은 정혜사를 조성한 백우경이 당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와의 연관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 지난 연재에서 알아 본 신라 망덕사 13층탑 역시 당나라와 큰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전해진 이러한 13층 양식이 정혜사 13층탑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탑의 층수가 중국의 13층탑과 같을 뿐, 탑의 전체적인 형태나 모양에는 큰 차이가 있어, 정혜사의 13층탑은 신라의 예술성과 기술력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을 것이다. 타국의 문화 양식을 수용하여 자체적인 해석을 통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불탑을 완성도 있게 조성한 신라인들의 신앙심과 예술혼이 돋보인다.

조선시대까지 잘 보존되어 온 정혜사는 여러 문인들의 공부방으로 쓰이기도 하고 서원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등 존립에 위기를 맞다가 결국 1834년에 발생한 화재를 끝으로 폐사되고 말았다. 또 정혜사지에 남아있는 13층탑 역시 1911년에 도굴될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도굴꾼 여럿이 상륜부를 들어내고 탑의 위로부터 3층까지 해체했을 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도둑놈이야, 도둑놈!"이라고 소리를 질러 탑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22년에 탑이 다시 복원될 때까지 도굴꾼들이 땅에 버려둔 탑재를 되돌려 놓지 못해 그 때까지 정혜사 13층탑은 10층탑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도굴될 위험에 처한 직후 바로 복원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탑 상부는 영영 잃어버려 현재 탑에는 상륜부 없이 노반만이 남아있다.

이처럼 지금은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있지만 13이라는 숫자에 담긴 불교적 세계관과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정혜사지 13층탑이 갖는 종교적 ·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이다. 더불어 정성스레 쌓은 13층탑의 모습에서 당시 신라인들이 탑 안에 담아낸 불심(佛心) 또한 얼마나 깊고 큰 것이었을지 짐작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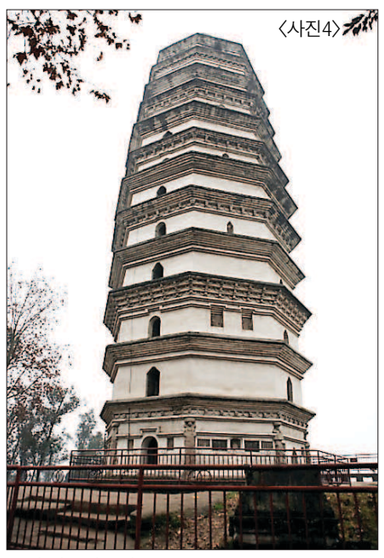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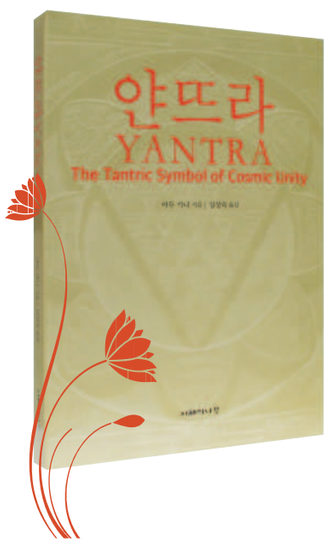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북경 자수사탑


〈사진2〉
길림성 농안요탑


〈사진3〉
사천성 무량보탑


〈사진4〉
중경 다중다보탑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JJUN Heating System Mo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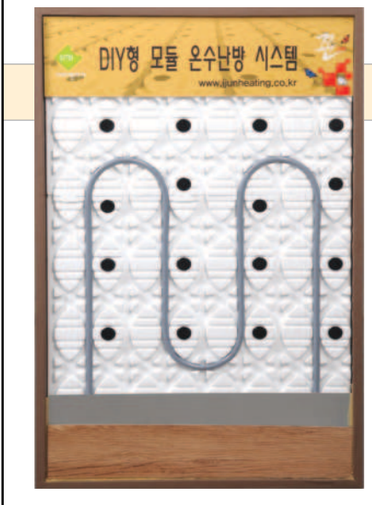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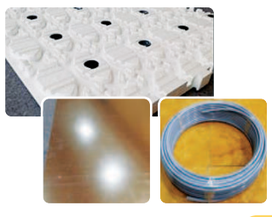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1 02 03 04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진주 : 010-3583-7139
익산 : 010-6610-2337
수원 : 010-5211-7260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여수 : 010-3612-7784
남양주 : 010-9183-9729
김천 : 010-9091-4583
서광주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좋은 法과 스승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⑤ 원숭이 왕, 어디를 헤매이나



그림 · 최주현

얼마나 많은 풍파를 헤쳤던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던가?
그런 얘기는 서유기에 안 나오지만
뗏목으로 큰 바다를 건넜으니
그 어려움이야 말할 필요가 없지.
아무튼 기적적으로 무사히 원숭이 왕
남섬부주라는 대륙에 이르렀네.

원숭이의 기본 재주가 바로 흉내내기 아니던가?
원숭이 왕 기본 재주에 더해 온갖 재주 다해
사람 흉내내기로, 사람 사는 곳으로 잠입
인간의 말과 예의범절을 배웠네.
원숭이 닮은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쫘악 퍼졌던가?

그런데 이 남섬부주 사람들 하는 짓 봐라!
본받을 게 하나도 없구나.
덧없는 것에 골몰하여
온갖 쾌락 추구하고
허영과 거짓이 가득하구나.
에잉! 원숭이 세상만도 못하네.
이런 곳에 어찌 죽음을 벗어날 오묘한 도가 있겠는가?
실망한 원숭이 왕 또 다시 배를 띄웠구나.

또 큰 바다를 다시 건너니
서우하주라는 대륙이 있구나.
이리 저리 다니다 보니
자태도 수려한 큰 산 있다.
정상에 올라 두리번거리는데
홀연히 숲 속에서 노래 소리 들린다.
가락도 구성지지만
그 속에 담긴 뜻 맑고도 오묘하구나.
우와! 기뻐라!
신선이 여기 계시구나.
숲속으로 달려 들어가 보니
땔감 짊어지고 도끼 든 나무꾼
나무꾼이면 어떠냐?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지.
"스승님, 제자 절 받으세요!"
도를 구하는 마음에 가득찬 원숭이 왕
넙죽 절을 올렸네.

에엣? 스승님?
나 그냥 나무꾼인데…
얼굴 빨개진 나무꾼 손을 홰홰 젓는다.
그렇다면 도의 기상이 가득 찬 그 노래는요?
가까운 곳에 신선 한분이 계시는데
그분께 배운 거여.
마음이 괴롭거나 할 때 부르면 참 좋거든.
그래요? 그럼 그 신선은 어디 사는데요?
음, 공짜로 가르쳐 주기는 좀 아깝지만
절 받은 빚도 있으니 특별히 가르쳐주지.

드디어 원숭이 왕이 '스승 찾아 3만리' (실제로는 3만리가 훨씬 넘지만) 머나먼 여행을 거쳐 스승 계신 동네에 도달하는 대목이네요. 이 대목에 오게 되니 알 수 없는 말들도 몇 개 나옵니다. '남섬부주' 니 '서우하주' 니 하는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고대 인도와 불교에서 생각하는 세계의 모습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대방촌산(靈臺方寸山)' 이니 '사월삼성동(斜月三星洞)' 같은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 이름들도 있죠? 그것도 좀 해설해야 할 듯 합니다.

원숭이 왕이 어디를 헤매고 있었나요? 위에 글을 보면 이미 '서우하주' 까지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군요. 원숭이 왕이 태어난 곳은 '동승신주' . 거기서 일단 '남섬부주' 로 갔다가 다시 '서우하주' 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동승신주, 남선부주 등의 지명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히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4개의 큰 대륙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아니, 이건 불교 고유의 것이 아니라 고대 인도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아무튼 네 개의 대륙은 그 놓인 위치에 따라 '동승신주(東勝神洲, 또는 東勝身洲)' , '서우하주(西牛賀洲)' , '남섬부주(南贍部洲)' , '북구로주(北俱蘆洲)' 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개의 대륙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옛날 인도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세계의 중심에는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아래쪽에 바람 바퀴가 있고, 그 위로 물 바퀴, 쇠 바퀴가 겹쳐 있다 하죠. 그 쇠 바퀴 위로 아홉 개의 산과 여덟 개의 바다가 둘러 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산과 산 사이에 바다가 있는 셈이죠. 그 여덟 바다의 가장 바깥쪽 바다의 사방에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 개의 대륙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있는 수미산의 허리 사방에 사천왕(四天王)이 살고 있으며, 꼭대기에는 제석천(帝釋天)의 33천(天) 궁전이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계라고 보는 것이 고대 인도인의 세계관이었고, 그것이 불교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했느냐?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의 세계가 천개 모이면 하나의 소천세계(小千世界)가 되고, 이 소천세계 천개가 모이면 하나의 중천세계(中千世界)가 되며, 중천세계 천개가 모이면 하나의 대천세계(大千世界)가 됩니다. 하나의 대천세계 속에는 소천, 중천, 대천이라는 세 개의 천(千) 세계가 있다고 해서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라 부르죠. 그러면 이 삼천대천세계에는 과연 몇 개의 세계가 있는 셈일까요?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또 이런 삼천대천세계가 하나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우주에는 무수한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천문과학의 우주론을 뺨치는 상상력, 인도인의 무한한 상상력에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선부주부터 서우하주까지
망망대해 다니며 '스승 찾기'

〈서유기〉 속 생소한 지명은
인도 및 불교 세계관에 근거
남선부주는 사바세계를 의미
"참고 견뎌야 진리를 이룬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인도'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먼저 연상되시는지요. 아마도 불교, 요가 등이 먼저 떠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개 인도는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방면에 관련된 것들이 연상됩니다. 아마도 종교로는 불교를 통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이 보급된 요가를 통해 잘 알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초기에 보급된 요가는 주로 이상한 포즈를 통해 육체적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요가의 한 부분이며, 또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요가의 궁극은 그런 기본적인 수련을 거쳐 결국 신과의 합일, 또는 완전한 자아의 실현을 체험하는 명상에 있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인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주로 이러한 것들이어서 인도는 당연히 종교적이고 금욕적이며, 명상적인 방면에 치중하는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그렇게 하나의 측면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한 지인이 인도에 다녀와서 저에게 선물 2가지를 줬습니다. 하나는 염주알 하나 하나가 해골인 '해골염주' 였습니다. 그걸 돌리면 자연스럽게 생(生)의 무상을 생각하게 마련이죠.

다른 하나는 '카마 수트라 수투파' 의 기념 우편 엽서였습니다. '카마 수트라' 를 번역하면 '애욕의 경' 이라는 뜻입니다. 그 애욕의 경에 나오는 성행위의 여러 체위를 묘사한 조각들로 사면을 장식한 탑, 그것이 바로 '카마 수트라 수투파' 입니다. 현대의 포르노그라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사면을 꽉 채우고 있는 탑입니다.

해골 염주와 '카마수트라 스투파' ,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그리고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인도에는 함께 공존합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해탈(解脫)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기는 했지만, 그 밖에도 사회적 의무와 애욕의 추구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최고 계급이었던 브라만들은 인생을 네 단계로 구분해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 스승의 지도를 받아 규범과 의무를 배우는 시기, 어른이 되어 자손을 두어 가정생활을 하는 시기, 일선에서 물러나 숲에 머물면서 청정한 생활을 하는 시기, 하나의 숲에 머무는 것도 버리고 떠돌며 수행하는 시기. 그 마지막 시기에 추구하는 것이 완전한 해탈이라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시기에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카마' , 즉 애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창녀는 상당한 자부심과 권위의식을 지녔었다는 설(說)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 자신들이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제 샛길로 갔던 이야기가 본래 줄기로 돌아옵니다. 우리 원숭이 왕은 우선은 큰 바다를 건너 '남섬부주' 로 갔네요. '남섬부주' 는 어떤 땅이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섬부주는 음역이기에 어떤 경전에서는 염부제(閻浮提)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범어로는 'jambu-dvipa' 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통틀어 사바세계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시죠? 절에서 축원할 때 "사바세계 남섬부주 해동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인간 세상의 총칭인 사바세계의 뜻은 '참고 견뎌야 살 수 있는 곳'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참고 견뎌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좌절되면 울고불고 원망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원래 참고 견뎌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담담해져서 큰 절망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세상은 본디 괴로운거야"하면서 울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저의 좌우명을 소개해 드린다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

땅에 떨어진 불교의 위상 군소종단들이 하나로 뭉쳐 불교를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됩시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종단 지도자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마음에 뜻이 같지 않으면 순식간에 등돌리고 무리져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부실종단 지도자들은 더 이상 먹물 옷을 욕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실종단이 난립하니 승려의 자질과 역량이 사회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수행자의 출현이 아쉽다는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우려 아상과 독선, 옹고집 명예와 권력야욕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은 다르나 모임에는 통합되고 단결된 종단들이 되어 불교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다져야 합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불교에 누를 끼치는 종단에서 벗어나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됩시다. 가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 정식 법인 등록된 종단 및 단체가 가입 자격이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팩 스 02)733-5615. H.P : 011-229-6061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승려교육 통일. 품수통일 불교행사통일 종단활동 지원 가사 통일
단일금강계단 설치하여 합동 품수식 및 합동 수계법회. 단일 합동 고시위원회 활성화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 宗團 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 高僧長老團.
世界佛教 考試委員會. 大韓佛教 大宗師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 宗團 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그늘진 곳에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하는
봉사단 불자를 모십니다.
불자라면 남,녀 누구나 환영합니다.

나의 '業'이 지금의 나를 결정짓는다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8. 인간 형성(形成)의 원리 ㊦

인간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경전들이 말하는 바는 특히 그 중심을 이루는 두 개의 게(偈)에서 강조한 것처럼 2가지의 측면에 관련된다. 그 하나는 종래의 바라문적 원리의 부정이며 그 두 번째는 그것에 대신하는 새로운 원리의 제시이다.

두 가지의 측면 가운데서 종래의 바라문적 원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소극적인 일면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게(偈)를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붓다가 바라문적 사회제도인 카스트에서 명백하게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은 결코 뜻없는 일은 아니었다. 거의 3천년에 이르는 카스트의 긴 역사에서 그 명백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오직 다만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중대한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인도 민중의 생활에 해독을 끼치고 있다. 만일 붓다를 카스트 제도에 반대한 사회 개혁자(改革者)로 본다면, 그는 사회 개혁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전은 그가 사회개혁자로서 행동한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더 잘 형성될 수 있을까 그 한가지 점에 있었다. 그리고 인간 형성을 위한 최대의 요인(要因)으로서 '행위'를 주장하였다. '행위'야말로 인간을 결정하는 최고의 원리라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두 개의 게(偈)가 뜻하는 바는, 무엇보다 먼저 이 주장에 관련되고 있다.

물론 인간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만은 아니다. 경전은 가끔 '사대소성(四大所成)'의 인간을 말하고 있다. 인간은 이것을 물질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물질적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 우리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 경전은 때로는 '음식소성(飮食所成)'의 인간을 말하기도 한다. 사람은 밥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다시 또 경전의 말은 '부모소성(父母所成)'의 인간도 말하고 있다. 부모 없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자질(資質)도 그 육체도 환경까지도 부모로부터 얻는 것이 매우 많다. 이것도 또한 누구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라문들은 그 '출생'을 인간 결정의 원리로서 가장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은 그 출생에 따라서 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 출생에 따라서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그 '출생'으로써 인간결정 최고의 원리를 삼는 바라문의 견해를 배척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육체적인 조건에 지배되는 경우도 많다. 또 '출생'에 의해서 지배되는 일도 많다. 그러나 그런 것은 모두 소여(所與)이며 그 소여(所與)를 출발점으로 하면서 사람은 스스로를 형성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출발하여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만들어 간다.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붓다가 그 관심을 집중한 점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자기형성 작업에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인간형성을 위한 최대의 요인은 '행위'가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업설(業設)인 것이다.

업(業)의 넓이와 깊이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또한 사람은 그 '출생'에 의해서가 아니며 그 '행위'에 의해서 가치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의 편에 선다. 따라서 불교의 업설(業說)은 우리들의 견해와 전혀 이질적(異質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날 우리들의 견해와 불교의 업설 사이에는 주의해야 할 몇 가지의 상이점(相異點)이 있다.

그 첫 번째는 '행위'라는 말이 갖는 깊이와 넓이에 관해서이다. 우리들은 '업(業)'이란 말을 '행위'라고 번역한다. 그것은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도 불교에 있어서가 훨씬 더 넓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들이 행위라고 말할 때는 거의 몸으로 행하는 행위만을 뜻한다. 그런데 불교에서 '업'이라고 말할 때는 다시 입에 있어서의 행위 즉 구업(口業) 및 마음에 있어서의 행위 즉 의업(意業)까지도 포함한다.

사람은 몸에 있어서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또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한다. 아마 오늘날에 있어서는 몸으로 해서 생기는 행위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는, 말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더 많으며, 또 훨씬 더 심각하다. 사랑하는데 있어서도 몸에 있어서의 행위는 훨씬 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 의업(意業) 즉 마음에 있어서의 행위는 시작하면 구업(口業)이 되며 또 신업(身業)이 되는 그 근원이기 때문에 불교는 여기에 가장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가장 중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로 신업(身業)만을 문제로 삼는 좁은 견해는 불교의 소위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을 문제로 하는 넓은 견해에 많은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된 전등사 업경대. 인간의 죄업을 그대로 비춘다는 거울이다. 이 같은 지옥에 대한 묘사는 스스로의 행동을 삼가해 선업을 쌓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바른 인간 형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 두 번째에는 그 '행위'가 맺는 결과에 관해서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행위'의 결과를 말할 때는, 우리들의 관심은 주로 그것이 바깥에서 맺는 결과에 초점이 쏠린다. 그것과는 반대로 불교의 업(業)에 대한 사고방식은 그것이 바깥을 향해서 맺는 결과와 함께 안을 향해서 맺는 결과에 대해 더 관심을 쏟는다. 예를 들면 도적질을 한다는 하나의 신업(身業)은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재물을 잃는다는 것 외에도, 혹은 그것이 탄로가 나서 그가 벌을 받는다는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의해서 그는 자기 스스로의 인간형성에 있어 지울 수 없는 오점(汚點)을 남긴다는 점이다.

또 예를 들면 사람을 악담한다는 하나의 구업(口業)을 들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때 악담을 들은 자가 불쾌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그 자신은 마음속에 비참한 느낌을 가질 것이며 또 그 자신의 인간 형성에 좋지 못한 면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자설경(自說經)〉의 한 게(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선(善)을 일삼는 자에게는
선은 행하기 쉬우며
악(惡)을 거듭하는 자에게는
선은 행하기 어렵다.

그것은 '행위'가 인간형성의 요인(要因)임을 단적으로 말하는 말이다. 거기에서 불교의 소위 숙업(宿業)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겨난 것이다.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업(業)이며 오늘 내가 이러한 인간으로서 있는 이유는 모두 내 과거의 업(業)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들의 표피천박(表皮淺薄)에만 머무는 행위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주목해야 할 깊은 것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숙업(宿業)을 설명함으로써 마침내 숙명론(宿命論)에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지나친 일은 우리들이 충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좌선에만 치중말라

중국의 임제선사는 그의 어록에서 참선하는 수행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좌선(坐禪)을 기본으로 하되, 가고(行), 머물고(住), 앉고(坐), 눕고(臥), 말하고(語), 침묵하고(默), 움직이고(動), 고요할 때(靜)에도 간절심 하나로 생각을 모아가라는 것이다.

같은 의미이기는 하나 조금은 다른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다. 청원 선사에게는 마조라는 제자가 있었다. 마조는 날이면 날마다 나무 그늘 밑 바위에 앉아 좌선하는 모습으로 정진을 거듭했다. 어느 날 스승이 그런 제자에게 물었다.

"자네는 맨날 앉아 있는 자세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지요."

제자의 대답을 듣고 스승은 벽돌과 기왓장을 마련해 왔다. 그러고는 스승은 앉아 참선 중인 제자 곁에서 벽돌로 기왓장을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제자가 스승에게 대들 듯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벽돌에 기왓장을 문질러 대체 무엇을 얻고자 그리 요란스럽습니까?"

스승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벽돌에다 기왓장을 문질러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제자가 조소 투의 핀잔을 던졌다. "백날 갈아보십시오. 기왓장이 거울이 될 수 없을 테니까."

그러자 스승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혜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면 그대 또한 백날 앉아 있어 보게. 부처를 이룰 수 없을 터이니."

다음은 육조 혜능에 대해서이다. 혜능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읊는 소리에 출가를 결심해 오조 홍인의 문하(門下)에서 행자로서 방아 찧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행자 신분으로, 머리 기른 거사 신분으로 오조 홍인 문하의 천여 명 정진 대중을 따돌리고 마음 열린 선지식이 되어 육조로서 오조의 법을 이었다.

육조 혜능은 사미계도 받지 않는 행자였고, 긴 머리도 자르지 않은 거사 신분에 그것도 출가 후 몇 개월만에 부처를 이루었다.

제발이지 한국 불교계, 특히 선원을 중심으로 안거 관록을 앞세우지 말 일이요, 좌선에만 치중해 훈련받는 병사처럼 잘 짜인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지 말 일이다. 자유는 틀에서 벗어날 때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대개 해석하길 '마땅이 머문 바 없이 그 생각을 내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머문 바 없이 생각을 내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와 부처정도의 경지에 이른 성자(聖者)들만이 가능할 일이다.

눈, 코, 귀, 입, 몸의 경계마다 생각의 생멸(生滅)이 되는 게 우리네 중생이다.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게 범부의 삶이요, 일상적 보편화된 생활이기 때문이다. 하여 이번에는 '이생기심(而生其心)' 부터 풀어보자.

말미암아 한 생각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거기에 집착해 머물지 말라.(應無所住) 중생들의 모든 병은 집착으로부터 비롯된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병이 되고 탈이 생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자유로워진다. 하여 버린 자는 얻는다. 비우면 가득하다.

앉아 있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무집착의 자유인 돼야 한다

'진공묘유(眞空妙有)'를 법정 스님은 텅 빈 충만으로 번역했다. 예지 넘치는 바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신도들에게는 베풂의 보시행을 입이 닳도록 강조하면서 스님은 주머니 털고 비우는 일에 인색하다면, 그것은 이솝우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율배반이 아닐까 싶다. 성경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다.'

비밀 통장이 있고, 비자금이 있고, 거기에 해가 거듭될수록 통장의 액수가 불어난다면, 그는 저축왕은 될지 모르나 출가 수행승은 아닐 터이다.

수행할수록 무소유(無所有), 무집착(無執着)의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비울수록 자유로워진다. 해탈을 이상향으로만 앞세우지 말고, 오늘 당신과 나는 빈주먹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진리를 알면 자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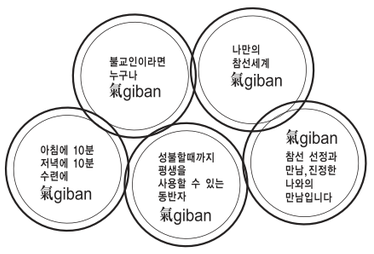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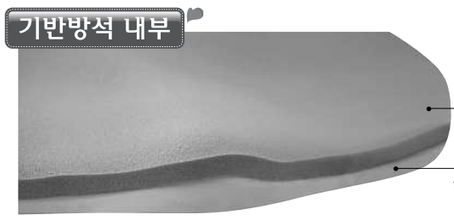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www.hyunbulshop.com

효당茶는 '불교+茶' … 대중화 40여년

채원화 원장 (한국 효당본가 반야로 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 1946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연세대 사학과 및 동대학원(한국사 전공)을 졸업했다. 1968년 효당 스님께 정식 입문하여 10 여 년간 원효 교학 수학 및 차도 수련을 했다. 1983년 7월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을 개원해 40여년 차도수련 및 '반야로' 고유 녹차제차에 매진, 효당 스님의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왔다. 현재까지 △파리주불한국문화원 초청 한국전통차도 문화행사 개최 △효당 최범술 스님 추모학술대회 개최 △한·불 수교 120주년기념 초청공연 △벨라루스 국립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공연 및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ISAA '러아대학 한국어교수 협의회' 창립기념 초청공연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 및 효당 차문화상 제정 수여 및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기념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사진=노덕현 기자

"차선일여(茶禪一如)라 하는데 차와 선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보통 선이라고 하면 좌선을 이야기하는데 좌선은 가장 효과적인 방편 중 하나죠. 차도에서는 간이 맞는 것을 중요시 여겨요. 짜고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등 이 육미(六味)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맞는 맛을 우려내야 해요. 이는 오랜 차도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일상에서 늘 화두를 들듯 차도를 통해 자신을 반추해 스스로를 닦는 것을 중요시 여기죠. 이는 개인을 넘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국가를 이루고 더 나아가 우주와도 합일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한국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채원화 원장은 차와 선의 연관성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는 1968년 효당 스님에게 정식 입문해 차도 수련을 한 이후 40여년 차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6월 15일 인사동에 위치한 반야로차도문화원을 찾았다. 북적이는 인사동의 한복판에서 고요히 차를 마시며 진정한 차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불교와의 만남에서부터 차도입문 반야로차도문화원 개원 그리고 최근 효당 최범술 스님의 문집발간까지 채원화 원장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았다.

진주의 수재 화두를 들다

진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채 원장은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수재였다. 출가를 한 외삼촌의 영향으로 다양한 문학서적을 읽었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삶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일었다. 화두였다.

그때부터 모든 일에 흥미를 잃었다. "부일 장학생(정수 장학회의 전신) 50명 중에 여학생으로는 1등을 할 만큼 공부를 잘했어요. 중3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을텐데 1등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니 너무 힘들었죠. 고등학교 진학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진주여고 전교 1등으로 입학할 줄 알았는데 2등을 했어요. 너무 창피했죠. 하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여전히 공부는 뒷전이었어요. 계속 마음속 의문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은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물도 삼킬 수가 없었다. 의문이 깊어질수록 몸은 점점 아파왔다. 출가를 하고자 시도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규제가 많은 비구니 사찰의 절생활이 저한테 잘 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출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그때 외삼촌께서 그 질문에 답을 줄 사람은 효당 최범술 스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효당 스님은 경남 사천 출생으로 독립이 될 때까지 국내외에서 동지들과 함께 항일 항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피검되어 옥고를 치룬 바 있다. 제헌 국회의원 국민대학 해인대학 해인고등하교 등의 설립에 참가했으며 〈만해한용운전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만년에는 오로지 불교인으로서 평생 전념, 원효 스님의 사상 및 그 교학의 복원과 연구에 전념하여 도제 양성에 힘을 기울였고 또한 잊혀져가던 차문화를 중흥시킨 인물이다.

외삼촌과 함께 경남 사천의 다솔사를 찾아갔지만 부산에 강의를 나간 관계로 만날 수가 없었다. 이후 다시한번 스님을 찾았지만 스님은 여전히 자리에 없었다. "그때 다행히 총무스님의 도움으로 스님의 방을 볼 수 있었는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차구들이 즐비했고 장서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으로 낡긴 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때 차구를 처음 보았는데 여지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듯했어요. 그 방을 보면서 스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 원장은 다음날까지 스님을 기다리기로 하고 다솔사 말사로 비구니 스님들이 기거하는 봉일암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본 종이쪽지 하나로 생의 일대 혁명이 일어난다.

"휴지 대용으로 걸어 놓은 종이 뭉치를 자세히 보니 거기에 어떤 글씨가 있었어요. 바로 반야심경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읽는 반야심경이었어요. 원문과 한글이 번갈아 가며 써있었는데, 바로 최범술 스님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최종으로 봤던 교정본이었어요. 거기에서 '공(空)'이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일었어요."

반야심경의 내용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 헤매던 여고생 채원화에게 큰 해답을 주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미완성을 향해 가지만 결국은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해답을 얻었으니 최범술 스님을 만날 필요도 없이 다음날 아침 산을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물도 넘어가고 밥도 넘어갔어요." 이후 학교로 복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래보다 2년 늦게 연세대 사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다.

졸업논문 위해 효당 스님과 첫 대면
이후 10여년 동안 다솔사에서
원효 교학 공부와 차도 수련

茶는 치우침 없는 중도의 가르침
1983년 반야로 차도문화원 개원
30여년간 제자 120여명 배출
차도·선차법·수식관·선시 등 지도
2013년 효당차문화상 제정

효당가 제차법 전하며 차문화 보급
프랑스 러시아 등 해외 초청 차도 시연

효당 스님과의 만남, 차의 맥을 잇다

대학시절 불교에 심취해 있던 채 원장은 졸업논문으로 원효사상에 대해서 쓰고자 지도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한다. 그때 담당 교수는 다솔사의 효당 스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해준다.

"고등학교 때 두 번이나 만나뵙고자 했지만 못 만났는데 논문 지도를 받으며 결국 뵙게 되었죠. 스님을 보는 순간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맑은 기운에 압도당했어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도인 같은 분이셨죠. 인간적으로 또 도학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불교에 대해 심도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채 원장의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불교가 기복적이며 위협적인 종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스님을 만나면서 불교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효당 스님의 제자로 입문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솔사에서 머물며 스님을 모시고 원효교학을 배우고 차도를 수련했죠."

이후 1979년 효당 스님이 입적을 하고 3년 정도 다솔사에서 차도를 이끌었던 채 원장은 1983년 반야로차도문화원을 개원했다. 효당 스님의 제다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반야로차도문화원의 반야로(般若露)는 만물의 참다운 실상을 깨닫고 불법을 꿰뚫는 지혜의 이슬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차를 마실 때 한 방울 한 방울이 몸을 정화시켜 지혜가 넘치고 자비가 충만한 마음으로 중생을 하나로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차도(茶道)란 차 마시는 일상적인 일을 도에 붙여 이른 말입니다. 선차도(禪茶道)란 차 마시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 직관적인 선의 경계에 가 닿는 것을 말하지요."

차와 선은 한결같이 온 몸과 마음을 기울여 참구하여야만 그 경계가 터득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선일미(茶禪一味) 차선일체(茶禪一體)라는 말은 차를 달여 마시며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일체감을 체득하는 것 그것이 견성이라고 채 원장은 말한다.

"차는 내용과 형식 모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차도가 외형만 강조한다고 나무라기도 하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의례를 무시하고는 살 수 없으니 때와 장소에 맞는 정돈된 선차 양식이 필요합니다. 차에 간을 맞추는 경지는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말할 때 싱겁다, 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는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차도란 이런 치우침을 넘어 중도를 이루는 것을 말하죠. 차를 다루는 자세와 행위가 자연스럽고, 검소하며 차 맛의 간이 맞고 안정감이 있으며, 때와 장소에 어울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생활을 하면 차도를 이루는 것이죠."

세계로 향하는 반야로의 차문화

효당 스님은 한국 차도계에 남긴 업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한국 최초의 체계적인 차서인 〈한국의 차도〉를 저술해 차생활 입문서를 남긴 것이고, 둘째로는 정제증차(精製蒸茶) 제차법을 남겼다. 또한 차인들의 동호회 모임인 한국차도회를 발족시켰는데 이는 한국 차인회 결성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채 원장은 장작 가마솥으로 직접 제차를 하는 전통제차법으로 차를 만들고 제자를 길러내는 등 효당 스님의 차도를 계승하는 데에 최선을 기울여왔다. "매

※ 법화경 · 사경 ※



묘법연화경
할인가 28,000원(5권 이상)
정 가 40,000원(1권)

묘법연화경(우리말)
할인가 9,600원(20권 이상)
정 가 16,000원(1권)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34호~40호 우리말법화경1~7
할인가 2,100원(50권 이상)
정 가 3,500원(1권)

묘법연화경사경공책 〈주문생산〉
정 가 5,000원(1권)
※ 칸만 그어져 있는 공책입니다

※ 영가옷 · 예수재용품 ※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동남영가옷 정가 1,000원 동녀영가옷



예수재함A (50개 1박스)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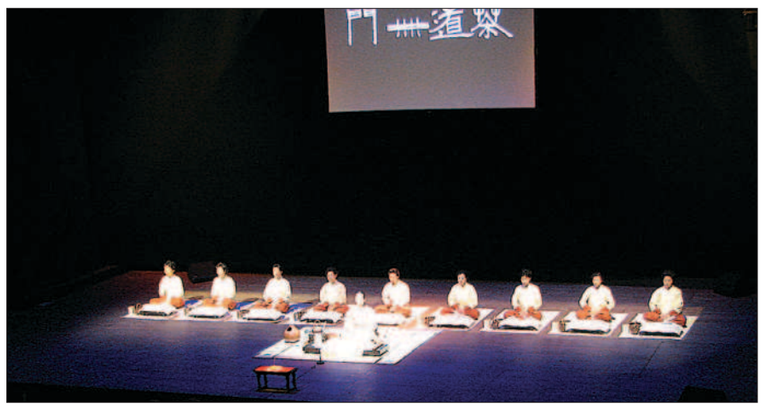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茶道는 자기 돌아보는 수행"



2006년 한불수교 120주년기념행사로 반야로차도문화원은 파리 께브랑리국립민속박물관 레비스트로 극장에서 공수선차도 시연을 했다.


오른쪽부터 채원화 원장, 효당 스님, 연세대 황원구 · 고성환 교수(1969년)


차도를 강의중인 채원화 원장.



반야로차도문화원은 2013년 30주년 기념식 및 효당차문화상을 제정 수여했다.


지리산 끝자락 차밭에서 제차하는 채원화 원장의 모습.



'실상을 깨닫는 지혜의 이슬'을 상징하는 '반야로' 차

월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지리산 끝자락 반야로 차밭에서 큰 가마솥을 걸고 장작불을 지펴 일일이 손으로 직접 정성을 다하여 차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0여년 동안 120여 제자를 길러왔는데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다. "3기생까지는 만 10년을 배워야 수료를 해주었어요. 차도 개론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동차송, 차신전 등 차서 원전과 초발심자경문, 치문, 행차법 등의 강의를 전부 다 교육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니 교육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면서 가르친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었는데 교육 과정이 워낙 깐깐하다보니 그런 소문이 났나봐요. 수료 과정이 너무 길다는 얘기가 많아 요즘에는 교육 과정을 3년으로 압축했어요."

반야로 차도 교육과정은 총 네 과정으로 나뉘는데 △제 1과정은 '수식관, 차도개론, 차서원전 강독' △제 2과정은 수식관, 생활차법, 선차법, 재차지 견학실습, 선사어록 △제 3과정은 수식관, 다양한 선차법 수련(공빈, 말차, 헌공) △제 4과정은 수식관, 선시어록, 기타 심학서 강독, 문화 탐방으로 나뉠 수 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모든 공부는 궁극적으로 마음 닦는 공부로 귀결이 되죠. 심학을 바탕으로 하는 공부에는 끝이 없습니다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이론과 실기 공부로 나누어 차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기로 잘 다져진 반야로차도문화원의 회원들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차문화를 알려나가는 데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한양 정도(定都) 600년 기념사업 '전통차계승자'로 선정 △중국 선차 유적답사 진행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반야로선차도 시연 △한국차도문화예술제 개최 △파리주불한국문화원 초청 한국전통차도 문화행사 개최 △효당 최범술 스님 추모학술대회 개최 △한 · 불 수교 120주년기념 초청공연 △벨라루스 국립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공연 및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 ISAA '러아대학 한국어교수 협의회' 창립기념 초청공연 △효당본가 반야로차도문화원 개원 30주년 기념 및 효당 차문화상 제정 수여 및 효당 최범술 스님 문집 발간 기념행사 등을 진행해 왔다.

특히, 개원 30주년을 맞아서는 '효당 차문화상'을 제정하고 효당 문집을 발간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총 3권으로 구성된 효당 문집은 효당 스님이 발표한 학술논문과 기고문, 문화와 차도, 효당 스님 관련 논문집과 제자들의 추모 글 등을 모은 것이다.

"올해 11월에 제15회 수료식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하여 한국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 있는 분을 선정해 제2회 효당차문화상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효당 스님의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불교 분야 활동 중 원효 교학 분야, 정치사회 및 차문화 등 스님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조명한 연구집을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여력이 있다면 효당사상연구회와 반야로차도문화원을 법인화하여 많은 후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장으로 환원시키고 싶습니다."

차를 만들 때는 매일 목욕재계하고 108배하며 "내가 정성껏 만든 이 차를 마시는 이들이 제불보살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의 모든 병고액난이 소멸되고, 청정한 법열을 얻고, 무상의 환희심을 얻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올린다는 채 원장.

차를 달여 마시며 자신의 존재와 우주의 일체감을 체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선의 견성이라고 말하는 그는 결국 차도는 인생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사람의 일생은 계속 영광스러울 수 없고 또 계속 고달프기만 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희노애락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내야 성숙할 수 있잖아요. 차 또한 물과 불을 잘 다스려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차를 여러번 우려먹으면 고였던 물이 씻겨 내려가듯 번뇌가 씻겨 내려가며 오묘한 맛 즐거운 맛을 알게 돼요. 정신이 깨어나고 울기를 풀어주죠."

이렇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변을 챙기게 된다. 그래서 차도는 삶의 충전이고 자기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가정과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차도는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며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차를 통해 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채원화 원장은 오늘도 우리의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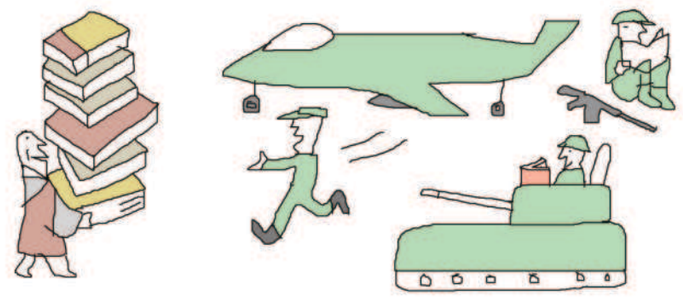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책 읽는 병사들에게 다가가다

100여 명의 병사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한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원빈 스님은 원빈보다 잘 생겼다? O? X? 선택하세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기적이 이러했을까? 병사들이 둘로 갈라졌다. 그리고 O를 선택한 병사들이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연대 교회에서는 대대적인 예배가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군법당에서는 뭘 하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퀴즈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관세음보살 이야기〉라는 책을 교재로 선정하고 2주일의 시간을 줬다. '혹시 책 읽기 싫어서 병사들이 아무도 참석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다. 50명 전후로 법회에 참석하던 병사들이 100명 넘게 온 것이다.


그림 · 박구원

아직까지 탈락자는 10명뿐인데 준비한 퀴즈 질문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귀신같이 답을 맞추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법이 위의 말도 안 되는 난센스 퀴즈였던 것이다.

2010년 8월 처음 군종장교로 임관한 나는 병사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병사들은 먹을 것만 좋아하고, 법회에서는 잠만 자며, 삽질은 잘하지만 설법은 듣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다.

병사들은 아프다고 사회에 울부짖는 청년들 중에서도 더욱 고통스러운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는 싫은 선배가 있으면 피할 수라도 있지만 군대에서는 나를 끔찍이 싫어하는 선임과 바로 옆자리에서 매일 함께 잠을 자야 한다. 24시간을 함께 숨 쉬며 군 생활을 같이 해야 하는 원증회고의 바람이 병사들을 휩쓴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구부득고, 친구와 애인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애별리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하는 고통까지… 고통이라면 차고 넘치는 집단이다.

병사들을 지켜보며 내린 결론은 세 가지다. 첫째, 병사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하지만 전통방식의 법회와 설법은 병사들에게 커다란 문화적 괴리감을 주고, 결국 잠들도록 한다. 셋째, 병사들은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량 또한 엄청나다.

나는 '독서'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익숙한 매개체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혁명적이었다. 독서를 활용하기 전, 나와 함께 공부하는 병사들은 50여 명이었다. 하지만 독서모임 '행군스(행복한 군인과 스님들)'를 조직한 후 1기가 100명으로 늘어났고, 2기에 300명을 돌파했으며, 3기에는 500명 가까이 되는 병사들이 함께 하기를 원했다. 연대병사가 2,000여 명임을 감안할 때 단일 동아리에 500여 명이 가입을 원하는 상황은 군대 내에서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책값이 부담스러워질 만큼 전법효과는 뛰어났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독서'라는 매개체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고, 병사들에게 익숙한 문화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설법을 익숙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배워나가니 병사들은 졸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나갔다.

구족계를 받은 비구라면 마땅히 설법을 해야 하고 그 설법은 부처님을 닮아 있어야 한다. 또한 설법능력을 구족한 비구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혼자말처럼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수단을 활용해서 부처님의 고귀한 진리를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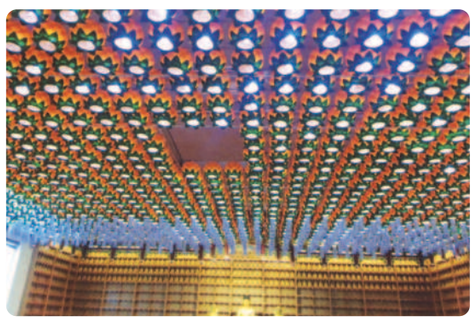

전법대상의 '문화에 한발짝 먼저 다가가는 것' 새로운 세대를 교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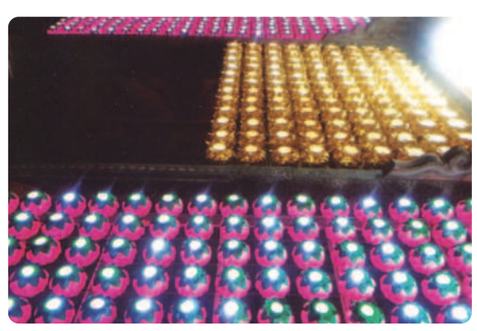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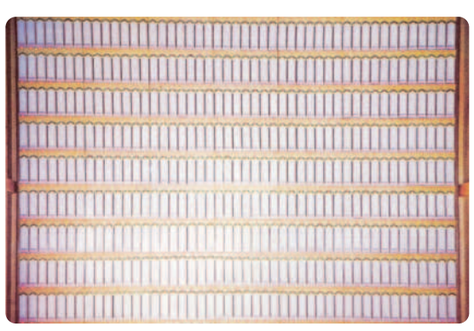

원주 보문사 대법당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장흥 보림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안정성,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 월성사 인등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숯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연 등


노랑 진분홍 영가등


금등 바림등 만월등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

종교간 대화로 은둔의 삶, 공유하고 이해하자

제4회 겟세마네 조우 열려…
불교·가톨릭 30여 명 참여

종교간 대화는 서로 다른 종교가 지향하는 삶과 믿음을 이해하면 그 문을 열 수 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SC Times' 지는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불교 수행자와 가톨릭 성직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4회 겟세마네 조우(Gethsemani Encounters)가 열렸다"며 "토머스 머튼(1915~1968)의 수도원으로 잘 알려진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1996년 처음 열린 '겟세마네 조우(Gethsemani Encounters)' 는 서로 다른 종교, 불교와 가톨릭의 만남으로 수행자와 성직자의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믿음을 이해하는 장"이라고 보도했다.

성 존스(St. John's)회와 성 베네딕토(St.Bennedicto)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겟세마네 조우' 는 불교계와 가톨릭계 발제자들이 나서 발표를 하고 나면,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각각의 분과로 나눠 긴밀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는 것으로 진행됐다.

'SC Times' 지는 "겟세마네 조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유로움"이라는 툽텐 쵸드론(Thubten Chodron) 스님의 말을 인용하고, "토론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로



미국 켄터키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제4회 겟세마네 조우(Gethsemani Encounters)가 열렸다. 사원과 수도원에서 기도, 산책, 울력으로 이어지는 공통된 일상을 나누며 서로 다른 믿음의 사유를 바라보는 겟세마네 조우에는 30여 명의 스님, 신부, 수녀들이 참여했다.

각 종교계 인사 호평 '일색'
불교-가톨릭 믿음 이해하는 장
"종교 초월 대화로 사회평화 증진"

산책을 할 때도 항상 스님, 신부, 수녀의 모습이 함께 했다"며 " '세상에는 각양각색의 생각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항상 그것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는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헌정사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았다"며 이번 '겟세마네 조우' 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툽텐 쵸드론(Thubten Chodron)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대화의 노력은 사회적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며 "겟세마네 조우는 서로 다른 종교에게 귀를 기우리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이해를 넓히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교를 초월한 대화(Interfaith Dialogue)' 의 '북미 분과 위원장' 을 맡고 있는 마이클 피터슨(Michael. Peterson) 신부 27일 개회식에서 "가톨릭과 불교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겟세마네 조우' 는 서로의 동일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주목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각각의 종교는 다르지만 수도원이나 사원에서의 삶이란 매우 비슷하다"며 "이 자리에 모인 성직자와 수행자는 비록 서로 다른 신앙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만 오직 영적 삶을 따르며, 대중에게 헌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C Times' 지에 따르면 28~29일 이틀간 진행된 토론회에서 베키 반 네스(Becky Van Ness) 수녀는 '가톨릭 영적 지도자를 위한 불교 지혜' 를 주제로 발제했다.

네스 수녀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보다 많은 다리를 세워야 하고,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종교의 믿음의 실체를 바로 보고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네스 수녀는 "내 신앙의 뿌리는 베네딕토 수도회의 가치에 두고 있지만, 그 믿음은 불교적 가치관과 공통점이 있다"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될수록 성직자나 수행자의 신심의 아이디어가 더욱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 Times' 지는 "겟세마네 조우는 서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대화에 나설 때 그 다름이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이해의 폭도 더욱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자리"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국 볼티모어의 불교 공동체가 '사회 정의' 를 꿈꾸며 제6회 불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4월 흑인폭동이 일어난 것에 주목, 불교 공동체가 그 교훈을 되새기고, 사회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볼티모어 불교 축제 "사회 정의 꿈꾸며"

불교 가치, 사회 갈등 풀자
자비 연민으로 집착 혐오 떨쳐야

미국에서 삶의 조건이 가장 열악한 도시 빈민가를 가지고 있는 볼티모어. 이곳에서 자비와 연민으로 빈민가를 품에 앉고 새로운 도시를 꿈꾸는 불교 페스티벌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았다.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도시 볼티모어에서 '제6회 불교 페스티발' 이 열렸다. 특히 이번 페스티발에서는 '사회 정의' 를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허핑턴 포스트' 는 "메릴랜드 불교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워싱턴 DC 일대에서 제6회 불교 페스티발을 개최했다"며 "불교 페스티발은 대중법회, 토론회, 명상실습, 영화제, 음악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페스티발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볼티모어 불교 지도자들은 다문화, 다인종의 볼티모어 사회에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로 6회를 맞은 불교 페스티발은 여느 때와는 달리 '볼티모어의 교훈' 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시작해 '마틴 루터 킹의 꿈' 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끝났다.

오프닝 토론회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상가인 샤론 살스버그(Sharon Salzberg), 성스러운 삶 재단(Holistic Life Foundations) 창립자 에드워드 모아워드(Edward Moawad)을 비롯해 볼티모어 불교명상 지도자들이 등이 참여해 '도시 공동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샤론 살스버그 작가는 "베푸는 행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정신적인 길(명상)은 베품 안에서 표현되고 실현되고,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마음의 평정으로 나타난다. 이는 볼티모어에 팽배해 있는 집착과 혐오, 어리석음을 그냥 보내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또한 엔딩 토론회에는 교도 윌리엄(Kyodo William) 스님을 비롯해 명상 지도자 엘리너 핸콕(Eleanor Hancock), 페미 아킨나베(emi Akinnagbe)와 베스트셀러 작가 타라 브레쉬(Tara Brach) 등이 참여해 '마틴 루터 킹의 꿈' 을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볼티모어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했다.

이번 불교 페스티발의 산파 역할을 도맡았던 안드레스 곤잘레스(Andres Gonzales) 준비위원은 "현재 볼티모어에서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페스티발은 긴장감을 완화하는 소통의 장으로 빈민가를 품에 안고 평화로운 볼티모어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희망했다"고 이번 불교 페스티발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인구통계국 등에 따르면 볼티모어 빈민가 지역은 메릴랜드 주에서 교도소 복역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실업률이 시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중간 가계소득 역시 시 평균보다 1,500달러 이상 적고, 헤로인에 중독된 주민 비율도 미국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간 볼티모어가 미국의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심각한 빈곤, 범죄,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허핑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볼티모어 불교 페스티발은 지난 2010년 워싱턴 DC 대학에서 처음 열렸다.

당시 페스티발 공동위원장 가브리엘 리에라(Gabriel Riera, 워싱턴 DC 대학) 교수는 "당시 영화제를 주축으로 한 페스티발을 기획하며, 티베트 비구니 스님의 삶을 통해 연민과 자비가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 유일한 방편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리에라 교수와 함께 공동 위원장을 역임한 에릭 포비스(Eric Forbis · 사회운동가)는 "볼티모어 불교 페스티발은 불교가 사회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이 괄목할만 하다"며 "올해로 6회를 맞는 불교 페스티발 역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불교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4월 25일 25세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년인 프레디 그레이가 경찰 구금되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당시 볼티모어 시 당국은 폭력 사태로 34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해 234명이 체포했고, 20명의 경찰관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광학기술로 대불 형상 복원 '찰라의 나툼' 14년 전 탈레반 반군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대불이 이틀간 3D 광학 기술로 복원됐다. 'Haaretz' 지는 6월 14일 "중국인 부부가 광학 기술을 이용 6일, 7일 이틀간 원형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장신유(Zhang Xinyu) 씨와 그의 아내 리앙홍(Liang Hong) 씨는 중국에서 준비해 온 바미얀 대불의 고화질 슬라이더를 첨단 광학기계에 투영해 6일 밤부터 7일 아침까지 8시간 동안 파괴되기 전 바미얀 대불의 형상을 복원했다. 장신유 씨는 "이번 퍼포먼스가 세계인 기억에 남아 있는 바미얀 대불을 더욱 분명히 해주길 희망한다"며 "매년 이런 퍼포먼스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팔순' 맞은 달라이라마 축하 물결

7월 5일 캘리포니아서 생일축하이벤트 열어

다가오는 7월 6일은 달라이라마의 80번째 생일이다. 이에 축하 앨범이 발매되는 등 전 세계 각계 인사들의 축하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평화예술재단(The Art of Foundation)은 7월 6일 달라이라마 생일에 맞춰 생일 노래콜렉션을 발매한다. 재단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달라이마와 같은 공명 평화와 자비를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달라이라마 생일을 널리 알리고 축하하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앨범에는 유명 영국 가수 스팅(Sting), 피터 가브리엘(Peter Gabriel), 케이트 부시(Kate Bush), 그룹 엘보우(Elbow)가 함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은 "비폭력 사회, 인권, 종교자유, 환경보호, 민주주의를 위한 달라이라마 일생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달라이라마 가르침이 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고 'Lion's Roar' 지는 6월 12일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생일 하루 전날인 7월 5일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 위치한 혼다센터서 생일축하이벤트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달라이라마 생일을 앞두고 티베트 집단 거주지역서 단속 강화에 나섰다. 6월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 중국 간쑤성과 쓰촨성, 칭하이성 정부가 달라이라마 생일축하 행사 등 군중집회를 일절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인 정신적 지주로, 달라이라마 생일에 맞춰 중국 강압 통치에 반발하는 티베트인들의 항위 시위 발생을 우려한 것이다.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는 1935년 티베트 아무드 지방 타크쉘 마을서 태어났다. 1940년 14대 달라이라마로 공식 취임했으며 1989년 노벨평화상을, 1994년 루스벨트 자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불자님들의 오늘 운세 는?

백팔번뇌 운수카드 + 복주머니
1SET 3만원

TIP **백팔번뇌 파자비결에 있소이다!**

갑골문자(甲骨文字)는 신석기 시대 점괘(占卦)를 기록한 점서로 한자의 모체가 되어 변(邊)과 획(劃)에 신통력이 있다. 바로 격암유록이나 정감록비결은 파자(破字)의 신통력으로 국운을 예지(叡智)한 예언서이다.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생항로에는 길흉화복이 있으니 천부(天賦)의 계시로 신통력이 있는 백팔번뇌 파자비결(破字秘訣)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고통은 구름처럼 사라진다.

■ 계좌번호 : 우체국 011965-02-112777 (예금주 : 한영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 1길 16 정원아트하우스 2층 201호 / 전화 010-7742-3111 松岩 한영필 합장

불경 라디오 成佛

디자인,구성 upgade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가요를 담은 SD 메모리도 재생이 가능합니다.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FM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FM버튼을 누르면 자동 주파수 검색됩니다.)

제품구성 성불라디오 (가로12cm × 세로5.7cm × 두께2.5cm) + 4GB불경SD카드 + 1200AM베터리 + USB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더욱 좋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신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편백나무 원목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성종사 대만최대 규모 범종 제작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규모인 8,800관(33 ton) 범종을 제작 수출하였다. 높이 4.82m, 직경 2.89m 중량 33ton(8800관)의 이 초대형 범종은 대만 타이중에 위치한 명선사 (明善寺)라는 사찰로부터 2013년 주문 받은 것으로 기존 대만 최대 범종인 25.5ton의 불광산사 범종보다 무려 7.5ton이 무거우며 높이도 50cm나 더 크다.

본 범종의 제작기간은 약 1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종 표면에는 12,129자의 경전과 명선사의 역대 祖師 70명이 정교하게 빼곡히 새겨져 있어 보는 이로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전시관 : 서울시 종로고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작업실 'open' … 창작은 각자, 예불은 함께

불자 청년 예술가들 모여 만든 생활작업실 '화제'


다양한 분야의 불자 예술가들이 모여 예불도 드리고 작업도 하는 생활 작업실이 오픈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함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불자예술가들로 왼쪽부터 이수진, 이혜진, 유정진, 권익경 씨.

손베틀직물디자인, 페브릭디자인, 일러스트, 만다라,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각자의 팀을 이루어 공간을 사용하는 생활 작업실이 오픈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지음'과 '누하동93'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불교공부를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모였다는 점이다.

함께 예불도 드리고 일에 대한 고민도 나누는 이 공간은 삶의 소통 공간이자 신행장소이다.

6월 16일 종로구 누하동에 위치한 예술가들의 생활작업실을 찾았다. 2층의 주택을 작업실로 개조한 이곳에는 손베틀직물디자인을 하는 지음의 유정진(34) · 이혜진(28) 작가, 영상 작업을 하는 프로덕션 누하동93의 감독 권익경(35), AD 이수진(26) 씨 등이 각자의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음은 단청색을 기본으로 한 손베틀 작업으로 직물을 디자인하는 것은 물론 강의를 통해 심리치유로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을 모색중에 있다. 또한 누하동93은 다양한 영상물을 작업하는 프로덕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은 아침 7~8시 즈음에 출근해 작업실 청소를 한 다음 9시에 예불을 드리고 자비경을 읽으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각자의 일정을 공유하고 업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다 보면 어느새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 동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 각자의 일을 시작하니 하루가 보람되고 즐겁다. 이 공간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불교공부 모임을 하던 도반들로 만나 작업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동료로까지 발전했다고.

베틀팀 지음 · 영화팀 누하동93 등
다양한 예술가 모여 공동체 형성
매일 아침 예불로 마음 '청정'
사회적 기업으로의 육성도 모색중

유정진 씨는 "불교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알음알음으로 연결이 되어 현재의 친구들을 알게 되었죠. 모두가 예술을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점도 많으니 함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일상을 공유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끼의 밥을 나누어 먹으며 삶을 공유하는 진정한 도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 씨는 공동 작업실에서 기도하고 작업하다보니 각자의 삶도 더 단단해졌다고 말한다.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예술가들이 규칙적으로 출퇴근을 하다보니 좀 더 부지런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리다 보니 차분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할 수 있어요. 처음 이사를 올 때보다 이 공간이 좀더 청정해진 느낌을 받는 것도 모두가 함께하는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생활작업실은 4월 두 달간의 테스트 생활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30일 공간 오픈식을 가졌다. 전시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오픈식에는 그동안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식을 접한 200여 축하객들이 손님으로 몰려올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혜진 씨는 "저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지는 몰랐어요. SNS로만 알던 친구들이 저희들이 올린 소식을 접하고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큰 잔치가 되어 버렸죠."

지음을 비롯한 각 팀들은 앞으로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적기업으로의 모색을 계획중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간은 3~4개월에 한번씩 오픈해 자신들의 작업을 보여주며 회향의 시간도 마련하고자 한다.

유정진 씨는 "이곳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갤러리인지 알고 그냥 불쑥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 우리의 생활공간인데 그런 방문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공개 오픈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회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숙 기자**

금강경 500자 보완해 책과 CD로

가사체 한글 금강경 · 교감본 한문 금강경



'가사체 한글 금강경 · 교감본 한문 금강경' CD 표지


무비 스님


조현춘 거사

가사체금강경독송회장 조현춘 거사가 무비 스님과 함께 번역한 '가사체 한글 금강경과 교감본 한문 금강경'을 책(운주사)으로 발간하고 동시에 음반으로도 출시했다.

특히, '교감본 한문 금강경'은 누락된 금강경의 500자를 보완해 눈길을 끈다. 조현춘 거사는 "2012년 가사체 한글 금강경을 책으로 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교감본 한문 금강경을 함께 엮어 책과 음반으로 나오게 됐다. 무비 스님의 권유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통용되고 있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은 10% 정도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스님은 이번 교감본을 통해 이를 보충하라고 하셨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조 거사는 "이번 교감본을 위해 각묵 스님의 범본, 전재성 박사가 소개한 범본, 티베트어본과 몽골어본 등을 참고하여 500여 글자를 수정보완했다. 이런 책들을 참고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 일부 누락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누락이 심한 부분은 바로 26장 '법신에도 걸리지 않음'이다. '불야 세존 불응 이구족상 관여래(不也 世尊 不應 以具足相 觀如來)…' '응관 불법성 즉도사법신(應觀 佛法性 卽導師法身)…' 등의 생략 부분을 추가보완해 해석을 명확히 했다.

무비 스님 · 조현춘 거사 공역
신행수첩, 법요집 등 활용 가능

조 거사는 "이번 경전이 나오기까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큰 가르침이 있었고, 불교 경전을 함께 번역하고 있는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회' 학자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이 책과 CD가 사찰이나 다른 출판사의 신행수첩, 법요집, 해설집, 불교의식집, 불교성전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단청문양보존연구회 기획전 '전통의 여정'

6월 26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전시실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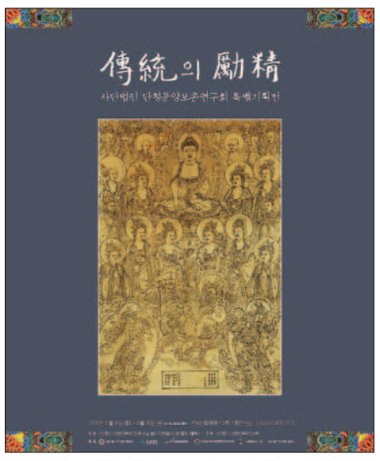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 기획전 '전통의 여정'이 6월 26일까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기능보유자 故월주 원덕 문스님 유품 및 유작 6점(단청, 불화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소운 김용우 선생 작품 약 30점(기와, 불화, 단청 등)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및 사단법인 단청문양보존연구회 회원 그리고 흥천사불화소 소속 작가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월주 원덕문 스님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품 및 유작이 전시된다. 여기에는 낙현 스님에게서 받은 불화초첩, 월주 스님의 선화를 비롯해 단청문양작품, 금박산수병풍, 불화작품 등이 포함된다.

월주 스님의 화풍을 잇는 소운 김용우 선생의 작품으로는 달마도, 기와에 그린 선화 작품, 단청문양 작품 등이 선보인다. 이밖에도 이연욱(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김석곤(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이수자), 불상조각가 서칠교, 최학(불교문화재연구소), 권지은(국립한국전통문화대 교수), 고승희(동국대 초빙교수), 박철종(동국대 외래강사), 강나영(문화재수리기술자), 김민재(문화재수리기술자), 유한율(문화재수리기술자), 조찬미, 권예슬, 최주희, 박지유 등의 작품이 전시된다. (02) 913-24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단청문양보존연구회 기획전 '전통의 여정' 포스터

BTN,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실시

독경 및 108배 파일 무료다운로드 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기존 TV 채널을 통한 방송 이외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BTN콘텐츠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이에 BTN은 △독경 및 108배 파일 무료다운로드 △BTN 불교라디오, 팟캐스트, 팟빵, Tunein 등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법문 청취가능 △SNS를 통해 방송참여, 뉴스 제보 실시간 접수 △7월부터 전국 KTX와 공항철도 노선에 BTN프로그램 제공 등을 실시한다.

특히, BTN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및 다시보기만 가능했던 '나를 깨우는 108배(백팔대참회문)'와 사시예불, 한글 새벽예불, 금강경 등의 독경음원을 MP3형태로 무료 배포한다. ARS후원전화(060-800-7000)를 걸면 문자로 URL 주소를 제공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BTN은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108배와 독경 MP3를 저장해 활용하고 싶은 불자들의 요청이 많아진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한, BTN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만 듣던 BTN불교라디오를 '팟빵', 'TuneIn'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할 수 있다. '팟빵'은 팟캐스트 이용자라면 익숙한 어플로, 최근 라이브 메뉴에 'BTN불교라디오 울림-법문채널'을 추가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월 5천만명이 이용하는 TuneIn 어플도 BTN불교라디오에 추가됐다. 특히 TuneIn라디오의 경우, 자체 알람기능이 있어 법문방송으로 아침을 맞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현재 운용중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추가 개설해 시청자들과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 기존 문자보내기 서비스(#1252)가 있었으나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BTN을 친구추가 해놓으면 따로 번호 등을 기억할 필요 없이 검색으로 쉽게 BTN 운영자와 소통이 가능하다. **정혜숙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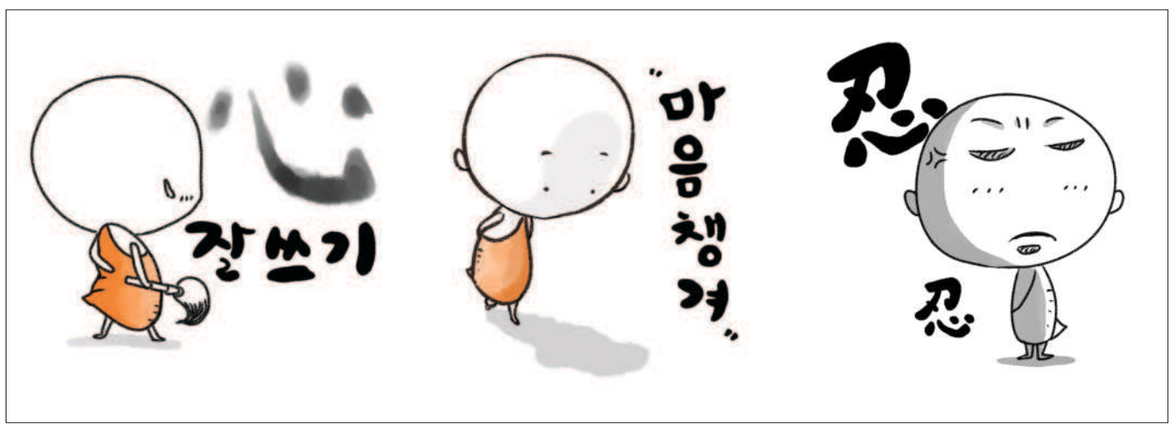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이모티콘’으로 부처님 가르침 배워요

만화가 지찬 스님 ‘힘내어라’ 출시… 카카오톡에서 서비스



‘마음 챙겨’ ‘수행중’ ‘붓다데이’ 등 불교 캐릭터를 전면으로 표방하는 지찬 스님의 ‘힘내어라’ 이모티콘이 SNS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스님은 글씨를 넣어 부처님의 말씀을 유쾌하게 전달하고 있다.

붉은색 가사를 입은 동자승이 붓을 들고 마음 ‘심(心)’ 자를 쓰고 있으면 그 진지함과 귀여움이 범벅이 되어 웃음을 자아낸다. 또 어느새 도끼눈을 한 동자승이 분한 표정을 지으면 주변으로 ‘인(忍)’ 자가 발산되면서 화난 상태가 우스꽝스럽게 표현된다. 바로 만화가 지찬 스님이 출시한 어라 이모티콘의 캐릭터들이다.

‘마음 챙겨’ ‘수행중’ ‘붓다데이’ 등 불교 캐릭터를 전면으로 표방하는 ‘힘내어라’ 이모티콘이 SNS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찬 스님은 “타 종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메신저 상에 그들만의 캐릭터를 알리기 시작했는데, 불교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 아쉬웠다. 준비는 오랫동안 했는데,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다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카카오 톡’ 메신저에서 5월 23일부터 불교 캐릭터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캐릭터 어라는 각 불교권 스님들의 가사 형식을 참고해 최대한 간단한 복장의 동자승을 설정하고, 웃는 모습, 인상 쓰거나, 게슴츠레한 표정 등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를 개발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님은 “이번 이모티콘은 귀엽기만한 얼굴이 아니라, 재미를 더하기 위해 표정을 다양화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마음챙김, 붓다데이, 수행 등
다양한 표정의 캐릭터 눈길
“소통으로 위로 얻었으면”

이제는 법명보다 자신의 메인 캐릭터 ‘어라’로 더 유명한 지찬 스님은 이모티콘 출시로 대중들이 부처님 말씀을 즐겁게 배웠으면 한다고 취지를 전한다. “대중들이 동자나 스님 캐릭터를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그림에 간단한 단어나 문구를 넣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 측에서는 글자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고민 끝에 캐릭터의 동작에 글을 삽입했죠. 이는 서로에게 위로 · 위안을 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겁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교를 표방하는 이모티콘 ‘힘내어라’는 서로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통의 기능 중 하나인 메신저는 문자는 물론 이모티콘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가르침도 넘치면 다들 부담스러워하니 가능하면 즐겁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통해 좀더 행복해지고 즐거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향불 미학으로 윤회의 의미 담아내

이길우 작가 개인전 6월 30일까지

향불미학을 통해 소멸과 생성, 윤회의 의미를 작품에 담아내는 이길우 작가의 전시가 6월 30일까지 나무 모던 앤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길우 작가는 인두와 향불로 한지를 태운 여러 겹의 이미지를 배접시켜 디졸브 형식의 운동감 있는 평면화면을 구성한 작품으로 국내외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다각적인 시각적 문화를 포착해낸다. 여기에는 서양의 물질만능주의, 연예인 숭배, 상업주의와 그에 상반되는 동양의 영성, 명상, 그리고 자연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그가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담아낸다.

작가는 두 가지의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모습을 표현 윤회를 보여준다. 더불어 인간의 본성과 미감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뒤섞어 놓는다. 이를 통해 공존과 화합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와 복합과 융합이 키워드인 현 시대에 강한 울림을 준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치밀하고 밀도 있는 향불 자국의 불규칙적인 망점과 자연풍경 이미지의 결합이 부각된 작품을 통해 향불 미학의 심도 있는 작품들을 선보일 것이다. (02)745 2207

정혜숙 기자



‘그곳에가고싶다’ 부분도. 순지에 향불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권력가 · 재벌 · 폭력배가 만든 욕망의 역사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 완결판 ‘강남 1970’



영화 ‘강남 1970’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의 완결편으로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을 통해 욕망을 향해 달리는 인간군상의 참혹함을 잘 고발하고 있다.

영화 ‘강남 1970’은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의 완결편이다. 유하 감독은 거리 3부작을 만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군사문화의 폭력성이 지배했던 사춘기, 수컷 되기와 남성성을 강요 받았던 고등학교 이래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 제도 교육이 어떻게 폭력성을 키워내는가를 다뤘고, ‘비열한 거리’에서 돈이 형님이 되는 사회, 돈이 폭력성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를 다뤘다면 ‘강남 1970’은 권력이 폭력을 소비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하지만 ‘거리 3부작’을 관통하는 주제는 여전히 폭력성과 청춘이라는 두 가지 테마의 공존과 충돌, 중심에 편입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는 뒤틀린 청춘의 초상이다.”

‘강남 1970’의 줄거리는 단선적이다.

호적도 없는 고아인 종대(이민호)와 용기(김래원)가 전당대회 훼방 작전에 투입되면서 인생의 길이 갈리게 된다. 종대는 조직폭력배 출신인 길수의 가족이 되고, 용기는 명동파의 중간 보스가 된다. 두 사람은 정치권까지 개입된 강남개발의 이권다툼의 한 복판에 서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의 백미는 ‘진흙탕 액션’라고 할 수 있다.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모습을 통해 욕망을 향해 달리는 인간군상의 참혹함을 잘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1970’의 마지막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강남을 형성하는 데 궂은일을 다했던 깡패들은 이용만 당할 뿐 정작 강남의 주민으로 뿌리 내리지 못한다. 강남은 지닌 자들의 아성인 것이다.

2012년 발매된 싸이의 여섯 번째 정규앨범 ‘싸이6甲 Part 1’의 타이틀곡인 ‘강남스타일’은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강남스타일’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코믹한 뮤직비디오의 영향이 크다.

기실 ‘강남스타일’의 제목은 역설이다. 어느 곳에서나 아무 때고 한물 간 ‘말춤’을 추고, 목욕탕에서 수영장처럼 수영을 해대고,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해수욕장처럼 해수욕을 즐기는 싸이의 모습은 굳이 분류하자면 강남이 아니라 강북스타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북스타일과 강남스타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소위 ‘강남좌파(486세대와 일부 50대로 구성된 중산층 계급에 속하면서도 정치사회의식이 전보적인 이를 일컫는 말)’를 제외하고 나면 강남의 정치 지형은 보수 일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강남은 지닌 자들의 아성
이전투구(泥田鬪狗) 진흙탕 액션
욕망의 인간군상 참혹함 그려
“태생에는 남과 북이 있어도
불성에는 차별이 있으랴”

강남의 보수 성향은 지역주의(영남 대 호남), 세대주의(20~40대 대 50~70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계급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희망의 사다리’가 걷히지 않은 지역이 바로 강남이다.

흔히 강남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것은 넓은 도로를 메운 외제차, 서민들의 한 달 봉급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상품들을 전시한 명품관, 타워팰리스로 상징되는 펜트하우스, 즐비한 학원가와 성형외과와 룸살롱 등이다.

‘강남 1970’은 돈이 지상 최고의 가치가 된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강남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그리고 있다. 영화에서 알 수 있듯 군부독재 시절 권력가와 재벌과 조직폭력배들이 만들어낸 욕망의 역사가 바로 강남의 형성사인 것이다. 그리고 월남 베이비 붐 세대(1970~74년생) 중 중산층 이상의 계급 2세대들(90년대에 오렌지족이라고 명명되었던)이 만들어낸 소비문화가 강남의 발전사인 것이다.

강준만 교수는 〈강남 좌파〉에서 “한국에서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은 대학 입시 전쟁”이라고 정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사교육비는 확대되었고, 그 결과 강남의 학원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374개에서 826개로 2배나 증가했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고교와 대학은 A급(과학고, 외고→ SKY 서울, 고려, 연세대) 1만 명, B급(과학고, 외고, 자사고 → 서울 지역 11개 대학) 3만 명, C급(일반 고등학교 → 서울 지역 외 대학교)으로 계급화되었다.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A급 대학인 SKY에 입학하는 행운을 갖는 이는 결국 대부분 강남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다. ‘부익부빈익빈’의 대물림이라는 서글픈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육조 혜능이 오조 홍인을 찾아왔을 때 둘은 아래와 같은 말을 주고받는다.

“너는 어디서 온 누구냐?”

“저는 영남에서 온 혜능입니다. 부처가 되고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태생이 하찮은 영남 오랑캐가 감히 부처가 되려 하느냐?”

“사람의 태생에는 남과 북의 차별이 있어도 부처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실로 옳은 말이다. 사회적 계급성에는 강남과 강북이라는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불성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것이다.

유응오 작가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1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 중 제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 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낱낱이 설하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1~6/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심심한생각채우기(엽서컬러링북)	누똥바	아름다운인연	6	꿈을깨면 내가부처	서암스님	정토
2	안부(산승이마음으로전하는)	지안스님	(주)조계종출판사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스님,김현준	효림
3	불교기독교를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8	영원한자유의길(재개정판)	성철스님	장경각
4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법정,최인호	여백	9	눈부신오늘	법상스님	마음의숲
5	아잔브람명상론(1)-알아차리기	아잔브람	북투더바이블	10	아잔브람명상론(2)-놓아버리기	아잔브람	북투더바이블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내면의 깊은 깨달음 찾아 떠난 佛國土 여행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깨달음이 있는 여행은 행복하다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 〈인연 1, 2〉 〈암자로 가는길〉 등 불교와 밀접한 글쓰기를 해온 작가 정찬주. 그가 이번에는 부탄, 네팔, 남인도, 스리랑카, 중국 오대산까지 5개의 불국(佛國)을 다녀온 경험과 기록을 담아 〈불국기행〉을 펴냈다.

이 책에는 세계문화유산인 보드나드 스투파, 더르바르 광장, 스와얌부나트 사원, 카샤파 왕궁터, 운강 석굴 등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던 디첸포드랑 승가학교, 파로종, 질루카 사원, 아소카 스투파, 까르마이 꾸탐 사원터, 갈비하라 사원, 나후사 등 주요 불교 유적이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오롯이 소개됐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가 불교 유적을 한 지역의 맥락 안에서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곳곳에서 우리 역사나 우리말과의 접점을 찾아 밝힌다는 것이다. 작가답게 꼼꼼한 취재를 통해 부탄과 남인도 등지서 저자는 우리말과의 그들 언어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한다. 네팔의 아소카 스투파를 돌 때는 신라 진흥왕, 고구려 광개토왕, 백제 성왕 등이 닮고자 한 '아육왕(아소카왕)'과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떠올린다. 남인도의 벨란카니와 아요디아에서는 석탈해와 허황후의 고향과 근원을 찾고, 중국에서는 혜초와 의상대사의 흔적을 목격한다.

책 내용은 〈삼국사기〉 〈경상도지리지〉 〈삼국유사〉 〈대당서역기〉 〈디파밤사〉 〈화엄경〉 등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집필됐다. 국내서 구하기 쉬운 서적과 비전문가들이 취재한 인터넷상의 주마간산 식 자료는 현지 지식인들의 이야기와 다소 차이가 났다. 이에 저자는 그간의 오해를 바로잡거나 그릇된 가설에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가능한 한 현지 지식인과 인터뷰를 많이해 잘못 알려진 지식과 오보를 바로잡고자 했다.

검증된 사료와 언어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자가 발견한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다섯 나라가 그저 낯선 땅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글은 저자의 감상과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전문 작가의 사진으로 한층 심도 있게 다가온다. 나라별로 이 책에 담긴 저자의 견문을 짤막하게 소개한다.

부탄 "그들에게는 불교가 곧 삶이다"

이 세상에는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는 나라가 있다. 국민의 97퍼센트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부탄이다. 이 곳은 동화적인 나라다.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고, 살아 있는 꽃을 꺾지 않으려고 화병에는 조화만을 꽂는다. 돈 벌려고 관광객 유치에 애쓰지 않는 대신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려고 관광객을 제한한다. 이런 배경에는 국민을 위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국왕들이 있다. 부탄의 역대 국왕들은 권력의 반을 승단에 넘겼고 국민에게 자신이 가진 땅을 나누어 주었으며, GNH(국민행복지수)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해왔다. 저자는 특이한 행정 청사인 '종(Dzong)'을

5개 불교국가 순례기록 정리
우리역사와 언어 접점 찾아 비교
현지 지식인과 많은 인터뷰 나눠
전문 사진 현지 분위기 생생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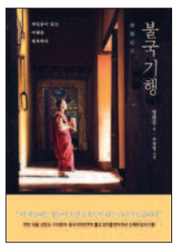
비롯해 탁상 사원, 질루카 사원, 디첸포드랑 승가학교, 치미라캉 사원, 키츄 사원 등을 둘러보며 불교문화가 훌륭한 정치 지도자와 만나 국민을 위한 아름다운 정책으로 꽃피운 나라 부탄의 독특한 역사와 매력적인 문화를 전한다.

네팔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나라"

네팔은 다양한 소수 종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답게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문화가 특징이다. 국민은 대부분은 힌두교 신자이나 실제로는 시바나 부처 등 다양한 신에 의지하며 산다. 불교와 힌두교의 갈등을 방지하는 '쿠마리'는 네팔 사람들의 지혜롭고 독특한 문화다. 5, 6세에 쿠마리로 뽑힌 여자아이는 초경 전까지 살아 있는 여신으로 대접받는데, 네팔 사람들에게는 종교간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통이다. 저자는 보드나트 스투파, 바그마티강, 더르바르 광장, 아소카 스투파, 스와얌부나트 등을 통해 힌두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네팔의 특별한 문화를 엿볼 기회를 선사한다. 특히 최근 지진 피해로 사라진 유적들도 사진으로 볼 수 있어 독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움과 반가움이 교차할 수 있다.



부탄서 학생이 가장 많은 디첸포드랑 승가학교



불국기행
정찬주 글
유동영 사진
작가정신 펴냄
1만 8천원

남인도 "석탈해와 허황후 발자취 따라서"

남인도 답사는 아소카왕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동인도를 통일한 아소카왕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그리스까지 전법사를 보내는 등 부처님 열반 이후 200년 만에 불교를 세계화시킨 전륜성왕이다. 아소카왕은 처음에는 잔인한 정복자였으나 수십만 명의 전쟁 사상자를 본 후 생명 존중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을 따른다. 케랄라주 까르마이 꾸탐 사원은 아소카왕이 보낸 전법사 라키타가 활동한 곳이다. 남인도 지역 왕국들은 아소카왕의 뜻을 받아 전법사 활동을 했으며 불교 융성의 기반을 보장해 주었다.

이에 아소카왕은 부처님법이 남인도에 전파된 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남인도 땅을 정복할 욕구를 느끼지 않았다. 남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아마라바티는 부처가 다녀간 지역이며, 전법사 마하데바가 아마라바티 대탑을 세운 곳으로 아소카왕이 순례를 와서 세운 팔각석주가 있다. 한편 남인도 서 저자는 석탈해와 허황후의 흔적을 찾는다. 벨란카니는 신라 6촌장과 석탈해가 떠나온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며, 첸나이 마리나비치에 있는 마을 아요디아 꾸빰은 허황후의 고향으로 보이는 곳이다. 벨라카니에는 신라 4대왕 석탈해와 같은 석 씨의 집단 거주지가 있다. 타밀나두주 첸나이 지역의 아요디아에서는 가야국의 문양인 쌍어문이 많이 발견된다.

스리랑카 "기독교 침략 속에서 불교 지켜"

스리랑카는 서구 침략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자가 70퍼센트인 나라다. 450여 년간 이어진 기독교 국가의 지배에도 불교문화가 굳건히 유지된 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스리랑카 불교의 기반이 튼실했다는 방증이다. 스리랑카에는 아소카왕의 딸 상가밋타가 부처님이 정각(正覺)을 이룬 인도 부다가야에서 가져온 보리수가 있다 해서 '보리수 사원'으로 불리는 스리마하보디가 있다. 저자는 스리랑카 최초의 절인 이수루무니야 사원, 루완웰리세야 대탑, 시기리야 왕궁터, 부처님 치아 사리가 있는 불치사 등을 비롯해 아소카왕의 아들 마힌다가 스리랑카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미힌탈레를 방문하고, 폴론나루와의 심장이라 불리는 갈비하라 사원에서 열반상과 아난 존자상의 장관을 목격한다.

중국 오대산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다"

중국 불교문화 순례는 우리나라 화엄사의 동생뻘이라 할 수 있는 대동시 상화엄사 대웅보전을 보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5만 1천여 존에 이르는 불상과 보살 등이 있는 무주산 운강 석굴, 현존하는 목탑 중 제일 크고 오래된 불궁사 응현목탑, 석가모니 사리가 봉인된 탑원사 대백탑, 임제 선사의 사리 및 가사와 발우가 봉안된 임제사 징령탑, 천년송이 있는 계태사 등을 방문하고 참배한다. 또 당 나라 때 신라 구법승 혜초가 머물면서 〈천발대교왕경〉을 번역해 불단에 올렸던 금각사 등을 찾는다. 그런데 중국 여행이 갖는 의의는 저자가 목격한 다수의 불교 유적 자체에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에 있다.

조주선사는 '평상심이 도'라고 말했다. 집착과 욕망을 씻어내라는 가르침이다. 오늘날 여행자들은 대개 무언가를 얻고자 떠난다. 삶의 목적 또한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저자를 따라 중국을 여행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은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禪은 언어 절제하는 切玉刀"

〈절옥도〉

소리없는 소리

원각 행담 스님 지음 | 글앤북 펴냄 | 1만 3천원



"자신을 만나려거든 자신을 보려거든 그 누군가를 늘 사랑하라. 무명에 가려진 사랑이든 무명을 벗어난 사랑이든 그 누군가를 사랑하라."
(자신을 보려거든 中)



강원도 삼척 영은사 주지 원각 행담 스님〈사진〉이 문단 등단 이후 첫 시집인 〈소리없는 소리〉를 최근 펴냈다. 책 제목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선(禪)과 시(詩)가 조우하는 자리를 찾고자 용맹정진중이다. 위에 소개된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담 스님의 시어들은 얼핏 처음 읽어보면 현학적 기교가 없어 다소 투박히 느껴진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 있는 속 내용만큼은 불법(佛法)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다. 따라서 행담 스님은 전형적인 직관파(直觀派)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시평론가인 엄우는 "선객(禪客)에게 시(詩)는 선을 장식하는 비단 위의 꽃이요, 시인에게 선은 언어를 절제하는 절옥도(切玉刀)이다"라고 말한 바있는데 저자의 시어들이 바로 그렇다.

승려시인에 걸맞게 저자는 시를 통해 존재 본연에 대한 통찰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비록 수록된 운문들이 짤막하지만 깊은 심연의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총 87편이다. 선리(禪理) 및 선지(禪旨)가 담겨 있는 것이 많고, 산중생활 수행과 풍경을 비유한 산거시(山居詩)와 산정시(山情詩)도 대거 들어 있다. 이 시들을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산사에 들어 온 자연 △깨침의 미, 깨침의 울림 △나그네의 말, 주인공의 말 △자유로운 바람의 말 △세상에 던지는 여시아문 등 5개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책 순서도 이에 맞게 구성돼 있다. 책 속 등장 시어들을 꼼꼼히 관조하다보면 저자의 시상을 가늠할 수 있어진다. 행담 스님은 수행자 본분에 걸맞게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는 고요, 묵언, 응시로서 자연과 세상을 관찰하고 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유인으로서의 걸림없는 풍모를 엿볼 수 있으며, 언어의 상징성을 통해 삶을 추상하고 반영하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시조시인인 정휴 스님(영은암 회주)은 추천사를 통해 "행담 스님의 시들은 번다하지 않아서 좋고 깨달음을 좇고 있다는 점에서 믿음이 간다"며 "행담 시인이 시단의 흉악한 도적놈이 되어서 이 우주의 언어를 모두 훔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부분 이 책에 등장하는 시어들이 직관적이라 이해하기 쉬어 책장이 술술 넘어가지만, 그래도 시집 말미에 엄창섭 관동대 명예교수(수필가 · 월간 모던포엠 주간)가 쓴 '생명의 시학과 묵언의 통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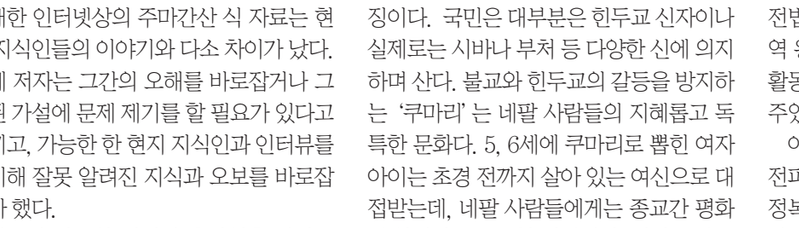
詩語, 존재 본연에 대한 통찰 심화
산거 · 산정류 시 등 총 87편 수록

담의 시적 자유로움과 삶의 잠언'을 주제로 시어들을 꼼꼼히 읽어보면 한결 이해가 빠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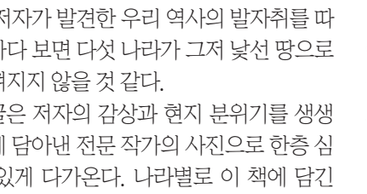
엄 교수는 행담 스님의 시세계를 세 관점으로 나눠 해설했다. '따뜻한 감성과 세계인식' '사유의 깊이와 느림의 시학' '시적 합리성과 응시' 등이 그것이다. 엄 교수는 글 말미에 밝혀둘 소회란 제언을 통해 "구도자의 신분임에도 행담 스님이 문학을 축으로 윤무하며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헤아려 시집을 묶어 지극선을 위한 일념으로 세상에 내어 놓으니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행담 스님은 글 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조애가 깊다. 표지 그림도 행담 스님이 직접 그렸다. 이 그림은 고래를 형상화 한 것인데 단순한 듯하지만 격외(格外)와 해학(諧謔)을 동시에 표현 했다. 이렇게 행담 스님의 그림 또한 선기(禪氣)가 물씬 느껴진다. 한편 저자 행담 스님은 두타문학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현재는 조계종 삼척 영은사 주지로 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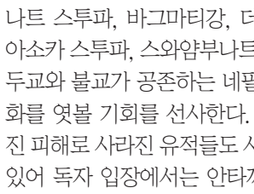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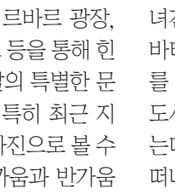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진귀(眞歸) 수행자와
마주앉아 차한잔의
친견만 해도
각종 말기암 환자의
암성 통증 및
고통들이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법력이
과연 가능한가?
답은 화엄경에 있다.

불가사의한 수행자 ~ 진귀(眞歸)의
화엄경 강좌

- 강의일자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인터넷 강좌 개설 준비중
- 강 의 료 : 1년에 50만원(월 5만원)







■ 진귀 수행자가 직접 편저한 화엄경 책은 전국서점에서 판매중이며 수행센타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화엄경 책값 15만원임》
■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각종 종교적 방편및 천도재 등은 일체하지 않으며 특히 유사 의료행위 및 대체의학 등은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한잔의 친견만 합니다.
■ 진귀 수행자의 친견은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1일 2명만 친견 합니다.

화엄경 수행센타 문의 ☎ 1899-9532

숭산 선사가 한국불교계에 남긴 과제는?

숭산 행원의 생애와 사상

최용운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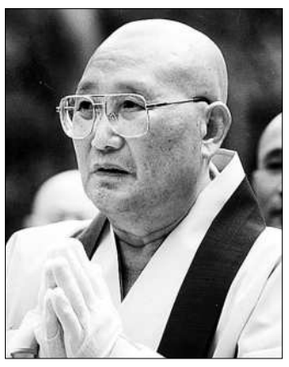
한국불교에서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우리 불교를 알린 사람은 누구일까? 제일 먼저 숭산행원 선사〈사진〉를 꼽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숭산 선사는 1966년 재일 홍법원 설립을 시작으로 35년여 동안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 선 센터를 개설했으며, 5만여 명이 넘는 해외 제자들을 배출한 큰 위업을 남겼다. 하지만 그간 숭산선사에 대한 한국불교계의 반응은 다소 미온적이었을 뿐 아니라, 선사의 수행론 및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 기류마저 감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숭산선사가 개발한 간화선 수행체계, 일명 '십문관'이 일본 임제종의 참선 수행체계를 수용했다는 점, 선 센터 내 조직 운영에 남녀차별, 출재가의 구분을 없앴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책은 숭산선사 수행론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기반으로 선사가 개발한 간화선 수행체계와 일본 임제종의 참선 수행체계 간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숭산선사의 간화선 수행체계 개발의 의의에 대한 저자만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또한 선사의 업적이 현대 한국불교의 포교 역사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국내외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이와 함께 이 책은 간화선의 한반도 도래 이후 수행법의 변천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서구사회에 불교가 전파된 역사적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도 제언한다. 그리고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 · 세계화 과제와 관련해 숭산선사의 행적이 갖는 의미와 선사가 한국불교계에 주는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 책은 세 가지 문제의식이 근간을 형성한다. 그 첫 번째는 숭산선사에 대한 국내 불교계의 평가가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불교계에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형성됐는가에 대한 것이다. 간화선의 대중화를 천명하지만, 정작 현실은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이 과연 대중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한국 간화선 세계화를 위해 수행법의 개선이 필요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총 6장으로 나눠 숭산선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1장 '숭산행원의 선사상과 수행론'에서는 먼저 숭산이 활동한 시기의 시대적 ·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어서 숭산 선사상의 특징을 다룬다. 숭산선사는 경허선사의 법맥인 덕숭문중의 조사선, 특히 간화선을 중심으로 하면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유불회론을 역설한 데 그 사상적 특징을 드러낸다. 아울러 선의 실천성과 세계화를 강조한다. 이를 위해 일본 임제종의 수행체계를 상당 부분 도입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편으로서였다.

제 2장 '숭산행원의 업적에 대한 포교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대중포교, 나아가 세계포교를 위한 숭산의 활동을 시기별로 나눠 고찰한다. 여기에는 승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동국대 석림회의 창립 지원, 화계사를 대중포교와 국제포교의 중심지로 한 점, 불교 언론으로서의 불교신문의 토대 확립, 그리고 관음선종의 창립과 이를 토대로 한 세계포교 등이 포함된다. 제 3장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이론적 기반 정립'에서는 먼저 간화선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대혜종고의 간화선을 시대적 · 사상적 측면서 객관적으로 고찰한 다음, 보조지눌의 간화선이 지닌 특징을 짚어보고, 한국불교계서 간화선 수행과정이 지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제 4장 '한국 간화선 수행법의 변천사'에서는 먼저 한국 간화선의 수행법적 정체성 확립을 제안하면서, 한국에 간화선이 어떤 배경과 경로를 통해 수용되고 실천됐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에는 고려 후기 몽산덕이의 간화선 도입과 특징, 그리고 여말삼사에 의한 간화선 수용, 고봉원묘의 〈선요〉가 한국 간화선 수행법에 변화를 준 상황 등이 포함돼 있다.



35년간 32개국에 120여 선센터 개설
숭산선사 간화선 수행론 체계 분석
간화선 세계화 위한 제언도 수록

제 5장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한 제언'에서는 19세기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특히 유럽에서 불교가 수용된 상황을 시기별로 면밀히 고찰한 뒤, 유럽의 불교수용 맥락서 분석한 한국 간화선의 장점과 문제점을 다룬다. 그리고 문제점의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화두 참구, 새로운 화두의 개발, 입실제도의 필요성, 사제관계의 유연성 등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 · 세계화와 숭산행원 선사가 한국불교계에 남긴 과제'편에서는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 간화선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숭산선사가 대중포교와 세계포교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방법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아울러 숭산 선사가 시도한 방법들에 대해 대승적이고 통불교적인 차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숭산선사의 사상과 수행, 그리고 포교방법을 다룬 이 책은 한국 간화선 대중화와 세계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일 것 같다.

김주일 기자

명상과 비움으로 마음의 군살 뺀다

숨 명상 통한 마음다이어트법 제시

마음 다이어트

김대선 지음 | 책나무 펴냄 | 1만 4천원



우리는 몸의 작은 상처에는 호들갑을 부리지만 정작 마음의 상처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마음도 몸과 마찬가지로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환기 시켜주지 않으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노폐물로 쌓이고 이것은 감정 비만의 원인이 된다. 육체적인 비만과 달리 감정의 비만은 잡념의 산물인 탁한 기운이 몸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 지속되면 질병으로 나타난다. 지식, 돈, 음식, 권력 등 채우는 방법만 배우고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잡념과 욕심을 비우는 일에는 주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무언가로 마음을 채우는 것만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저자는 숨 명상을 통한 마음다이어트의 방법을 제시한다.

명상이 좋다는 것은 알아도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많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빠른 환경 변화, 다양한 루트의 감정 스트레스에 매일 시달린다. 그래서 넘쳐나는 감정 스트레스의 장애물을 먼저 비워내지 않으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마음 다이어트〉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숨 명상은 명상의 참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숨 명상은 자세를 취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과

"자세 바르게 취해 깊은 호흡하라"
감정장애물 떨치면 생각 올바로 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 운동법이다. 또한 마음의 군살을 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인도와 서양을 통해 들어온 명상의 이론이 아닌, 우리 문화에 녹아 있는 수련의 흔적으로 명상의 필요성을 찾는 이 책은 전문적이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설명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 보내는 일"

팔만대장경 지킴이 故 성안스님 1주기 추모집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꽃피우다

성안 스님을 그리는 사람들 지음
라이프맵 펴냄 | 1만 3천원



평소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연구 · 보존하는 데 앞장서 온 성안 스님의 생전 글을 모았다.

지난해 4월 88고속도로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입적한 성안 스님이 떠나고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이미 가버린 이의 형상을 지우지만, 바람은 또 다시 성안스님의 향기를 몰고 와 남은 이들의 그리움을 더 크게 한다.

이 책은 일찍이 고려시대 의천스님이 말씀대로 "대장경 편찬은 천년의 지혜를 천년의 미래로 보내는 일"을 받아 그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성안 스님의 글들을 담았다. 고려인들이 그 이전 천년의 지식과 기술을 모아 천년 후의 우리에게 보낸 대장경을 연구하며, 앞으로 천년 후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성안스님의 노력이 오롯이 녹아있다. 성안 스님이 생전에 출가와 사찰 생활, 팔만대장경에 얽힌 이야기를 적은 글과 선후배, 도반들의 추모 글을 모았다. 그 참여 인원만 23명에 달한다.

천주교 집안서 태어난 성안 스님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해인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외국인들에게 해인사를 더 잘 설명하고 알리려고 영어를 배우러 미국도 갔다왔다. 2011년부터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국장을 맡아 원력을 펼쳐왔다.

성안 스님, 지난해 교통사고로 입적
선후배, 도반 등 23명 추모글

지인들의 글들은 스님을 생생히 재조명한다. 해인사 승가대학장 원철 스님은 "벗으로 삼을 만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삼익우(三益友)였다. 정직했고, 믿음직했고, 견문이 넓은 사람"이라고 평했다. 종현 스님도 대장경 보존후원 회원 1만명을 모집한 성안 스님을 '대장경 영업 사원'이라는 위트있는 말로 회고했다. 모두들 그리워 했다. 글 속에 물씬 풍겨난다. 그 그리움들이.

김주일 기자

〈바가바드기타〉 '삼가해' 시도…"〈기타〉는 사유의 동반자"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

김호성 지음 | 올리브그린 펴냄 | 2만 5천원



인도 성전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로 약칭함)에 대해 삼가해(三家解)를 시도한 동국대 김호성 교수〈사진〉의 〈바가바드기타의 철학적 이해〉가 출간됐다. 〈기타〉는 원전이나 주석서의 번역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지 오래 됐지만, 학계의 형편은 다르다. 〈기타〉를 중요 주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인도 철학이나 종교 연구자라면 〈기타〉에 대한 논문 1편은 쓴다는 점이다. 저자 김호성 교수에게 〈기타〉란 '사유의 동반자'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나의 철학(=자기 철학)을 형성해 감에 있어서 〈기타〉의 논의들을 하나의 소재로서 활용해 간다. 자주 반추(反芻)하는 철학적 테마 상당수는 〈기타〉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철학적 테마를 놓지 않는 한, 〈기타〉에 대한 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저자는 샹카라(Sankara, 700~750)나 틸락(Tilak, 1856~1920)과 같은 주석가들 역시 그렇게 자기 철학을 형성해 감에 있어서 〈기타〉를 마음껏 활용한 것은 아닌가 라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삼가해(三家解)'의 서막을 열었다.

저자에 따르면 해석이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각각의 해석에는 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틈새가 바로 〈기타〉 주석가들이 주목하는 지점(地點)이고, 이로 인해 해석의 차이(差異, 差移)가 생겨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에게 '틈새' '지점'은 바로 '해석의 차이'인 셈이다. 샹카라가 본 〈기타〉가 다르고, 틸락이 읽은 〈기타〉가 다르며, 저자가 생각하는 〈기타〉 역시 다르다. 이런 '다름'이 비판을 낳았다. 틸락은 샹카라를 비판하고, 저자는 틸락과 샹카라 모두를 비판한다.

그럼 세 명의 주석가들에게 〈기타〉의 주제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말한다. "샹카라에게는 지혜의 길입니다. 행위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거나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는 해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지혜를 얻기 위한 간접적 원인으로 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를 버리고 출가해 산냐시(포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탈을 얻은 뒤에도 굳이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틸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샹카라가 말하는 포기의 길은 곧 출가주의를 찬양하고 있는데, 잘못입니다. 〈기타〉서 말하는 포기는 내적인 욕망의 포기이지 행위 그 자체의 포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틸릭에게 〈기타〉는 행위의 길 하나를 말하는 텍스트입니다."

저자는 두 선대 주석가 모두를 비판한다. 지혜의 길 하나만을 설하는 것으로 보는 샹카라의 관점은 잘못이라는 틸락의 비판은 타당하다. 그러나 틸락의 관점 역시 문제가 있다. 믿음의 길을 배제하고서 행위의 길 하나만을 설한다는 관점은 잘못이기 때문이다. 행위의 길을 중시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은 다시 지혜나 믿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기타〉에는 제시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지리산다슬기 진골드]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개월/60팩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02)879 - 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125,000원 (무료배송)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연기적 사유 '상호부조'로 세계 변혁 꿈꾸다

불교로 읽는 古典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붓다와 닮은 아나키스트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상호부조론(Mutual Aid)〉은 일반인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사상이나 사회사상을 전공한 사람에게는 그리 낯선 이름이 아니다. 크로포트킨의 이름과 저서는 일제 강점시기에 이미 많은 아나키스트 독립 운동가의 관심이 되었고 서적과 팜플렛 등 다양한 형태로 알려졌다.

크로포트킨은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에게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한국에는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서 우당 이회영, 단재 신채호, 유자명, 우관 이정규 등이 있다. 이렇게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은 일제 강점기에 이미 소개되었고, 그 계기는 인문학적인 관심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비전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번역본은 1983년 출판된 故 하기락 경북대 교수(열렬한 아나키즘 운동가)가 번역한 것과 2006년 출간된 〈세계를 뒤흔든 상호부조론〉이 있다.

필자가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을 접한 것은 30대 초반의 대학원 시절이었다. 그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을 읽으면서 어찌 이리 붓다의 사상과 닮았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지 크로포트킨의 생애마저 붓다의 일생과 유사하게 보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크로포트킨은 러시아에서 1842년 귤지의 귀족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스위스와 영국에서 40여년의 망명생활을 하는 등 파란만장의 일생을 살았다.

그는 아나키스트 혁명가로서, 지리학자(생물학자)로서 다양한 저서를 출판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상호부조론〉이다. 그 외 〈근대과학과 아나키즘〉, 〈빵의 정복〉, 〈전원 · 공장 · 작업장〉 등이 있다. 크로포트킨은 말년에 온 정열을 다해 〈윤리학〉의 저술에 전념하다가 1921년 2월 6일에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모스크바의 거리에 5마일의 검은 깃발(아나키즘 정신의 상징)을 든 시민행렬이 그의 상여 뒤를 따랐다. 그것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붉은 공산당 정권에 대한 최후의 항의 행진이었다. 크로포트킨은 오스카 와일드 등 많은 지인들로부터 오늘날 간디나 슈바이처에 비견되는 세속의 성자로 불렸다.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의 버나드 쇼(Bernard Shaw)는 "크로포트킨은 성자라 이를 만큼 다정하고 그의 복스러운 붉은 수염과 인자스러운 표정은 디렉타불 산(촌로 역정에 나오는 아름다운 산)의 양치기 모습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매우 부드럽고 다감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매우 뛰어난 이론가였다. 또한 아나키즘이 테러나 파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온건한 이상주의적 사회변혁의 이론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한 것은 주로 크로포트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상호부조, 생명체 생존 양식

1914년 출판된 〈상호부조론〉은 결코 책상머리에서 쓰인 책이 아니다. 크로포트킨은 서론에서 이 책의 탄생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젊었을 때부터 동

간디에 비견되는 '세속의 성자'
동북아 아나키즘 형성에 영향

인간의 역사는 '상생'서 비롯
'상호부조' 통한 협력사회 주장
'自他不二' 연기사상과 맞닿아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 1842~1921)의 사진. 프랑스의 만화가이자 사진작가인 펠릭스 나다르가 촬영했다. 아나키즘 운동가였던 크로포트킨의 중심 철학은 '상호부조'에 있다. "만물은 서로를 돕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상호부조'는 불교의 연기론과 맞닿는다.

시베리아와 북만주를 여행하면서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는가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리고 탐사 장소를 옮겨 다시 확인하는 긴 과정을 통해 나온 책이다. 그는 어떤 교조의 선전자가 아니라 과학과 진리의 탐구자라는 자세를 굳건히 견지한 사람이다. 치열한 아나키스트 혁명가인 그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경이심이 든다.

이 책은 생물학(지리학)의 범위를 넘어 인간 삶의 양식과 비전에 많은 지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구과정을 담은 긴 '서론'과 '동물들 간의 상호부조', '야만인들 간의 상호부조', '미개인들 간의 상호부조', '중세도시의 상호부조', '우리들 자신의 상호부조'로 각각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장을 마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고 상호부조의 다양한 사례를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동물들 간의 상호부조'에서 개별 동물들 간의 투쟁을 최소한 줄이고 상호부조의 실천을 최고도로 발달시킨 종(種)이 가장 개체수가 많고, 번영하고, 미래가 보장된 종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들 간의 상호부조'에서는 석기 시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호부조의 긴 발자취를 살피면서 상호부조가 인간의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당시에 이룩한 급속한 산업 혁명과 진보도 당시에 풍미되었던 경쟁과 개인주의의 승리라고 보는 견해를 반대하면서 인간 간의 상호부조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상호부조의 개념은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 철학의 요체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윤리적 원칙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는 윤리와 도덕은 인간의 본능적 사회성으로부터 생성되었으며 진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인간의 본능적 사회성이란 사람들 간의 행복의 긴밀한 의존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자기 자신의 그것과 동등하다고 느끼게 유도하는 정의와 평등의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지인 것이다.

〈상호부조론〉에 나타난 사상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인류의 생존은 바로 상호부조 내지 상호협력에 절대적으로 힘입은 바가 크고, 따라서 갈등보다는 협조가 역사 과정이나 그 전개의 근본적인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주장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주장하는 홉스(Hobbes)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유행되고 있는 적자생존의 진화론에도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상호부조의 정신이 없다면 약탈을 일삼는 동물이나 노예를 거느리는 개미가 멸망하듯이 인간도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상호부조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윤리학〉이라는 대저에 몰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러한 큰 바람은 안타깝게도 완성되지 못하고 그는 지구별을 떠난다.

상호부조는 연기적 사유서 비롯

필자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읽으면서 붓다의 연기법과 자비사상의 체취를 흠뻑 느낀다. 즉 상호부조론을 붓다의 연기론의 변용이고 화엄사상의 한 지류라고 생각한다. 붓다는 일체 존재방식을 연기의 원리로 풀어 나간다. '연기'라는 말은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뜻이다. 일체의 존재는 모두가 그럴만한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인드라망의 구슬 속에 같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 용어로 사용해 보면, 모든 존재는 '의존적 상호발생(dependent co-arising)'을 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연결된 덩어리이며 여기에 타자는 없다. 나와 타자는 하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 어깨동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의 자비사상이 나온다.

필자는 크로포트킨이 상호부조의 가치를 통해 〈윤리학〉 저서를 완결했다면 이를 '상호 윤리(Mutual Ethics)'라 호칭하고 싶다. 상호윤리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상호의존적 관계로 보고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아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계와 그 경험을 해석하는 코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상호윤리에서는 규범이 이성의 명령이나 어떤 절대적 존재의 승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조건이 되는 관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호윤리의 규범과 가치들은 개인적인 행복과 사회적인 변화 사이에 깊은 의존관계가 있음을 뜻한다. 이에 상호윤리는 다른 존재에 대한 깊은 배려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윤리는 바로 자비 정신의 한 실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아나키즘과 자비 실천

현대사회는 종래의 도덕적 규범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의 저명한 학자 울리히 벡(ULlich Beck)은 이러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자비 윤리의 정립과 실천을 불교의 과제로 주장한다. 붓다가 제시한 지혜의 목적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 바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열반의 경지는 모든 존재가 행복을 누리며, 정토 즉 바른 사회에서 사는 것이다. 자비는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는 일찍이 아나키즘을 연구하면서 붓다 사상이 현세적인 정치이념으로 현신한다면 상당 부분이 아나키즘과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가졌다. 아나키즘은 자연론적 정의관, 자주적 개인, 공동체 지향, 권위에의 저항 등을 기본 가치로 내세우면서 자유공동체 구현을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다.

21세기 사회의 특성과 관련하여 아나키즘적 사유의 틀은 여러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아나키즘은 정치 이념이라기보다는 생활양식과 사회 운동적 차원에서 더욱 의미가 있겠다.

크로포트킨의 사상과 상호부조론은 붓다의 자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싶다.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큰 그릇 자랑만 하고 강물을 뜰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한국 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자비 실천에 대한 것은 미흡해 보인다. 불교가 현대사회와 인간 삶의 현장에서 생동감 있고 효율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비 실천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은 열반의 세계로 가는 두 바퀴이다. 상구보리를 통해 지극한 행복을 얻고 하화중생을 통해 바른 정토를 만드는 것이다. 상호부조의 가치를 내세우고 행복하고 바른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 온 크로포트킨은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크로포트킨은 붓다의 충실한 제자임에 틀림없다.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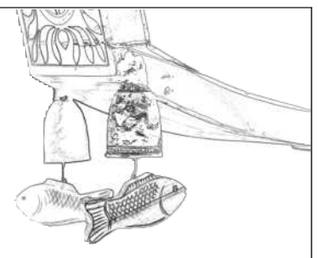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하거나 수단을 써서 거짓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불설범망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명리첩경의 저자 -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분
010-4482-4684
010-3054-3345



범패의식 교육도량

의식을 쉽게 개인지도
일반의식 바라, 작법무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점안식,불교행사
(보현사)
011-482-2091
051-557-1130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육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얼굴손금만 봐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 한눈에 알수 있다
  암질병,선소문제재판기족,교통사고운을 알 수 있다
- 관상, 손금, 성명학, 타로, 사주
  (개인지도, 단체)
- "관상과 손금 임상비법"
  책 출간 (판매 중)

010-4014-8822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전
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네이버 검색 「맥승정」 클릭
010-8862-1908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 진실로 간절하게 기도 하실 기도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태고종비구니스님환영)
- 불심깊은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경남 거제, 옥녀산 자락)

010-7169-9878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515-0664

공부하면서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10-9340-39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010-3647-0018

주지 원합니다

미륵신앙을 받은 60대
비구스님 안계신 절.
합의 운영 포교. 정기법
회. 불교대학 가능한 절
031-733-1125

적은 보시금 받고 남은 여생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세수 55-63세
비구 스님 모십니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499-3721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공주, 계룡산)
042-825-1724

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하고 조용한 산내암자,
기도하며 공양주할 불심 있는 불자 공양주 구함
(경북 예천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불교수련원, 사찰 명당 터 (경기 양평)

- 위치 :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685-1 산음캠핑
- 현 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나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하여 드립니다.
- 18,000여평에 캠핑장 15동 / 수영장, 체육시설 완비
- 가액 : 38억

문의전화 : 010-6335-069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2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염불,기도소리 들리는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53-474-8228, 010-8582-7034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기문둔갑 강의안내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기문을 보면 부모, 형제, 부부, 자식 등의 운명을 알 수 있다. 본인 운명에 공직자,사업자,직장자가 정해져 있다. 공직 생활할 운명이 사업을 하면 실패하며, 사업자가 왜 실패를 하는가. 왜! 부도가 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며 학생이 왜 공부가 안되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 공부가 안되는지 본인과 잘 맞는 학과 선택을 잘 알 수 있으며, 본인이 어떤 질병을 타고 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게 기문이다.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도 5개월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아는게 힘이다. 성의껏 강의 해 드립니다.

(스님직접 강의, 항상 문의 가능) 010-3544-9777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 (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헌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 능가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하동
- 청정 계곡접, 토지 약 5,500㎡
- 목조법당 98㎡, 요사 73㎡, 공양간
- 양도금액 : 15억원(융자가능)
- 지리산 위치 접근성 좋은 최고 사찰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광진 사찰 안내

◎ 위치:서울시내 ◎ 위치:경기
◎ 부지:120평 ◎ 대지:220평
◎ 법당:60평, 교통편리 ◎ 법당:30평
◎ 요사:60평 ◎ 요사:100평
◎ 양도:15억7천 ◎ 양도:6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김천시 사찰 급 양도
* 목조 법당 80㎡, 요사채95㎡. 토지3,600㎡
* 시내아파트 부근접, 근성좋은 산쪽 사찰
* 양도가 : 5억 8천만원. 사찰주변 바위가 좋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한 옥 주 택

산자락 예쁜한옥 비움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드립니다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주거지역 위치
- 내용 : 대지 139평, 건평 140평, 3층건물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지장단 영단 법단 단청, 방 6개
- 공양간, 창고, 차고, 다용도실, 화장실 3개
- 시설완벽, 몸만 오시면 됨
- 8m 도로접, 초등학교 100m 버스 전철역 200m
- 가액 : 14억 (학업관계로 급 안내)

051)754-3375

사 찰 안 내

- 위치 :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980번지 (칠서 IC에서 5분거리)
- 대지 330평, 삼신각 5.2평, 대웅전 15평 요사채(가건물) 30평
- 가액 : 4억 5천

010-4819-86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가격조절가능)

010-4725-5907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 도심 사찰 의창구
- 교통, 경치, 생활방편 양호
- 슬래브지붕, 토기와 올렸음
- 6층 전체사용, 상가빌라 2채
- 도시가스, 수도직수, 지하주차장
- 전유면적 많음
- 건평 : 종교시설 601호 33.56평, 법당, 단청 602호 요사채 26평, 주택
- 가액 : 3억

010-4548-766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성주군 가천면 용사리
- 가야산 국립공원, 해발 600m 지점, 청정지역, 경관수려
- 부지 약 360평, 건평 45평, 임법당 준공 1년
- 가액 : 1억 6천만원

010-4564-8108

암 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옥과설산, 적송림 7부, 사자앙천혈
- 산 : 1만 2천평, 종교부지 650평, 약사석불 12자
- 건물 : 경량철골 3동, 합 52평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암반수, 초중고 대학교 유
- 가액 : 3억 7천 (장난전화사절)

010-8224-16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신정동
- 6층 건물중 2층 90평
- 법당, 요사채, 공양간, 친견실
- 시설 특 A, 시설비 답사후 절충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292-1090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 1121, 1121-1, 1125번지
- 종교부지 : 302평, 과수원 390평
- 전기, 토목공사 완료
- 지관이 추천한 명당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156-9687
현장 답사후 연락주세요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영광군
- 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6평
- 연못 차고 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235-11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 용흥동 구포항역 도보5분
- 평수 25평, 법당, 방한칸, 주방
- 집기류 일체 두고감
- 가액 : 보증금 5백 월 20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0-7788-3320
010-3290-6699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2차선 대로변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053-651-1514
010-2500-1514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 매각(가격 협의)

010-5097-346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4층 중 3층
- 32평, 법당, 방 2, 베란다, 도시가스, 주방
- 가액 : 전세 150만원 월세 36만원 시설비 약간(절충가)

010-9342-9794

법당,포교원 안내

- 위치: 안산IC,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역세권
- 교통편리,유동인구, 유동차량 많은 대로변에 위치
- 법당, 포교원, 수련원으로 아주 적합
- 상가형성 잘되어 입지조건좋고, 일체 종교행사 민원없음
- 전철, 농수산물시장10분거리
- 4층독채(엘리베이터있음), 실평수 60평, 법당, 주거 겸용 풀완벽 리모델링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 90만원 시설비 4000만원, 가격절충가능

핸드폰 010-5913-7239
010-3145-86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부전시장 서면역5분거리 포교원 최고의 위치
- 5층건물에 4층 47평(엘리베이터)
- 법당(20평) 삼존불, 신중단, 영가단 후불탱화 108호신불, 완벽시설.
- 강의실(명리학, 불교대학, 불교의식)겸 공양간(17평), 종무실, 주지실 (10평)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
- 명리학 공부하신 스님 최고의 조건
- 현재 수강생 30명, 천도재 상담 많음

010-3711-5072

강 원 영 월

- 위치: 강원 영월 삼방산 부근
- 전 2,417㎡. 전 1,802㎡
- 귀농 주택 8가구
- 약초, 버섯, 가축
- 가액 : 4억 5천

주직 010-5705-886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초목이 가득한 암자
- 유실수, 정원수 가득, 넓은 공간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1년 350만원
- ※ 양도도 가능

010-8826-8373

사찰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 소재
- 황금동 교통 15분, 김천역 20분
- 건물 : 벽돌조 독채 104.54㎡(32평)
- 대지 : 도지료 년 35만 (311㎡)
- 내용 : 법당, 거실주방, 방2, 세면장
- 2차선 대로변 남향 상가지역
- 교통좋은 포교지 법당 넓음
- 양도 : 5,350만원,법적보장(개인등기)

054)43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근방 포교원
- 2층 건물 중 2층
- 사용면적 60평, 옥상전체 사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추후 결정
- 시설완벽, 즉시법회

010-8725-319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 5분거리 소사역 6분거리
- 5층 건물에 5층 100평(엘리베이터) 법당 50평, 삼존불, 신중단, 삼성단, 영가단, 각단 후불탱화, 호신불, 관음, 지장, 법당전체 단청
- 공양실, 종무실, 접견실, 방4개, 화장실2개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절충가), 스님 건강 관계

010-4413-42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우포늪 주위
- 평수 248평, 대웅전, 삼존불(단청)
- 삼선각 요사채, 창고 1동, 컨테이너 2동
- 2차선 도로 옆
- 가액 : 3억 절충가

011-571-4002

도심속의 작은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서문시장 부근
- 한옥 13평 올 수리
- 법당, 관세음보살, 호신불32존상
- 방1, 욕실, 주방, 다용도실 아주 생활하기 편함
- 멸이나 철학으로 포교하기 좋은곳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6,500만원 대출1,500만원 됨

010-8439-1231
(꼭 하신분만 연락)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사천시내 (전통시장 입구)
- 평수 : 45평(3층 건물 3층)
- 시설 최고, 입지조건 최상 즉시 법회
- 직접 방문 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3,500 만, 월10만 월세조정가능

010-3118-11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대출 4천안고 1억 2천 5백만원

010-8794-1257

전원주택-사찰 양도,차판판매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 대지 약 600평 주거건물 및 창고 포함
- 입주 후 바로 생활 가능
- 별장으로 최상. 가야산 정상 조망 수도자분께도 최적의 장소 텃세없고 조용한 마을
- 개인소장 차판 판매(번개맞은 나무. 기목. 괴목. 대추나무 등) 기암괴석
- 고가구 판매 • 가액 : 3억5천

010-8880-8911

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8223-4879

명당사찰및별장터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도심 작은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장한평(5호선 5번출구 5분) 자동차시장 끝 쪽
- 건물 : 도시형 오피스텔 170실의 10층 건물에 2층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세음, 소불 30불 대세지, 지장보살, 탱화 일체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결정

010-9105-002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춘천시 동부시장 내
- 2층 50평, 삼존불, 산신각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9235-7513

사 찰 전 세

- 위치 : 서울 근교 수도권 위치
- 총부지 200평 위에 산세수려하고 목조단청 전통사찰로써 포교 30년된 사찰
- 공찰소임관계로 비구니스님 원함
- 가액 : 전세 3억 이상

010-5466-3321

마 산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무학산 입구 주차편리
- 2층 건물 1층 법당, 2층 방 2칸, 친견실 별도
- 특징 : 37년간 암자로 사용
- 삼존불, 용왕당
- 건물 깨끗함(몸만오시면 됨)
- 가액 : 전 월세(8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7169-9878

암자 및 종교부지 안내

- 위치 :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쑥골)
- 지목 : 토지임야(계획관리지역+보존임야)
- 평수 : 약 2200평(진입도로 포장완료)
- 특징 : 서울에서 약1시간대 거리, 평당 10만원
- 위치 :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 지목 : 생산관리지역(토임)
- 평수 : 약 333평 • 향 : 동향 ~ 동남향
- 평당 : 30만원 • 진입도로폭 6M 포장완료

주인직접 010-2215-3657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지묘동 파계로
- 대지 300평
- 법당, 방 9개
- 석불 다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년 선불 30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9735-80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 및 비품시설 일체완비
- 주차 시설 좋음
- 아늑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10-3937-3020
010-3123-3113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신녕
- 전답 3000여평
- 가옥 60여평 한채 토지조성 완비 대형차 진입가능
- 사계절 물 흐르고,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곳 주변 경관 좋음
- 가액 : 4억

010-6253-3127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공유지 포함 약 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답사후 절충가능,시설비 포함)

010-3895-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요지
- 평수 50평, 3층 건물 중 1층 법당 장엄함, 쑥찜질방2칸, 쪽방2칸, 거실 부엌
- 주차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법회즉시 가능함
- 보증금 8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 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별 장 토 굴 안 내

- 위치: 양산 원동면 화제리 성지골마을 대양산, 물금 IC에서 20분
- 대지 150평, 건평 40평, 2층 양옥 별장주택(2층 : 큰방1, 큰거실, 욕실)
- 정남향에 조용하고 탁트인 시원한 전망 수행하기 좋은 명당터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 3억

주인직접 010-6525-3817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토니 버나드

〈3〉 아픈 나를 받아들이기 ㊦

통제 안되는 것 놓을 때 평정심 찾아온다

자신을 향한 자비심 키우기

자비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모든 삶 속에 존재하는 고통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자비로운 행동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비심을 갖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타인을 향한 자비심보다 훨씬 어렵다.

네 가지 거룩한 상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역경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이 네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다. 토니와 손녀딸 멀리아가 로스앤젤레스를 돌아다니다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오면 내가 어떻게 공감을 실천했는지. 즉 그들의 기쁨에 어떻게 함께 기뻐했는지 기억하는가. 하지만 때로는 평소보다 유달리 아프거나 기분이 우울한 날 그런 전화가 오기도 한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얘기할 때면 공감 수행 덕분에 적어도 질투심은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자비 수행으로 전환해서, 그들과 동참할 수 없기에 내가 겪는 고통에 대해 자비심을 키운다. 자애 수행을 할 때처럼 정해진 '자비심 기도문'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슨 말이든 이용해서 나 자신을 위로한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들과 그토록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어야만 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지."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갈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에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자비심을 키우기 위해 구체적인 말들을 찾는 것은 언제나 그 고통을 줄여 준다. 자비심을 키울 때 나는 이따금씩 고통이나 괴로움, 스트레스의 근원을 직접 지칭하는 말들을 찾는다. 물론 그 근원은 두 번째 고귀한 진리가 가리키는 것, 즉 지금 상태 이외의 다른 것을 원하는 욕망이다.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이구나."

무슨 말을 선택하든 나는 종종 한 손으로 다른 쪽 팔을 쓰다듬는다. 이 행동은 나로 하여금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게 했다. 하지만 자비의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다.

나는 초기 바이러스 감염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했다. 마치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것이 나의 탓이거나, 어딘가 의지가 부족해서이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생각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다. 우리 문화가 만성병을 다룰 때, 고통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실패 중 한 종류로 대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런 편견은 드러나지 않거나 무의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지할 수 있다. 병은 그저 병일뿐이며 나 개인의 실패가 아님을 계속 상기시켰다. 하지만 내가 마침내 나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손을 내밀기까지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순간이 필요했다.

그 일은 추수감사절에 일어났다. 당시 나는 일 년 반 동안 아픈 상태였지만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여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에스콘디도(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로 가겠다고 했다. 그곳은 우리의 사돈인 밥과 재클린 부부가 몇 년 째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를 초대한 곳이었다. 토니가 샌디에이고 공항에 도착한 나를 태워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이 여행이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밤에 호텔에서 잔 것을 제외하고는 그날과 다음 날을 사돈집 침대에서만 보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프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웠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일로든 스스로를 비난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고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 병이 나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자비로운 일깨움을 마침내 받을 준비가 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경험은 병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내 능력의 첫걸음으로 기록되고 있다.

자신을 향한 자비심을 키우는 방법은 만성병에 동반되는 강렬한 감정들과 감정 기복에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수행은 2009년 노동절 주말에 우리 딸 가족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찾아온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시작되었다. 나는 새로운 치료를 석 달 동안 받은 상태였고 그 결과를 낙관하고 있었다. 실제로도 나는 평소보다 더 오래 모든 식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예전의 아픈 자신으로 되돌아간 듯 느끼며 일어났다. 그날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 이 치료법도 다른 치료들처럼 나를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두려움은 점점 강력해졌다.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두려움, 두려움. 이것은 두려움이다. 내 마음은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삶의 다른 모든 경험들 옆에 두려움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마음이 툭 트이고 활짝 열림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삶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온갖 다양한 감정들에 마음을 여는 것이었다.

수취인 없는 편지는 되돌아간다

평정심은 거룩한 마음 상태의 네 번째 요소이다. 내 컴퓨터에 들어 있는 사전에는 평정심을 '고요한 마음과 침착한 성질.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평정심이라는 핵심 불교 관념과 수행법에 대한 훌륭한 정의이다. 평정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스승들은 이 정신적 상태를 '깨달음'과 동일시한다. 깨어남, 해탈 혹은 자유로도 알려진.

만성병 환자들에게 평정심은 특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마음 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감을 주는 가르침과 실제 수행 기법 둘 다를 가까이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성병 환자들의 어려움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첫째, 사람들이 병에 대해 만들어 내는,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으며 종종 무신경하게 느껴지는 많은 말들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 둘째, 만성병에 따라오는 예측 불가능성과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는 일. 셋째, 건강 직업 친구 활동성 금전 등의 상실에 압도당하지 않는 것.

만성병 환자라면 누구나 첫 번째 도전에 여러 번 직면했을 것이다. 내 경우처럼 그 병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특히 그러하다. 여기서 첫 번째 도전이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침착함과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그 말들은 설령 좋은 의도였다고 해도 사실과 동떨어진 것들이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오해받고 있거나 종종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고정된 자아가 없는 실체에 대해 튼튼한 기초를 다져 놓았다면 이런 종류의 말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잔 차는 이 점에 관해 탁월한 조언을 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했을 때 우리가 '자아'라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건은 말로써 끝나고 우리는 고통을 겪지 않는다. 불쾌한 기분이 일어나면 그 느낌들이 우리가 아님을 깨달으면서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게 만들어야만 한다. (중략) 사선에 서 있지 않으면 총을 맞지 않는다. 수취인 없는 편지는 되돌아간다."



그것이 고정되지 않는 자아와 평정심의 본질이다. 마음 상태가 고요하고 한결같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무신경한 말들은 다만 수신되지 않을 뿐이다. '무신경한'이라는 단어조차 힘을 잃고, 말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났다가 통과해 지나가기만 한다. '수취인이 없는' 것처럼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로운 대화법'(여덟 가지 바른길 중 바른 말)을 배우는 것이다. 여기서는 붓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정도만 말해 두어도 충분할 것이다. 해야 할 말이 진실하고 친절하고 도움이 될 때만 하라고.

삶의 모든 고통에 마음을 열자
병을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평정심의 본질은 받아들이는 것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한 평화

만성병 환자들은 특정한 날에 어떤 증상이 자신을 지배할지 조차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1990년대에 태국 밀림의 승려인 아잔 줌니안이 여느 해처럼 '영혼의 바위'에 방문했을 때 나는 성실한 자세로 참가했다. 언제나 그렇듯 기쁨과 웃음이 흘러넘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평정심에 대해 강연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내용을 받아 적었다.

사람들이 "아잔, 아름다운 길로 산책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좋습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것 역시 좋습니다. 나는 산책이 혼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우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깥은 날씨가 덥거나 바람이 불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식사량을 조절해야 하니까요.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것은 좋습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그것 역시 좋습니다. 눕기에 좋은 구실이 되니까요.

아프게 되고 난 몇 년 뒤에 나는 이 종이를 발견했다. 내가 처한 새로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으니 평정심의 본질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치료약이 듣지 않을 때면 나는 실의에 빠졌고 의사가 내 기대치에 미치지 않으면 화를 내곤 했다.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통찰이 무관심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관심이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삶을 미묘하게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관심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상황은 있는 그대로야. 그러니 누가 신경이나 쓴대?'로 바꾼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평정심을 키운다.

"만약 이 약이 도움이 된다면 좋을 거야. 그렇지 않다고 해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 그건 내 몸이 필요로 한 게 아니었어."

두 번째 평정심 수행은 또 다른 태국 밀림의 승려 아잔 차로부터 유래한다. 우리가 이미 들어 본 이름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아잔 차 스님의 오두막 A Still Forest Pool》에서 이런 말을 했다.

"조금만 내려놓으면 조금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으면 많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겪는 당신의 힘겨운 투쟁은 끝날 것입니다."

나는 이 가르침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평정심을 향해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을 내딛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에 앞서 나는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고통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 욕망 속에 존재하는 고통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나를 잡고 있는 고통의 손이 느슨해진다. 그렇게 하자마자 나는 자유를 조금 맛보게 되고, 이것은 내가 조금 더 내려놓게 되는 동기가 된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겪고 있어. 하지만 좋든 싫든 그것은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 조금만 내려놓아 볼까? 아기 걸음마만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또 다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 몇 분 뒤 나는 평정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복잡한 일들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오는 자유도 함께 맛보면서.

물론 우리의 성향은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이 그것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통의 삶을 준비하는 셈이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잔 차가 말한 평화와 자유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겪는 힘겨운 투쟁이 끝날 것' 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완전히 내려놓은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도 괜찮다. 약물이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의사가 나를 실망시켜도 괜찮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나로 하여금 조금 내려놓도록 영감을 준다. 그러면 많이 내려놓기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이따금씩 나는 일순간 완전히 내려놓는다. 그리고 평정심이라는, 자유와 평온함의 그 축복 속에서 나오는 빛을 받는다.

이 글은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문학의 숲)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도무지 잠이 안와!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푹자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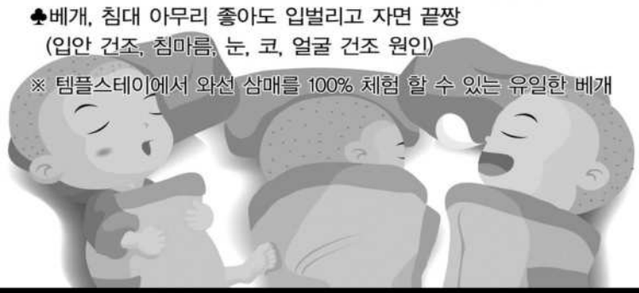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僧家 秘傳 風水學 講義

옛 승가의 비전 풍수학 강의 개설
스님들을 위한 공간 확보

제가 불자를 위한 방편지학
천문과 지리를 알면 운명이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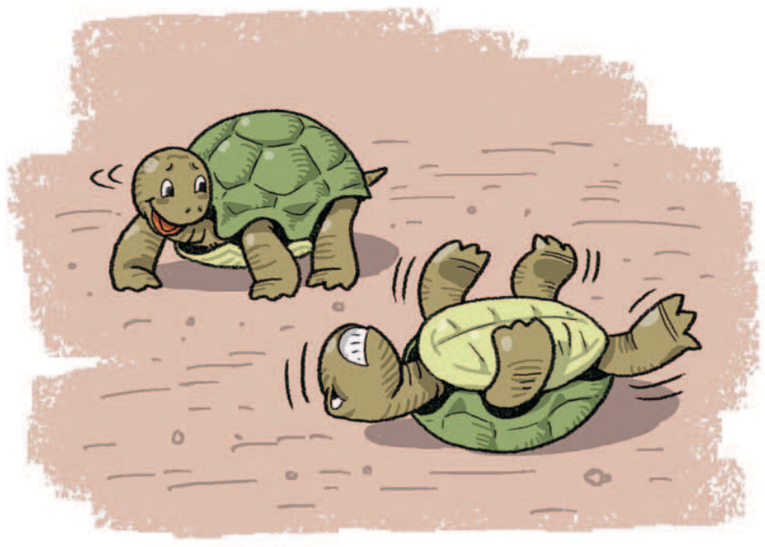
■ 모 집 : 수시 모집
■ 시 간 : 매주 목,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서초동 신논현역 교보문고타워 뒤 정통풍수지리학회
■ 교 재 : 유리자(유리자동서), 옥룡자(무감편) 무학대사 (동사심전) 외 등 승가 비전 풍수 중점 강의



전화 ☎ 010-5559-1529
지방 강의 개설 문의 받습니다.

예봉 합장

행복도 불행도 비교하지 않겠어요



나보다 어렵고 불행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행복해' 하며 비교하지 않겠어요

I wont' feel smug when I see how much better off I am than other people.

"장애가 있긴 하지만 나는 인생이 즐겁다.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울적하고 어두운 인생살이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팔다리가 없는데도 매일 활짝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나는 나의 신체가 지닌 장애를 결코 불행한 쪽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개성적인 것이다. 장애와 행복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토다케 히로타다(1976~)가 쓴 『오체불만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체는 몸의 다섯 부분을 가리킵니다. 머리, 두 팔, 두 다리. 오토다케는 그 가운데 네 개에 불만족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팔과 뺨 사이에 연필을 끼고 글씨를 써야 하고 가위질도 한 쪽은 입에 물고 한 쪽은 팔로 눌러가며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불쌍하다며 혀를 찰 만하지만 오토다케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애는 신체의 특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토다케는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지원 아래 남들과 똑같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위해 10cm도 안 되는 팔다리로 운동을 배웠습니다. 일본의 명문대학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축구와 농구를 하며 놀아주었습니다. 교실에서의 경험을 소설로 썼고 최근에는 보육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나는 낫구나'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불행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과 나를 비교하며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비교하며 기뻐하거나 노력을 합니다. 나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나눠줄 것은 없나?', '사회에 불행한 사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여러분은 오토다케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자기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얼굴 찌푸리는 대신 환하게 웃겠어요

I will turn my frown upside down into a smile!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의 일입니다. 링컨의 친구가 비서로 일할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링컨은 그 사람의 이름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되네."

링컨의 친구는 의아했습니다. 링컨도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한 소녀로부터 표정이 무서우니 수염을 길러보라는 편지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얼굴이야 타고 나는 게 아닌가. 결코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니 이해할 수가 없군."

"태어날 때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 40대부터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 나이쯤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왔는지 얼굴에 모두 나타나게 되지."

링컨의 친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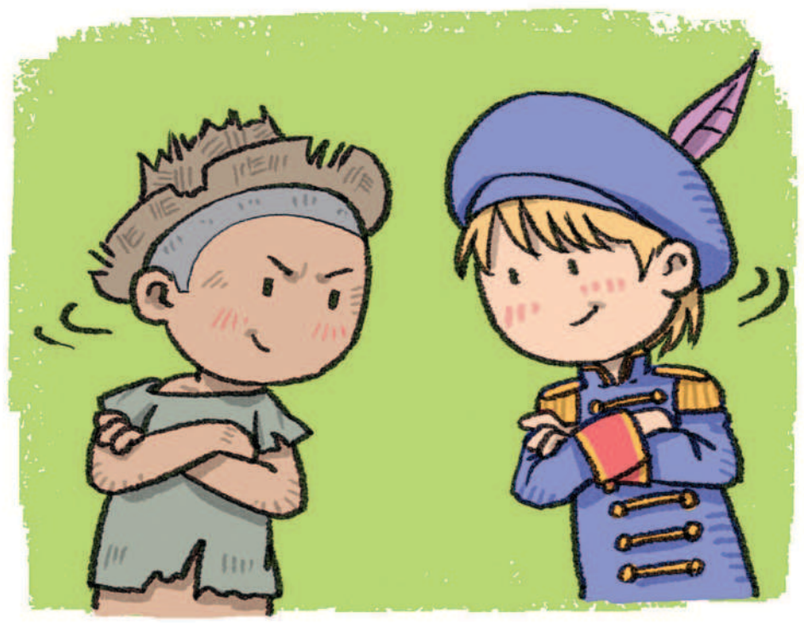
링컨의 말대로 사람의 행동습관이나 생각은 얼굴에 무늬를 만들게 마련입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얼굴에 생긴 주름도 미소를 지어서 생긴 것과 인상을 써서 생긴 것은 위치나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늘 웃고 있고 찌푸리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은 늘 찌푸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입 꼬리를 올리며 웃으면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억지웃음이라고 하더라고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려면 많이 웃으세요. 웃을 일을 많이 만드세요. 옆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웃음은 남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치료약입니다.



* 여러분은 자주 웃는 편인가요?
* 무엇 때문에 자주 웃나요? (무엇 때문에 자주 웃지 않나요?)
* 40대 이후의 내 얼굴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생각해 보아요.



* 여러분은 어떤 꽃이라고 생각하나요?
* 나보다 나은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어떻게 이겨냈나요?)
*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보다 잘 사는 친구를 보면서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When I see people who have lots of money, I won't feel sorry for myself.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꽃이 있습니다.
다 꽃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략〉

꽃들은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최선을 다해 피어날 뿐
어느 꽃에게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시샘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자신답게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는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필가로도 활동했던 법정 스님(1932~2010년)의 책 〈산에는 꽃이 피네〉에서 옮긴 글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이겨내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니 서로 비교하며 시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호승 시인도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는 시에서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꽃입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달라도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메르스와 불교의 역할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병고액난에 불교계가 취할 대 사회적 역할이 있을 것이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이기에 '바이러스(virus)'와 관련한 질병에는 속수무책으로 개인의 위생관리만 철저를 기하면 되는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직접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더라도 기본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현대적 해석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구현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 · 질병 · 범죄로 인해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고통을 경험한다. 전쟁 · 질병 ·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방일함에 기인한다. 전쟁은 특정 국가나 민족이 영토 · 자원 · 금융 · 에너지와 운송수단 등을 장악할 목적 또는 특정사상이나 종교이념으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으킨다.

인간은 온갖 질병(불교에서는 '사백사병(四白四病)'이라 함)에 노출되어 있다. 의학적 처방으로 치유가 되거나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 있는가 하면, 악성전염병과 같이 수습과 치유에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 있다. 그렇다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예에서 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불교적 관점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기본적인 사고와, 인간은 고난을 창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 초기에 소수의 발병자 발생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감염원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고 보균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격리돼야 할 사람들이 격리범위를 제멋대로 이탈하는 것 등, 그 내외적 요인은 결국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의 아만(我慢)과 아상(我相), 무책임 그리고 어리석음(치암:癡闇)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제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관계자들의 정신세계가 책임감으로 철저하게 무장돼 있지 않거나 긴장감이 풀어져 있다면 무용지물이다. 이유 불문하고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있어서 초동조치에 실패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 삼성의료원 등 연관된 병원과 감염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더 이상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 등, 그간의 시행착오는 결국 아만과 어리석음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메르스를 퇴치하려고 불철주야 애쓰는 관계 공무원들이 있고, 감염의 위험에 강도 높게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환자 치유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의료인들이 있으니 이들이 비록 불자는 아니라 해도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 즉, '누구를 막론하고 전체를 위해 조건 없이 자비행을 베푸는 분'들이라 하겠다.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스스로 솔선수범 하며 "메르스 의심증상 안심하고 진료 받으세요"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외시(無畏施:중생에게 두려움 없게끔 해주는 행위로써의 보살행)'라 할 수 있다.

불교계는 전략적으로 국가와 사회지도층에게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세계관을 인식시켜야 한다. 불교는 질서를 세우며 세상에 자비를 구현하는 종교로서 이제라도 사회에 질서와 자비심을 뿌리내리게 하는 구체적인 방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교단 차원에서 실행해야 한다.

종교계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직자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민은 경제활동 등 일상에 충실하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대로 즉시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의료 및 관계기관의 종사자와 방문자, 병증 의심이 있는 자, 발생지역 거주자 등은 만일을 대비하여 방문한 장소, 이동 정보, 만난 사람들을 소급해서 일일기록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리는 위기에 강하고 합심하는 민족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메르스 퇴치에 다 같이 적극 협력한다면 조기 퇴치가 가능함을 확신한다. 조계종단도 메르스 치유에 혼신을 다하는 관계자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큰 위험성이 없는 한 이미 계획된 교계의 행사는 현장에서 가능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예정대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 바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무외시의 실천이며, 법좌 부동의 멋일 게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동국대는 '주인 의식'이 필요하다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주인을 맞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로 개교 109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는 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을 한몫에 스님으로 추대하여 지난 6월 11일 교내에서 합동 취임식을 가졌다.

법인 이사장(제38대)은 일면 스님, 그리고 대학 총장(제18대)은 보광 스님이다. 지난 85년 황진경 스님 이사장, 이지관 스님 총장에 이어 해방 후 두 번째로 이사장과 총장이 다같이 스님으로 종립대학의 책임자들이 된것이다. 따라서 학원 내에서나 교계 안팎에서는 의외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아시아 대학평가'에 보면(6월 10일자 A14) 조계종립 동국대는 국내순위에서 14위고, 아시아 전체 순위에서는 77위이다. 국내 대학이 200여 개가 넘는 것을 감안할 때 14위는 상당히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것이고, 아시아 전체 수백 개의 대학을 염두에 둔다면 이 또한 중위 이상의 순위로서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국내 순위 14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동국대에 대하여 요즘 인식을 달리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국대와 역사가 유사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수준임을 부인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동국대는 아직도 밤잠 자지 않고 분발해할 여지가 많다.

이사장과 총장의 취임사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고 있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먼저 섭심(攝心) · 도세(度世) · 자애(慈愛) · 신실(信實)의 건학이념 구현을 강조하고 재정의 확충,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재단 유휴자산의 활용 등 다방면에 걸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 학원 내 각급 학교의 합리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신상필벌의 원칙을 지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건학이념 구현, 재정확충, 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장 보광 스님의 대학운영 지침은 첫째 풍요로운 대학, 둘째 참사랑 열린 교육, 셋째 대학다운 대학으로의 복귀, 넷째 일산 동국대 병원의 최고 대학병원화, 다섯째 신바람 나는 대학 만들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는 그간 외부에서 영입한 CEO형 총장들이 외부평가지표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동대가 학문 중심이기 보다는 기업형 대학으로 치우친 자세에서 탈피, 대학의 본래면목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포부다.

여기서 다 부연할 수는 없지만 한 총장의 이러한 비전이 모두 성취된다면 분명 동국대는 크게 변모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국대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형성된 고질병을 고치지 않고는 가망이 없다.

첫째 고질병의 하나는 인치(人治)다. 약삭빠르고 아첨 잘하는 몇몇 사람이 이사장이나 총장의 총신(寵臣)이 되어 대학 행정이나 인사를 전횡, 학내의 화합을 파괴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조직을 퇴영(退?) 시키는 그런 비합리적인 적폐들은 이제 과감히 척결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다. 동국대가 2005년부터 근년까지 겪은 신정아 사건은 권한 행사만 있고 책임은 따르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그동안 동국대의 명예와 위상을 국내외로 한없이 추락 시키고, 미국 예일대와의 소송비용으로 무려 64억원의 교비를 탕진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학교나 법인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일대와의 소송도 이 사건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동국대는 마치 임자 없는 대학과 같다.

학교 책임자들이 제멋대로 권한행사만 해놓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는 일이 없는 무주공산, 이제 동국대는 이런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때문에 신임 이사장과 총장에 거는 교계와 대학 구성원들의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社說

6.25 전쟁 65년, 잊혀진 폐사지 복원

오늘은 북한이 외세를 등에 업고 남침한 6. 25 발발 65주년 되는 날이다. 해마다 이날을 맞지만 200만 명의 사상자와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처참했던 동족상잔으로 국군 13만8천여 명이 죽고 2만여 명이 실종됐다.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군인이 13만여 명이다. 불교계의 피해 또한 크다.

조계종 문화부가 2014년 펴낸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지〉편에서 한국전쟁으로 폐사된 사지 목록을 살펴보니 전국에 다수가 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로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서 추린 리스트로 이들 지역에만 22곳의 폐사지가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이외 지역까지 포함하면 40여 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그나마 남아있는 출토유물의 훼손 또한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상태여서 이들 폐사지에 대한 보존과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실전에 대비해 6월 16일 특수전사령부서 군 사상 최초로 한미연합군종 야외기동훈련(이하 FTX)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보통 군종장교는 장병들의 심신안정과 인격지도 교관으로 활동한다. 최전선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병사들이 사망시에는 천도의식까지 치러준다. 심신 안정은 전쟁시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다. 그래서 미군은 걸프전 이후 군종장교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지난 65년전의 상흔을 치유하는데 우리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6. 25전쟁의 진실을. 그래야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기 때문이다.

70돌 맞는 교법사단에 거는 기대

일반적으로 불교 종립학교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인 '교법사'가 있다. 이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불교를 정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인재들로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교화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조계종 전국교법사단(이하 교법사단)이 올해로 창단 7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6월 26~27일 창립기념법회를 열려고 했지만, 메르스 여파로 9~10월로 행사가 연기됐다. 하지만 청소년 포교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교법사단의 효시는 1945년 해방 이후 각 불교 종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법사 제도를 두고 학생들에게 교학수업을 실시한 때로 본다. 1962년 8월 10일 불교교육연합회 전신인 불교종립학원연합회가 발족되고 1968년 2월 20일 불교종립학원연합회 주관 제1기 교법사 자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제도화됐다. 처음에는 교사도 학생들도 무관심했지만 교법사들의 열정으로 불교 교육에 있어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됐다.

교법사단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포교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과연구회에 '서울초중등행복인성교육연구회'를 지난 4월 등록했으며, 불교 사상을 핵심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가 드러나면 교육청 인가를 받아 일반 학교 교사 및 교법사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원 지원으로 청소년 포교자료집 〈행복일기〉를 7월 1일 공식 발간한다. 이 역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명상일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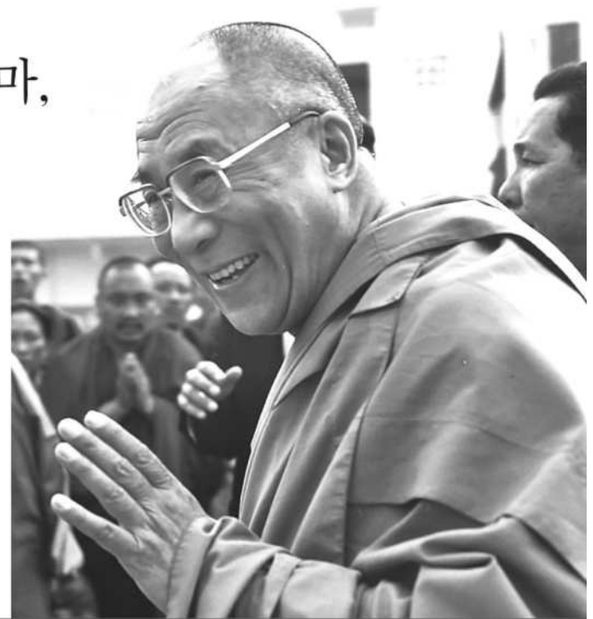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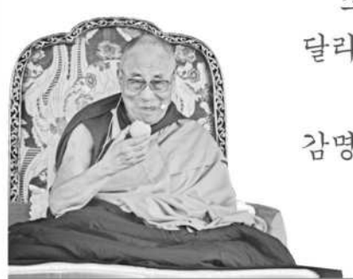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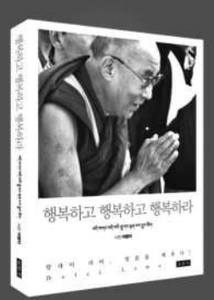
7월 21일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인성 교육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미래의 인재들이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교가 인성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법사는 시대에 맞는 불교 교육론과 교재를 개발해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인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불자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교법사단의 향후 역할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온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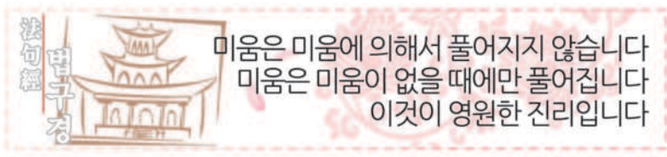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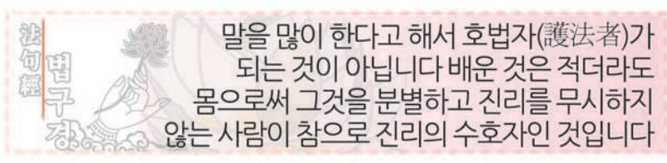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김영사

"마음속 피는 꽃이 당신의 부처님입니다"

댓잎의 속삭임, 차 한 잔의 기쁨, 5분의 명상… 송광사 승가대학장 덕조 스님이 불일암에서 띄운 작고도 섬광 같은 깨달음의 순간들

마음꽃을 줍다

화제의 신간

덕조 스님 글·사진
232쪽 | 12,900원



생각이 단순하면 마음이 깊어진다고, 기도한 만큼 성숙해진다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고 스님 특유의 따뜻하고 겸허한 향기로 풀어내는 기도의 단상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가 읽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서 좋습니다. 이해인 수녀 | 《마음꽃을 줍다》가 불일암에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 많은 독자가 자신의 인생에 더 깊이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현각 스님

덕조 스님 | 법정 스님의 맏상좌로, 법정 스님께서 머무시던 불일암에 살며 수행하고 있다. 1983년 송광사로 출가하여 송광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대만에서 계율학을 공부했다. 전 서울 길상사 주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 현 순천 송광사 승가대학장으로 후학을 지도하며 정진하고 있다.



TEL: 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사람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

"누군가 미워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괴롭진 않나요?"
나에게서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의 기적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 본래 모습 그대로 반짝이며 살라

Good Citizen

틱낫한 | 유향란 옮김 | 288쪽 | 값 12,000원



바로 네 마음 안에 자성 부처님이 계시니 거기에 말겨라!

옛날에는 머슴을 부릴 때에 상당히 악하게 부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소작을 주면 곱을 받고, 못 갚으면 이자의 이자를 받고 이자의 이자를 받고….

그런데 어떤 지주가 사람을 부리는데 청지기를 두고 부렸는데 아, 가서 소작료를 받아 오라면 가난하니까, 밥을 굶을 지경이니까 못 받아 오는 겁니다. 그러면 못 받아 온다고 야단법석이 나고 뭐, 매를 때리고 그랬죠. 그런데 매를 맞아도 가 보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명을 내려요. 젊은 사람들은 돈 해 올 때까지 머슴을 살라고요. 자식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돈 갚을 때까지 거기 붙들려 가서 삽니까? 혹은 딸이 있거나 그렇다면 딸을 뺏어 가서 돈 가져 올 때까지 묶어 두는 거죠.

그렇게 나쁘게 악행을 저지르고 돈을 모아서 천석꾼이 되고, 천석꾼이 되니까 만석꾼이 되고 싶어서 동네 고을 안을 그냥 전부 망하게 만들어 놨죠. 살 수가 없어서 전부 흩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의 종으로다가 매여서 살게 되고, 그러면 빚을 못 갚죠. 그렇게 악행하던 사람이 죽어서 떡 가 보니까 말입니다, 문서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곳간에 들어가 보니까 남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장부에 전부 자기가 돈 뺏어 먹고 사기쳐 먹고 또 소작을 주면 몇 곱쟁이로 받고 그런 기록이 전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옥황상제가, 말하자면 사왕천으로 이 사람을 처리하라고 내보낸 거죠, 지금 우리 법정에서 하듯.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독사지옥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의식 자체를 독사굴에다 넣으면요, 독사로밖에는 태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독사로 태어나면 뱀 종류인데 그걸로 습이 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걸로 살던 습이 또 남아서.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악행을 저지른 그 의식 자체가 그 뱀 몸에, 이 세포에, 가죽 비늘에, 이 속 오장 자체에 전부 들어서 그 뱀도 악독하게 만드는 거야. 악독한 의식들이 다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게 해서 뱀으로 천 년을 구르다가 어느 때에 어느 절 돌담을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목탁 소리가 찡하게 들리고 종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멈춰 서 있다가 돌담을 돌아서 다시


그림 · 최주현

올라가서 보니까 큰 넓적한 돌이 하나 있거든. 그 밑에 들어가서 있으려니까,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 넓적한 바위 밑에 가 있으니까 스님네들이 시식을 지내고 정성을 들이고 그러고선 밥 조금하고 과일하고 뭐하고 뭐하고 담아서 돌에다 갖다 놓거든요. 돌에다 갖다 놓고선 스님네가 하는 소리가 '너희 축생들도, 벌레들이라도 이 밥을 먹고 모든 걸, 옷을 벗어라.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하고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걸 갖다 놓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가 많이 있었죠. 갖다 놓으면 새들도 와서 먹고 쥐도 먹고 다람쥐도 먹고 뱀도 먹고 그래요. 그렇게 그 밑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 은은히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들은 것도 사람으로 살 때에 그래도 부처님한테 가서 한 번이라도 빌었기에 그 인연으로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 있는 뱀을 이렇게 땅꾼이 쥐고 쭉 훑어서 껍데기를 벗기고는 그냥 보약이라고 하고 그걸 그냥 구워서 토막을 내서 먹었거든. 그러니까 천 년을 그렇게 헤매는데 땅꾼한테 붙들려서 자기 몸뚱이도 막 훑이는 거지. 그러니까 수백 번 그런 거를 당하고 이러면서 지내 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제. 내가 한마디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간곡한 그 소리를 듣고서 돌에 올라가서 그 밥을 먹었어요. 먹고는 자기가 회상하기를, 자기의 그 예전 의식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악업 선업이 다 여기 자기한테 들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인정 쓴 거는 인정 쓴 것대로 여기 있거든요. 부처님한테 가서 잘되게 해 달라고 빈, 그래도 그런 인연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퍼뜩 생각이 나는데 자기는 그저 이 밥을 먹고라도 이 옷, 모습을 벗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서 거기에서 인제는 다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요. 그래서 먹지 않고 있다가 그 돌 밑에서 허물을 벗고 그냥 천도가 됐더래요.

그래서 사람으로 천도가 돼서 살고 있는데 어떠한 인연을 만났느냐 하면,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볼기를 때리고 몹시 부렸던 그 사람, 그래서 다리까지 병신이 된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양반의 집에 태어나고 이 사람은 또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인으로 살던 그 사람은 양반의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슴 노릇을 하는데도 아주 그 주인이 인자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도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머슴 노릇 하는 사람이 전자에 양반으로서 그 사람을 몹시 부렸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런데 그 주인이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자에 회개를 했지만 뱀 모습만 벗겨졌지 그 악독한 인연에 따라서 과가 된 거는 몸속에 다 그냥 들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인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이러는 거예요. 뭐를 해 오라면 그저 좀 남겨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그 습이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주인은 그거를 알면서도 '에휴, 불쌍한 사람이 좀 더 먹은들 어떻고 우리가 덜 먹은들 어떠랴.' 이렇게 주인은 그런 거예요. 본래부터 그렇게 착했으니까. 그렇게 착하게 주인이 그러면 그거를 고맙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질 않거든요. 그런 걸 자주자주 보게 되자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이 주인이 그 머슴을, 즉 말하자면 과거의 자기, 천 년 전 얘기예요, 인제. 그렇게 연결이 되면요, 그게 벗어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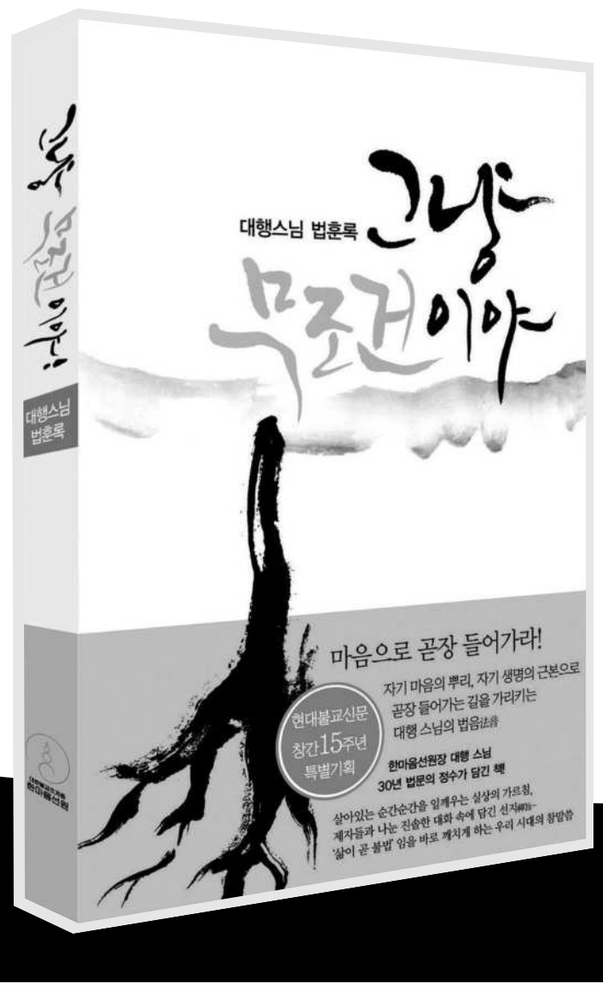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 양반 부부가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그 머슴이 자기가 그렇게 잘해 주는데도 나쁜 일을 하니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은 당신이 예전에 머슴 노릇 할 때 몹시 못살게 굴던 바로 그 양반이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곧이듣지 않으려 해도 곧이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로 돼 가지고 떨어졌다가 부처님의 인연으로 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당신이 착해서 이렇게 와서 빌어 주니 이걸 내가 말을 해 주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길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집에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마음만 고친다면 오늘부터라도 저 죄가, 모든 것이 사해질 텐데, 무너질 텐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속일 줄만 알고 그저 몇 섬을 들여오면 몇 섬은 빼먹기가 일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예 종 문서를 태워 버리고 "너는 자유인으로서 나가서 좋은 일을 해라.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야 요다음에 자식들한테도 그런 일이 미치지 않느니라." 하고 내보냈거든요. 집도 주고 논마지기 줘서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논마지기 줘서 내보내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 거기에 스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내를 너무 두들겨 패요. 너무, 말도 못 해요. 술 먹었다 하면 그냥 작대기든 뭐든 아랑곳없어요. 전자의 그 악독함이 들어서. 그러니까 맘대로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거죠. 두들겨 패니까 참, 살 수가 없었어요. 자식은 낳고 사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지만 예전에야 그렇게 뛰쳐나갈 수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거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죽어도 살아도 남의 탓 할 게 하나도 없어요!

☞ 29면에서 계속

어느 담 모퉁이에서 울고 서 있는데 스님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붙들고선 "스님,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잘못을 막론하고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매일같이 저렇게 때리고 벽에다가 그냥 머리를 잡아서 치고 그래서 이 골이 흔들리고, 너무나 이거는 못살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악독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너는 또 뱀을 있는 대로 죽였어, 두들겨 패서." 그러는 겁니다. 하하하. "그래서 네 남편은 뱀이 화해서 사람이 된 거고 또 그렇게 얽힌 거야. 너는 뱀을 두들긴 그 남자가 바로 여자로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인연이기 때문에 네가 때린 것만큼 너는 맞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면할 길이 없으니 내가 일러 주는 대로 하라." "어떻게 해야만 쌍방이 다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첫째, 그저…." 예전에는 자리가 있죠. 돗자리요. 돗자리 수효가 얼마나 많소. "돗자리를 두르르 말아서 아주 때리기 좋은 데다가 놔둬라. 그러면 그걸로다가 몇 번 맞으면 그거는 사해질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것이 사해지걸랑 아무 데 산골짜기 절에 오너라. 내가 일러 줄 게 있느니라." 아, 그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손 싸게 쥐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얼큰히 술을 먹고 들어오더니만 그저 손에 닥치는 대로 쥐니까 그걸 쥐고 그냥 뭐 사정없이 때린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실컷 때리고 나서 잠을 자더래요. 잠을 자고 나더니만 "내가 당신을 왜 그렇게 때렸지? 이상해. 여보, 당신을 왜 이렇게 내가 때렸지?" 하면서 자다 깨 가지고 "미안하오." 하고 손을 쥐면서 다시는 때리지 않더래요. 그래 그때서부터 절에 가자고 그랬더래요. 그 얘기는 안 하고 "스님이 지나가시는데 우리 내외를 오라고 합디다." 하니까 "글쎄, 가야지." 하고 그렇게 착해졌더래요.

그래서 둘이 갔어요. 둘이 갔는데 스님 말씀이 "전자에서부터 너희는 서로서로 원수를 갚고 서로서로 그랬어.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원수를 다 갚았으니까, 때려서 다 갚았으니까 이제 피장파장이 됐는데, 앞으로 얽히고설킨 그 인과가 또다시 얽혀지면 이거는 뭐, 끊으려야 끊을 수 없이 오백 년이든 천 년이든 또 간다." 그때에 나 같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 자체에, 바로 네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시니 거기다가, 항상 부처님한테다 맡겨라. 네 자성 부처님이 거기 계시다." 이랬대요. 난 '주인공' 이라 했는데 그분은 그랬대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안고선 항상 부처님을 모셨대요. 그러고선 부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 내면세계에 그렇게 했대요.

그랬는데 그 후로부터 그 사람들이 착해지고 모범이 돼서 참,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동네의 많은 사람이 아주 많은 깨달음을 얻고 사는 법도도 배웠고 또는 농사짓는 법도 배웠고 인간의 도리, 의리, 도의, 사랑 이런 것도 배웠고, 그래서 그 고을 바닥이 전부 그분을 아주 스승처럼 모셨대요. 그랬으니 미래도 그렇게 잘될 테죠.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사람 자체도 우리가 끼리끼리 이렇게 만났다 이럴 때 그거는 누가 뭐래도 벌써 인연이 있으면 그렇게 만납니다. 좋은 인연으로 똑같이 만나면 모르지만 만약에 원수를 갚으려고 인연이 된다면 큰 탈이죠.

내가 설법할 때도 그런 얘기 한 예가 있어요. 농사짓는 데 저 깻벌레하고 거미를 너무 죽여 가지고요, 그게 그만 형제로 나와 버렸어요. 그 원수를 갚으려고 형제가 돼 가지고 나와서 글방에 다니는데 어느 스님이 오셔서 그 애들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면서 그 영감 마나님한테 일러 준 겁니다. "저 아들들은 바로 형은 깻벌레고 아우는 거미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며칠 안 있어서 당신은 전부 뼈다귀만 남고 다 긁혀 없어지오." 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니까 옛날이면 이렇게 촘촘하게 철망으로다가 병아리 나가지 못하게 요렇게 막아서 동그랗게 이렇게 하죠. 그런 거를 크게 해서 놓고 거적을 두르고 그 안에 겻불을 해서 놓고 그러고는 글방에 갔다 오기 전에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꼭 덮고 아무리 엄마를 부르고 배고프다는 소리를 해도 나오지 말고 인기척을 내지 마라.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두 시간이 지나고 그런다면 막 욕설이 나올 테니 그래도 아무 소리 마라. 그래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에, 한 시간이 지난 연에 독 속에서 나와서 여길 봐라 그랬어요.

이건 내가 인간 세상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 주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알지 마세요. 그럭하고 들어가 가만히 있으려니까, 딴은 올 시간이 돼서 오더니 "엄마, 배고파! 밥 줘! 어디 갔어?" 하면서 그냥 아래 위로 온통 찾고 돌아다니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연놈 어디 갔어?" 이러고 나오더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연놈들이 어디로 갔어? 원수 갚으려고 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깻벌레로 돌아가고 거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어디로 갔느냐. 이 연놈 어디로 갔느냐." 그러더래요. 그냥 독 안에서 소스라친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가지고는 막 욕을 하고 울면서 말이에요, 아우성을 치면서 "너나 나나 이제는 원수 갚을 시간이 점점 넘어가. 그러니 이 연놈들 원수를 갚지 못하고 가는 이 심정은 뼈가 녹듯이 아프다." 그러면서 아, 울면서 그러더니 그 소리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후에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깻벌레고 한쪽에는 거미인데 그냥 철망에 아주 가득히 우물우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인 대로의 수효야, 그게. 그렇게 우물우물하니까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는데 거적으로 이렇게 막아 놨으니까,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 겻불 놓은 거에서 연기를 쐬고서는 전부 하나하나 죽더라는 거야. 죽는데, 스님이 척 앞에 들어오시더니 "이거를 다 무명을 벗겨 줘야 되겠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을 다 살린 거예요. 스님이 서서 가만히 보고 계신 동안에, 철망에 걸쳐져서 전부 죽더라는 거죠, 전부 무명을 벗겨 줘야겠으니까…. 그래서 한데 모아서 사람 하나 만들고 한데 모아서 사람 하나 만들고. 그게 뭐냐 하면 주인공이, 지금으로 치면 주인공이 그 수백 개의 의식들을 다 여기다 넣고 요리를 한 거죠. 즉, 거미의 의식이나 깻벌레의 의식을 다 주인공에 그냥 맡겨 놓은 거예요. 맡겨 놓으니까 내가 마음이 돌아가듯이, 바퀴가 돌아가듯이 여기서 자꾸 돌아가면서 인간의 그 모든 삶을 배운 거예요, 여기서. 배워서 환토를 해서 사람으로 천도가 된 거죠. 천도를 시키니 그 깻벌레들은 체가 없으니까 의식 자체를 수백 개를 그렇게 한데 합쳐도 그것은 하나를 내려면 내고 하나도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영감님하고 마나님하고 그렇게 두 분더러 "인제 다시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하나 둘 죽이는 것도 그런데 너무 못할 노릇을 시켜서 그렇다." 그건 왜냐하면 산 채로 갖다 놓고 불을 질렀거든. 그냥 통에다가 오줌을 조금 담아 가지곤 거기다가 집게로다가 잡아넣어 가지고는 왜, 이만큼씩 한 게 씩씩거리죠. 그런 거 그냥 담아 넣어 가지고, 그것이 또 죽지 않고 어디 나가면 깻벌레가 깨한테로 또 올라갈까 봐 아예 그냥 불을 질러 놓고 거기다 태운 거죠. 그러니까 타면서 모든 생각을 한 것이 악이 된 거죠.

그런 거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나오면서 모두 남의 탓을 하는데 남의 탓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남의 탓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안되느냐 이런 것도 남의 탓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탓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있던 걸 지금 현실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바로 내 몸뚱이 속의 세포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빠져도 코가 깨진단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탓이냐 하면 자기가 전자에 지어 놓은 바로 과(果)죠. 그러니 그것을 내가 제거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많은 직원들을 부리는데, 내 요거 말하기 전에 한마디 할까요. 지금 현실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신도가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부리면서 옷을 지어서 수출해요. 국내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빠지는지 하루에 두 벌 아니면 세 벌씩 항상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가죽인데요, 아주 보들보들한 가죽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면 백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루에 두 개씩 세 개씩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참 이상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증거는 잡지 못했으나 누가 가져간다는 건 알고 있거든. 두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아주 열쇠를 맡기기로 했어요. 허허허, 이렇게 했죠. '네가 집어먹으니까 너한테다 맡겨야겠다.' 그래서 둘을 불러 놓고 그날 그랬죠. "항상 이렇게 도둑을 맞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네밖엔, 자네 둘밖엔 믿을 데가 없어." 허허허. "자네 둘밖엔 믿을 데가 없으니 자네가 이 곳간 열쇠를 갖고 이것을 자네들이 지켜 주게." 그 대신에 그 두 사람을 관리인으로 아주 추켜세워 놨어요. 또 봉급을 더 주기로 하고요. 이렇게 그날부터 아주 직원들한테 다 선포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그날부터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 공장이 점점점점 늘어 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떠한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있을 때에 믿고, 믿어야 됩니다. 그 악업의 의식, 선업의 의식이 한두 명의 의식입니까? 내 마음의 주인공이라면 한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내 마음의 그 모두를 그저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로 '이건 당신밖에, 주인공에서밖엔 해결할 수가 없어. 너밖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도둑질하는 거니까 네가 도둑질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잘하는 거든지 못하는 거든지 맡겨 놔라. 잘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래 북돋아 주는 거거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되는 것은 '아이고, 안되는 것도 네가 하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밖엔 없다.' 그러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 믿고 거기 맡겼을 때, 열쇠까지 다 맡겼을 때 비로소 '야, 정말이지 우리의 이 하나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한마음으로 자기와 똑같이 대접을 해 주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얼른 쉽게 말해서 방편입니다, 이게.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대접을 해 주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이분을 갖다 건강하게, 이 집도 건강하게 해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거기에 놓으면 거기서 그냥 해결이 돼. 왜냐하면 세포 하나하나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공장장들이거든. 그 공장장한테 다 맡겼으니까 공장장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이 다 그냥 한마음이 된 거야.

우리 공장이 좀 많습니까? 여기 한 몸 안에, 한 혹성 안에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도 공장 위 공장 간 공장 이자 공장 소장 대장 공장 뭐, 방광 공장 콩팥 공장, 허허허, 우습겠네. 공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 그 직원은 또 얼마입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그 한마음의 주인공, 자기한테다 놔야 돼요. '거기서밖엔 해결할 수 없구나.' 할 때에 거기서 의식 자체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똑같이 숭배를 해 주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돌아가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는 보살이 돼 버려요. 이 사람이 부처라면 이 사람 부처라는 그 마음에 의해서 아주 그냥 진짜 호법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보신이 되고 법신이 되고 거기 전체가 그냥 호법신장도 되고 그래 가지고는 보호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이 주인이 마음이 더 넓어져서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물리가 터져 가지고 모든 걸 알게 되면 거기서도 다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그게 천백억화신으로 화한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내 마음의 주인공이라면 한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건 당신밖에, 주인공에서밖엔 해결할 수가 없어.
너밖엔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하고
그저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로 맡겨 놓으세요!**

※위 법문은 1989년 12월 16일 뉴욕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요양소
수시건강상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